

제 1 교시

2016-2014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그대의 오늘 국군의 내일 조국의 미래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盡人事待天命

제 1 교 시



201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B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육 군 사 관 학 교

권
말

[1 ~ 3] 다음은 교내 급식 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교 대표 : 내년도 급식 업체 선정에 총 3곳의 업체에서 제안서를 내 주셨는데, 제안서를 평가해 보니 이번에도 대표님 업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인근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 학교 급식이 가장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는데, 그런 만큼 급식 단가가 조정 가능하다면 대표님 업체와 계약하고자 합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급식 계획에 큰 변동이 없는데, 급식 단가의 15% 인상을 요구하신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업체 대표 : 말씀하신 점은 저희도 고민한 부분입니다. ㉡ 저희가 제안한 15%의 인상안에는 식자재 공급 가격 인상 요인 8%, 인건비 인상 요인 5%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개 학급이 감축되어 급식 총 인원도 감소할 텐데,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급식 단가의 15% 인상에 동의해 주신다면, 친환경 식자재 비율을 85% 수준으로 높여서 공급하겠습니다.

학부모 대표 : 친환경 식자재 비율을 높여서 공급하신다는 점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안서에 밝히신 대로라면 점심과 저녁을 모두 먹는 학생의 경우 연간 20만 원 이상의 급식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업체 측에서 요구하신 15%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메뉴 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 급식 메뉴를 조정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식 단가 인상률을 조정하고 난 뒤에 이어서 급식 메뉴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A]

학부모 대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대표 : 네. 좋습니다.

학교 대표 : 다시 급식비 인상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전체 학부모님들께서 추가로 부담하실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업체 측의 제안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 단가의 10% 인상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 : 그렇다면 학생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이 전체 급식량의 10%에 달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1인당 급식량을 5% 정도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원하는 반찬은 자유롭게 더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해 보겠습니다. ㉢ 이 점에 동의해 주신다면 원래 제안드렸던 내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급식 단가를 10%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 : 결국 학생들의 급식량은 줄이면서도 급식 단가는 인상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그렇다면 급식비 10% 인상에 동의해 드리는 대신, 매주 1회 별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대표 : 별식을 추가하는 것은 비용 인상 요인이 됩니다. ㉤ 저도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이기에 학부모 대표님 요구를 수용하고 싶습니다만, 비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말씀하신 요구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대표 :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 같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렇다면 별식 대신 주 2회 정도 요구르트나 제철 과일 등의 간식을 추가로 제공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업체 대표 : 그 정도면 저희가 다른 부분의 비용을 절감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부모 대표 : 네. 별식 제공은 어렵다고 하시니, 간식을 추가 제공해 주시는 조건으로 급식 단가 10% 인상에 합의하겠습니다.

1. 협상 참여자의 협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원만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 :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들어 제안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 상대방의 양보를 전제로 상대방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고 있다.
- ④ ㉣ :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 ⑤ ㉤ :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추가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2. [A]에서 업체 대표가 사용한 협상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전략
- ② 제안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 상대의 양보를 받아내는 전략
- ③ 갈등을 일으키는 쟁점을 무시하여 갈등을 덮어 버리는 전략
- ④ 중요도를 고려하여 협상 쟁점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전략
- ⑤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절충안을 이끌어 내는 전략

3. <보기>는 위 협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업체 대표	㉠ 급식 단가를 15% 인상한다. ㉡ 친환경 식자재 비율을 85% 수준으로 높인다. ㉢ 1인당 급식량을 5% 줄인다.
학교 대표	㉣ 급식 단가를 10% 인상한다. ㉤ 주 2회 간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학부모 대표	㉥ 급식 메뉴를 조정한다. ㉦ 주 1회 별식을 제공한다.

- ① ㉠과 ㉤는 협상 참여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제안이다.
- ② ㉡는 ㉠이 수용되도록 하기 위한 업체 대표의 제안이다.
- ③ ㉢은 ㉣을 수용하기 위한 업체 대표의 제안이다.
- ④ ㉤는 ㉤에 대한 학교 대표의 대안이다.
- ⑤ ㉥는 ㉣을 수용하기 위한 학부모 대표의 제안이다.

[4 ~ 5] 다음은 도서부원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국 : 도서관 개방에 대해서, 3학년 부원들의 생각을 모으라고 하시네. 선생님께서 도서부 의견서를 제출하실 건가 봐.

유준 : 지난 번 그 얘기구나. 나는 찬성!

철호 :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 나는 반대! 다수결이니까, 반장 마음대로 해.

인국 : 이 친구들,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서로 말해야 민주적인 의사소통이지. 내 표의 향방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 (철호의 책을 접으며) 두 분께서는 저를 설득해 주세요.

철호 : 우리 학교 학생들만 관리하는 데도 이렇게 힘든데,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구? 우리 능력이 그 정도가 돼?

유준 :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면 관리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행복동 주민이잖아. 졸업하면 책 빌려볼 데가 없어서 아쉬울 텐데, 안 그래?

철호 :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따로 지어야지. 학교 개방했다가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면 어찌려고 그래? 꼬맹이들도 몰려올 거 아냐?

유준 : ㉢ 그래, 철호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가는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주민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꼬마들이 학교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봐. 난 학교가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을 것 같아.

철호 : 그 난장판 가운데 공부가 잘도 되겠다!

인국 : 너희들 말을 들어 보니, 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구나. (노트를 꺼내 적는다.) 일단 주민들과 공동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출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거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와야 할 거고.....

유준 : 우리 학교 안에서 책 빌려가는 거야 지금 도서실 컴퓨터로도 되지만,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용한다면 컴퓨터가 몇 대 더 필요하겠어. (인국의 노트를 건네받아 적는다.)

철호 : 그게 한두 푼 드는 일이나?

인국 : 물론 그렇겠지..... 음, 이 정도면 우리 도서부 의견이 정리된 거 같아. 찬성으로 말이야.

철호 : ㉣ (놀란 표정으로 인국을 바라보며) 뭐야, 너도 그럼 찬성이야?

인국 : 유준이한테 설득당한 거지.

철호 : 예잇, 그럼 나도. (노트를 당겨와 적으며) 학교 도서관이니까, 학생들이 이용 우선권을 가져야 해. 이걸 분명히 해야 해.

유준 : 응? ㉤ (철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 철호가 왜 이럴까?

철호 :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야. 내가 귀찮은 건 좀 싫어해도, 마음은 열려 있거든.

인국 : 고맙다. 너희들은 최고의 친구야. 이렇게 ㉥ 의견서를 제출할게.

4. 위 대화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단호한 의사 표현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 : 말투의 변화와 행동을 통해 대화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하고 있다.
 ③ ㉢ :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대 의견에 대한 반론을 개진하고 있다.
 ④ ㉣ :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⑤ ㉤ : 의도를 알 수 없게 하는 표현으로 인해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5. <보기>는 ㉠을 구체화한 것이다. 도서부원들의 대화로 보아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학교 도서관 주민 개방에 대한 의견서

도서부 3학년 김철호, 민유준, 우인국

저희 도서부 3학년들은 행복동 주민들이 우리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는 도서관 개방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학교 도서관 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건의합니다.

- 1) 학교에 들어오는 주민들에 대한 신원 확인 ㉡
 2)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미취학 아동의 출입 금지 ㉢

2. 도서관 공동 이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건의합니다.

- 1) 주민 대표와 도서관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 모색 ㉣
 2) 도서 대출 관리 컴퓨터 추가 확보 ㉤
 3) 재학생 이용 우선권 부여

저희들은 앞으로도 도서관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6 ~ 8] 다음 <보기 1>과 <보기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1 >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수업 시간에 동영상 시청하고, 같은 화제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논설문 쓰기
- 동영상의 내용 : 민간 병원 설립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수립한 논지 방향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 대책 촉구
- 논설문 작성 시 유의 사항

논설문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신이 쓰는 글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로 글을 쓴다.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과 관점을 명확히 설정하되, 반대 입장이나 비판까지 고려한다. 언어 공동체의 관습과 문화를 고려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관련된 개념은 그 뜻을 명확히 정립하여 사용한다. 글의 처음 부분에서 논의의 배경과 목적 등을 밝히고, 중간 부분에서는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며, 글의 끝 부분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전망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활용할 자료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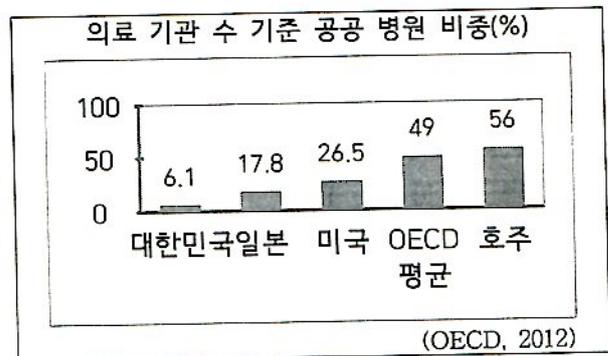
지난 수십 년 간 민간 병원의 증가로 의료 인프라는 대폭 확충되었지만, 공공 보건 의료는 오히려 후퇴했다. 효율성이나 수익성 같은 측면만이 강조되어 공공 병원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공 보건 의료에 담당해야 할 의료 사각지대의 관리에 허점이 생김으로써 국민의 건강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 가까운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태로워지거나,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나) 통계 자료

의료 기관 접근성 인구 취약 비율*(%)

구분	종합 병원	산부인과	응급실
기준 시간	90분	60분	30분
○○특별시	0.0	0.0	0.0
○○광역시	0.0	0.0	0.0
○○시	15.5	38.7	18.3
○○군	99.9	100.0	98.6

(○○연구원, 2013)



* 의료 기관 접근성 인구 취약 비율 : 해당 지역 인구 대비 기준 시간 내 의료 기관까지의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다) 전문가 의견

전반적인 사회 양극화 추세와 함께 소득 계층 간 만성 질환 환자 발생 비율의 차이가 커지는 등 건강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건강 부문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의 사망률이 2~5분위에 비해 2배 이상이라는 통계는 빈곤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한 빈곤 계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고 빈곤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의료 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 보험료 중 공공 부분의 비중을 높이는 등 건강 보험의 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보 기 2 >

- | | |
|-------------------------|---|
| 1. 서론 | ㉠ |
| 2. 의료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 |
| - 의료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 ㉡ |
| - 의료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점 | ㉢ |
| 3.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 | ㉣ |
| 4. 결론 | |

6. <보기 1>의 '작문 상황'에 주목하여, 작문 과제를 수행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료 사각지대', '의료 공공성' 등의 용어는 그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뒤 사용한다.
- ②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 부합하는 것들로 제한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③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여 논거를 마련한다.
- ④ 글의 종류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화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신의 주장과 관점이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 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를 서술하되, 언어 공동체의 문화와 관습을 고려하여 논거가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도록 한다.

7.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수업 시간에 시청한 동영상 내용을 활용하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의료 공공성 강화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논의의 목적임을 밝혀야겠어.
- ② ㉠에서는 (가)와 (다)를 활용하여, 의료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해야겠어.
- ③ ㉡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의료 기관의 지역 쏠림 현상과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등이 의료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됨을 지적해야겠어.
- ④ ㉢에서는 (가)와 (나)를 활용하여, 선진국에 비해 공공 병원의 비중은 작지만 과거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확충되었음을 부각해야겠어.
- ⑤ ㉣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병원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공공 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야겠어.

8. <보기 1>을 고려할 때, <보기 2>의 결론에 들어갈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건 의료 분야의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병원의 활성화 방안 제안
- ② 현실 상황에 비추어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 제시
- ③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자율 경쟁을 통한 보건 의료 기관의 경쟁력 확보 촉구
- ④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전국민의 건강 안전망이 확보된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 제시
- ⑤ 공공 의료 기관의 확충으로 지역 간 보건 의료 격차를 줄임으로써 지역 갈등이 해소됨을 강조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 부여 과제 : ‘표절 방지 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주제로 논설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 우리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후배들

※ 학생의 글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무심코 타인의 글을 따오는 경우가 흔하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등의 핑계를 대면서 추호의 죄책감도 없이 표절을 한다. 가일층 심각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표절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학습과 관련된 표절 행위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절의 유형도 더욱 다양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의 표절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의 표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연한 실수이든 의도적 행위이든 간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일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표절 방지를 위한 작지만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학교에서도 표절 방지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무슨 거창한 운동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선 표절 방지 캠페인을 펼쳐 표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꾸어 보자. 표절은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표절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예방 교육을 실시하자.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절의 유형을 알려 주고, 다른 사람의 글을 올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과제를 작성하면서 표절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게 될 것이다.

9. ‘학생의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반론을 펼친다.
- ② 가설을 설정한 후 근거를 들어 논증한다.
- ③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절충을 시도한다.
- ④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⑤ 자신의 체험을 일반화하여 주장을 뒷받침한다.

10. <보기>는 ‘학생의 글’을 검토한 선생님의 의견이다.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다듬기 위해 세운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글 쓰느라고 고생 많았어. 몇 가지 사항만 수정하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아. 먼저, 이 글의 주제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두 부분에 시사적인 내용을 언급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결말 부분에 주요 내용을 요약한 후 독자의 동참을 촉구해 봐. 또한, 표절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추가해서 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해. 끝으로, 예상 독자들이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해.

- ① ‘추호’, ‘가일층’, ‘무관용’ 같은 한자어는 쉬운 말로 바꾸자.
- ② ‘표절 방지 운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와 같은 제목을 붙이자.
- ③ 서두에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표적인 표절 사건을 언급하자.
- ④ 인터넷 보급률과 표절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추가하자.
- ⑤ 결말에 외국의 표절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독자의 동참을 호소하자.

11. <보기>의 한글 맞춤법에 관한 자료를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제18항 용언들의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 ㉠

-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
예)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들 적
예) 낫다 : 나아, 나오니, 나았다
- ⋮
-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예) 푸르다 : 푸르러, 푸르렀다
-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예) 가르다 : 갈라, 갈랐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예) 떡이, 같이
-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① ‘물을 여기에 부어라’의 ‘부어라’는 어간 ‘붓-’에 어미 ‘-어라’가 결합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② ‘그만 좀 간질여라’의 ‘간질여라’는 어간 ‘간질이-’에 어미 ‘-어라’가 결합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③ ‘십 리는 좋이 되겠다’의 ‘좋이’는 어간 ‘좋-’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④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의 ‘게으름’은 어간 ‘게으르-’에 접미사 ‘-ㅁ’이 결합해 명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 ⑤ ‘앞으로 자주 보자’의 ‘자주’는 어간 ‘자-’에 접미사 ‘-우’가 결합해 부사가 된 말이므로 ㉢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1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장면 1: 수업 중)

선생님 : 여러분, 오늘은 ‘문학과 삶’이라는 주제로 김동리의 소설 ‘역마’를 배울 ㉠ 차례입니다. ‘역마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두 활동을 할 것이니 다들 본인이 속한 모둠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철 수 : (자리를 옮긴 후 짝인 영희를 쳐다보며) 너, 안 좋은 일 있어? 오늘따라 아파 보여.

영 희 : 아냐. 걱정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아침 조회 이후로 별다른 ㉡ 말씀 없었니?

(장면 2: 하교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선생님 : 어머, 영희구나. 학교 밖에서 보니 더 반갑네.

영 희 : 저도 여기에서 선생님을 ㉢ 볼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 오늘 수업 시간에 힘들어 보이던데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영 희 : 아니에요, 선생님. ㉣ 제가 아침에 아파서 못 일어났는데 늦잠을 잔다고 할아버지께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선생님 : 그렇구나. 그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그에 대해 이야기 안 하셨어?

영 희 : 네, 할아버지께서는 ㉤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신 일에는 완고하셔요.

- ① ㉠ : 선생님은 수업 장면이라는 공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② ㉡ : 주체인 ‘담임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말씀 안 계셨니?’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③ ㉢ : 객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특수 어휘 ‘뵙다’를 활용하여 ‘뵙’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④ ㉣ : 선생님과 대화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대명사 ‘제’를 사용하고 있다.
 ⑤ ㉤ :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고 있으므로 ‘자기가’는 ‘당신께서’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1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 적용된 음운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1 >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과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에는 어느 한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 ‘교체’, 둘 이상의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소리가 되는 ㉡ ‘축약’, 원래 있던 소리가 사라지는 ㉢ ‘탈락’, 없던 소리가 끼어드는 ㉣ ‘첨가’가 있다.

— < 보기 2 > —

[표준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교’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ㄺ,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받침 ‘ㅎ(ㄸ, ㅊ)’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

4. ‘ㅎ(ㄸ, ㅊ)’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① 제9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빛다[빔따]’를 들 수 있다.
 ② 제11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닭[닥]’을 들 수 있다.
 ③ 제12항의 ‘1’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얕던[안턴]’을 들 수 있다.
 ④ 제12항의 ‘4’는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낳은[나은]’을 들 수 있다.
 ⑤ 제29항은 ㉣을 반영한 것으로, 그 예로는 ‘한여름[한녀름]’을 들 수 있다.

14. <보기>의 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성 수 :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아버지 : ㉠ 너, 지금이 도대체 몇 시냐?

성 수 : 죄송해요, 아버지. 축제 관련 학생회 회의가 있었는데, 선배들한테 늦게까지 ㉡ 붙잡혔어요.

아버지 : 오늘 학교 갈 때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렸니?

성 수 : ㉢ 아차! 바쁘게 나간다고 깜빡 잊었어요.

아버지 : 그럼 중간에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성 수 : 하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회의를 하느라고 전화를 ㉣ 못 했어요.

아버지 : ㉣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이 녀석아. 방에 가서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 드려라.

성 수 : 예, 알겠습니다.

- ① ㉠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한다.
 ③ ㉢ : 감탄사를 사용하여 잘못을 갑작스럽게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④ ㉣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 :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상대를 포함한 동일 공간 내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15.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자료로 삼아 탐구 학습을 하였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부르다¹ [불러, 부르니] 「동사」

[1] 【...을】

- ㉠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누나가 동생을 부른다.
- ㉡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 ㉢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 ♣ 응원가를 부른다.
- ㉣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 ♣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 ♣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

[2] 【...을 ...에】 【...을 ...으로】

청하여 오게 하다. ♣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3] 【...을 ...으로】 【...을 -고】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다.

불리다¹ [불리어[--어/--여](불려), 불리니] 「동사」

[1] 【...에게】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 교무실로 선생님에게 불리어 갔다.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 이 노래가 요즘 생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다.

[2] A 의 피동사. ♣ 반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3] 【...에게 ...으로】 【...에게 -고】

‘부르다¹[3]’의 피동사. ♣ 막걸리는 농민들에게 농주로도 불렸다.

- ① A에는 ‘부르다¹[1] ㉡’이 들어간다.
- ② ‘부르다¹’과 ‘불리다¹’은 모두 활용을 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 ③ ‘부르다¹[1] ㉢’의 용례로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부르다¹[1]’의 ㉢, ㉣은 ‘불리다¹’을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 ⑤ ‘부르다¹’의 [1]~[3]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판단이 단순한 객관적 실재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실재론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판단은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의존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웅장함’이라는 미적 속성은 ‘웅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감상자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미적 판단의 주관성과 경험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미적 판단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이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불일치란 굳이 해소해야 하는 문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경험, 취미와 감상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적 속성과 미적 판단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였던 레빈슨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대상의 감상 과정에서 감상자들은 일차적으로 대상의 비미적(非美的) 속성에 주목한다. 비미적 속성이란 대상의 선, 색, 모양, 질감, 무게, 리듬, 음색 등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다시 정상 지각자에 의해 관찰이나 지각이 가능한 ㉠ 구조적 속성,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지각으로는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는 ㉡ 하부 구조적 속성, 작품의 발생에 관계하는 주요 요소들, 즉 작품의 창작자나 작품이 속한 경향, 영향 관계 등을 일컫는 ㉢ 맥락적 속성으로 나뉜다.

이러한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적 속성을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이라 규정하였다.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주관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인상의 가치 중립적 속성으로 인해, 그 인상의 기술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술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그런데 감상자들이 제한된 범위 내의 술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미적 판단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성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새뮤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들은 한 감상자가 이 곡으로부터 현상적 미적 인상을 지각한 후, 이 인상을 기술할 수 있는 술어로 ‘신파적이다’를 선택하고 이를 자신의 미적 판단으로 표현했다고 가정해 보자. 레빈슨에 의하면, 이 술어로 이루어진 미적 판단(‘이 곡은 신파적이다’)은 감상자 자신이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지각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감상자가 같은 곡에 대해 ‘이 곡은 우아하다’라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가 내린 미적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감상자들이 받은 인상이 모두 ‘고음의 현악기 위주의 연주, 느린 템포, 단조 선율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이라면, 그들의 판단은 모두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근거한 것으로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미적 판단 간의 차이는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레빈슨의 견해이다.

1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효용을 밝힌 후, 다른 이론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분야의 사례와 더불어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이론을 설명한 후, 이들을 포괄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이론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18. ㉠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판단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미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판단의 주체는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
- ③ 미적 판단의 다양성에 대한 논쟁이 함의를 도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
- ⑤ 미적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가 대상의 외부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보 기 > —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은 ㉠ 네덜란드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직선들의 수직적 교차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직사각형들에 의해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 ㉡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들 중 일부는 선명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두드러져 보인다. ㉢ 엄밀한 측정 결과 이들 직사각형에서 서로 평행 관계에 있는 직선들의 길이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는 감상자들이 대상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20. 레빈슨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거대한 화면을 단일한 색채로 가득 메운 마크 로스코의 색면 회화에 대한 미적 판단은 ‘따분하다’,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술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층위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감상자들의 입장에서 ‘야하다’라는 술어는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적절한 술어로 평가받지 못한다. ‘야하다’라는 술어는 ‘밝고 부조화스러우면서 눈길을 끄는 색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기술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① 평가에 사용된 술어들은 로스코의 작품으로부터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과 그에 대한 감상자의 주관적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 ② 로스코의 작품을 판단하는 술어 중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것들은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술어이다.
- ③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와 같은 술어를 이끌어내는 현상적 미적 인상은 작품의 색, 면과 같은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해 ‘따분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판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술어의 선택과 사용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 ⑤ ‘야하다’가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술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 술어가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재한 술어이기 때문이다.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론』을 통해 현대 영미 윤리학계에 정의에 대한 화두를 던진 사회철학자 롤즈는 전형적인 절차주의적 정의론자이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 체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온 공리주의가 소수자 및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계약론적 토대 하에 대안적 정의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롤즈는 개인이 정의로운 제도 하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 임금과 재산, 권한과 기회 등이 필요하며, 이들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통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체제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개인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원리들을 탐구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 ‘원초적 상황’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원초적 상황’은 정의로운 사회 체제의 기본 원칙들을 선택하는 합의 당사자들로 구성된 가설적 상황으로, 이들은 향후 헌법과 하위 규범들이 따라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을 합의한다.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계층, 성, 인종 그리고 자신들의 타고난 재능, 취향 등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 ‘무지의 베일’이라고 한다. 단, 합의 당사자들은 인간의 심리, 본성 등에 대한 지식, 제도의 영향력과 같은 사회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알고 있으며, 공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롤즈는 이러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사회 체제의 기본 원칙들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무지의 베일을 벗은 후에 겪을지 모를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원초적 상황을 전제로 합의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게 된다.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른 개인들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를 ‘자유 원칙’이라고 한다. 여기서 롤즈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는 양심과 사고 표현의 자유, 연합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적 공간 및 거주와 개인적 재산에 대한 권리, 법치를 받을 자유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한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제2원칙이다.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은 동등한 능력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직책이나 직위와 관련하여 동등한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가정이나 계층에서 태어나더라도 그 재능을 계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낮은 계층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차등의 원칙’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난 조건이 불리한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통해서라도 최대의 이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들 간의 우선성과 관련하여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며, 제2원칙 내에서는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이 현실적으로 정의의 원칙들이 선택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닐 수 있으며, 사적 재산의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고, 최소 수혜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롤즈의 정의론은 보다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윤리학적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지평을 넓힌 이론으로 평가될 수 있다.

21.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하여, 밑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 ① 정의의 원칙들 간의 우선 순위
- ② 롤즈의 ‘정의론’의 한계와 의의
- ③ 롤즈의 ‘정의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 ④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
- ⑤ 정의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된 이유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롤즈는 합의 당사자들이 ㉠에서 정의의 제1, 2원칙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 ② 롤즈는 ㉠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을 제시하였다.
- ③ 롤즈는 ㉡ 상태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사회 체제의 기본 원칙들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 ④ 롤즈는 합의 당사자들이 ㉡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겪을지 모를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 ⑤ 롤즈는 ㉠의 합의 당사자들을, 인간과 제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합의를 준수하고 합리적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23. 밑글에 제시된 롤즈의 견해에 근거하여 <보기>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A국은 국민에게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민주 사회이다. ‘모든 국민은 성별, 인종 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받지 않는다.’는 교육법 조항 하에 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단,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빈곤층의 자녀 중 학교 교육 대신 노동을 택하는 비율이 중산층 자녀의 노동 선택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다.
- B국은 출생 신분에 따라 귀족, 중인, 노예라는 세 계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귀족 계급만이 참정권을 갖고 이동과 거주 자유를 누린다. 중인 계급은 거주 지역이 따로 분리되며 귀족 계급 거주지에 살 수 없다. 귀족 계급은 노예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 C국은 국민의 기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모두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한 정책을 실시한다. 빈곤층을 위한 교육·보건 정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할수록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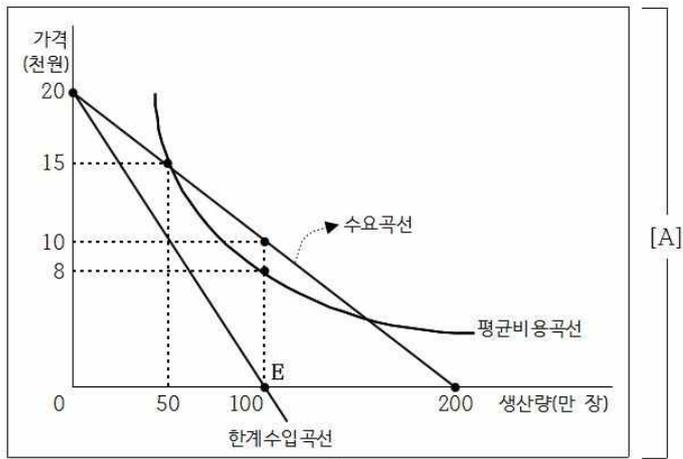
- ① A국은 국민에게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므로 ‘자유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 ② A국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따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의로운 사회로 볼 수 없다.
- ③ B국은 거주 자유, 정치에 대한 권리가 출신에 따라 제한되므로 정의로운 사회로 볼 수 없다.
- ④ C국은 ‘모두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하므로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 ⑤ C국은 사회 경제적 지위 차로 인해 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의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주요 생산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이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미를 갖는 상품을 정보재라고 하는데, 책이나 음반, 영화 DVD,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디지털화가 가능한 재화라는 점에서, 정보재를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정보재의 내용인 정보나 지식은 비경합적이어서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으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등대, 교량 같은 공공재와 유사하게 비배제성을 띤다. 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재는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이 일반적인 상품과는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럼 과연 정보재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 앞서 언급한 대로 정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생산 초기 단계에서 매우 큰 고정 비용이 들지만 일단 생산이 시작되면 추가적 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음악 CD를 제작하는 경우 초기 제작 단계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일단 제작을 마치고 나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공CD 비용뿐이므로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비용이 초기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고,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비용 곡선*은 <그림>에서와 같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게 된다. 이처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경쟁 체제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재의 특성상 여러 생산자가 완전하게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도 없으므로, 정보재 시장에서는 자연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이 나타난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쟁 시장과 달리,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가 된다. 따라서 가격 설정자인 독점 기업에게,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 생산할지를 묻는 것은 ㉠ 무의미하다. 독점 기업은 가격과 공급량을 수요 곡선 상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A]

그렇다면 정보재 상품의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음반 회사 S가 가수 B의 새 음반을 제작한다고 하자. 그 음반 1장의 가격이 1만 5천 원일 때의 수요량은 5십만 장으로, 가격이 2만 원일 때의 수요량은 0으로, 가격이 0일 때의 수요량은 2백만 장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정보에 기초하여 <그림>과 같은 모양의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다.

회사의 이윤은 ‘한계 수입* = 한계 비용’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극대화될 수 있는데,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계 비용 곡선은 수평축과 일치하게 된다. 한계 수입 곡선은 앞서 그린 수요 곡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데, 수요 곡선과 수직축 상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가 두 배인 반직선이 된다. <그림>을 보면 한계 수입 곡선이 수평축과 교차하는 E점에서 ‘한계 수입 = 한계 비용’이 충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S는 1백만 장의 음반을 만들어 한 장 당 1만 원의 가격에 팔게 될 것이다. 음반 생산량이 1백만 장일 때의 평균 비용은 8천 원이므로, S는 한 장 당 2천 원의 이윤을 얻어 총 20억 원의 이윤을 얻게 된다.

* 평균 비용 곡선 : 상품 한 단위 당 생산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
 * 한계 비용 :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리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한계 수입 : 상품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2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와 비교하여 정보재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정보재 상품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정보재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 ③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정보재 상품의 가격 결정 원리를 밝히고 있다.
- ④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를 드러내어 정보재 시장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 ⑤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보재 시장의 작동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2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량이 50만 장일 때와 200만 장일 때의 한계 비용은 동일하다.
- ② 생산량이 1백만 장을 초과하면 생산자의 이윤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 ③ 장 당 가격이 2만 원 이상일 경우 수요가 없으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④ 50만 장을 생산할 경우 평균 비용과 가격이 같으므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장 당 가격이 1만 원일 때 수요량이 최대가 되므로 생산자는 최대치의 이윤을 얻게 된다.

2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1999년 만들어진 N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 파일(MP3)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서도 공유된 음악 파일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음반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로 인해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 ① N서비스에서 음악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보재의 비배제적 성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N서비스의 활성화는 음반 회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N서비스는 일종의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N서비스에서 음악 파일이 유통되는 방식은 독점 시장의 양상을 띠다고 할 수 있다.
- ⑤ 음악 파일은 추가적 생산 비용이 없으므로 음반 회사의 수입과 N서비스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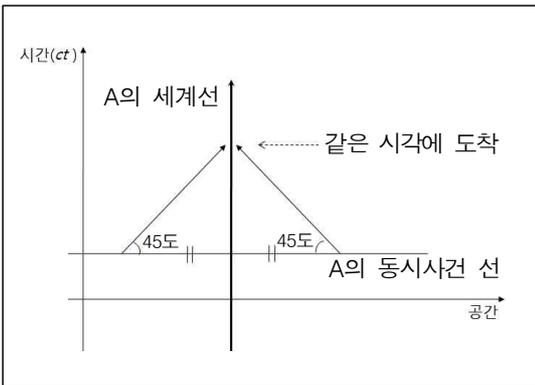
27.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 ① 불가능(不可能)하다
- ② 불가피(不可避)하다
- ③ 불필요(不必要)하다
- ④ 불투명(不透明)하다
- ⑤ 불확실(不確實)하다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으로 보았다. 공간은 상대적인 물리량인 데 비해, 시간은 절대적인 물리량으로서 공간이나 다른 어떤 것의 변화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도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보고,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4차원 공간, 즉 ‘시공간(spacetime)’이라고 하였다. 이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공간은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4차원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4차원 시공간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가로축은 공간으로, 세로축은 시간으로 정한 2차원 시공간 그림을 이용하는 것이다. 빛의 속도는 불변하는 상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시간 축도 공간 축처럼 길이 차원을 갖도록 빛의 속도를 곱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세로축은 빛의 속도(c)×시간(t) 축으로서 ct로 표시한다. 2차원으로 표현한 시공간 그림에서 한 점을 사건(event)이라고 하며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궤적을 세계선(world line)이라 한다. 정지해 있는 물체의 세계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나며, 등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세계선은 수직선에 비해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직선으로 표현된다. 세로축에 빛의 속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항상 속도가 일정한 빛은 45도의 직선으로 표현된다. 빛의 속도보다 느린 물체의 세계선은 공간 축에 대해 45도보다 기울기가 커서 시간 축에 가까운 선이며, 실제 세계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적으로 존재할 경우 45도보다 기울기가 작아서 공간 축에 가까운 선으로 표시된다. 전자를 시간 방향 곡선(timelike curve)이라 부르며, 후자를 공간 방향 곡선(spacelike curve)라고 한다. 이때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선이지만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직선이 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곡선이 된다.



<그림>

이러한 시공간 개념에서 ‘동시사건’은 새롭게 이해된다. 동시사건은 같은 시각에 벌어진 사건들로, 특정 시각에 정지한 관찰자 A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서로 반대로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빛의 속도로 관찰자 A를 향하여 각각 신호를 보냈다고 했을 때, 이 관찰자가 두 신호를 같은 시각에 받았다면 두 지점에서 신호를 보낸 각각의 사건이 동시사건이 된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정지한 관찰자에게 이러한 동시사건들은 특정 시각에 공간 축과 평행한 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A의 동시사건 선들은 A의 입장에서 특정 시각에서의 공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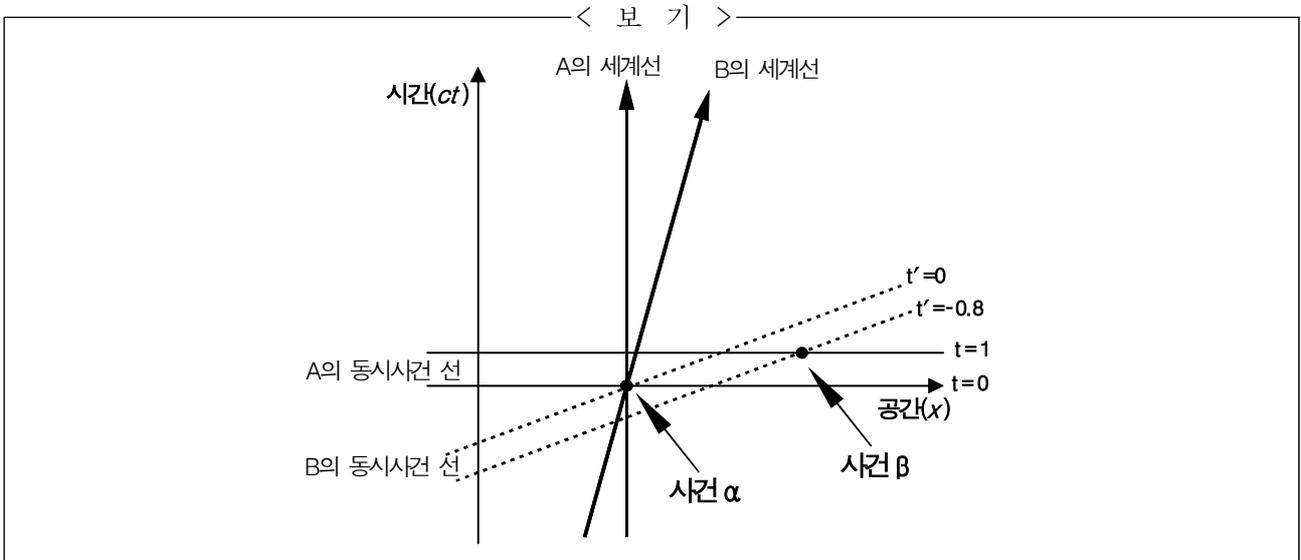
이와 달리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세계선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수직선에 비해 공간 축 방향으로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직선으로, 기울기가 공간 축에 대해 45도보다 큰 직선으로 표시된다. 이때 움직이는 관찰자의 동시사건 선은, 세계선이 시간 축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만큼 공간 축에 수평인 선이 세계선을 향하여 기울어진 각도의 선이 된다.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좌표계는 정지한 관찰자와 같이 직교하는 좌표계가 아니라, 시간 축과 공간 축이 90도보다 작은 각도로 서로 교차하는 좌표계가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관찰자들의 운동 상태와 속도 등에 따라 동시사건들이 다르며, 심지어 관찰자들이 인식하는 사건들의 순서도 뒤바뀔 수 있게 된다. 가령 정지 관찰자 A에게 사건 α가 t=0에 발생하고, 사건 β는 t=1에 발생하여 사건 α가 사건 β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인 경우라 하더라도, 광속에 가까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 B에게는 그에 비례하여 동시사건 선이 B의 세계선을 향하여 기울기 때문에, 사건 β가 포함된 동시사건이 사건 α가 포함된 동시사건 선보다 아래에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사건들의 순서가 관찰자들의 운동 상태와 속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2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공간’에서 빛의 속도는 관찰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② ‘시공간’ 개념에서 시간과 공간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 ③ 실제 세계에서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④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을 모두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보았다.
- ⑤ ‘시공간’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제한된 4차원 공간이다.

29. <보기>는 [가]를 2차원 시공간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에게 사건 α 는 동일한 시공간의 사건이다.
- ② A와 B에게 사건 β 는 사건 α 보다 먼 공간의 사건이다.
- ③ A에게 사건 순서는 $\alpha \rightarrow \beta$, B에게 사건 순서는 $\beta \rightarrow \alpha$ 이다.
- ④ A의 입장에서 $t=1$ 일 때 사건 α 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 ⑤ B의 입장에서 $t'=0$ 일 때 사건 β 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30.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시간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겠군.
- ② 2차원 시공간 그림에는 물체 하나의 운동만을 표시할 수 있겠군.
- ③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정지한 관찰자의 다른 시각의 ‘동시사건 선’은 서로 직교하겠군.
- ④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세계선은 ‘시간 방향 곡선’이 되겠군.
- ⑤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세계선’과 ‘동시사건 선’의 교차각은 관찰자의 속도에 비례하여 커지겠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진(長津) 땅이 지붕 넘어 넘석하는* 거리다
 자구나무 같은 것도 있다
 기장감주에 기장차떡*이 혼한 데다
 이 거리에 산골 사람이 노루 새끼를 다리고 왔다

산골 사람은 막베등거리* 막베잠방등에*를 입고
 노루 새끼를 닮았다
 노루 새끼 등을 쓸며
 터 앞에 당콩 순*을 다 먹었다 하고
 서른 닷 냥 값을 부른다
 노루 새끼는 다문다문* 흰 점이 백이고 배 안의 털을 너슬너슬* 벗고
 산골 사람을 닮았다

산골 사람의 손을 훑으며
 약자*에 쓴다는 흥정 소리를 듣는 듯이
 새까만 눈에 하이얀 것이 가랑가랑한다

- 백석, '노루 - 함주시초(咸州詩抄) 2' -

- * 넘석하는 : 넘어다보이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갈 만큼 가까운.
- * 기장감주, 기장차떡 : 기장으로 만든 식혜와 찰떡.
- * 막베등거리 : 막베(거칠게 짠 베)로 만든, 등만 털을 만하게 만든 홑옷.
- * 막베잠방등에 : 막베로 만든,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홑바지.
- * 당콩 순 : 강낭콩 순.
- * 다문다문 : 사이가 배지 않고 드문 모양.
- * 너슬너슬 : (굵고 긴 털이나 풀 따위가) 부드럽고 성긴 모양.
- * 약자 : 약재.

(나)

- [A]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이 엎드려 있고
- [B]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 [C]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돼 주기도 한다

- [D]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깃대 개썩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 [E]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침녕쿨처럼 머루 녕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 [E]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신경림, '산에 대하여'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이야기 형식을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이질적인 공간을 병치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백석의 시에는 '보는 주체'만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써 화자가 눈여겨보는 대상들이 작품의 전경이 된다. '보는 주체'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들을 관찰하기도 하지만 대상들의 외적 경계를 허물고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눈을 가진 화자는 마침내 자신과 대상, 대상과 대상들 간의 근원적 동일성을 발견하거나, 대상과의 감정적 유대에 이르게 된다.

- ① '장진 땅이 지붕 너머 넘석하는 거리', '자구나무 같은 것도 있다'는 일정한 거리를 둔 관찰이라 할 수 있다.
- ② '산골 사람'과 '노루 새끼'는 화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상으로 작품의 전경이 되고 있다.
- ③ 화자가 대상과의 동일성을 발견했음이 '산골 사람은 막베등거리 막베잠방등을 입고'에서 드러난다.
- ④ '노루 새끼 등'을 쓰는 '산골 사람', '산골 사람의 손'을 핏는 '노루 새끼'는 대상들 간의 동일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새까만 눈에 하이얀 것이 가랑가랑한다'는 '노루 새끼'에 대해 화자가 감정적 유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3. (나)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부정어의 반복을 통해 ‘낮은 산’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 ② [B]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낮은 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③ [C]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낮은 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D] :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대조하여 ‘낮은 산’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⑤ [E] : [A]를 반복적으로 변주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는 건주의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에 원군을 청한다. 김영철은 도원수 강홍립을 따라 종군했다가 포로가 되어 처형될 위기에 처한다. 이때 오랑캐 장수 아라나가 영철을 구해 내 건주의 농사일을 맡기고, 제수와 혼인시킨다. 영철은 두 아들 득북과 득건을 얻는다. 그 후 영철은 명나라 사람인 전유년과 함께 등주로 달아나 그의 누이동생과 혼인하여 또다시 두 아들을 두지만, 결국 조선 사신의 도움을 받아 귀국한다.

신사년에 유림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錦州)에 갈 때 영철은 또 종군하게 되었다. 오랑캐 측에서는 아라나를 진중(陣中)에 보내 군사 업무를 의논하게 했다.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는 이렇게 꾸짖었다.

“나는 네게 세 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그 하나다. 네가 두 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 준 것이 그 둘이다. 내 제수를 너의 아내로 주고 네게 건주(建州)의 집안 살림을 맡긴 것이 그 셋이다. 하지만 너는 세 가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목숨을 살려 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이 첫 번째 죄다. 네게 말을 기르게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네게 부탁했건만 너는 도리어 명나라 놈과 짜고 나를 배신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다. 도망가면서 내 천리마를 훔쳐 갔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다. 네가 도망간 건 그리 한스럽지 않다만, 내 천리마를 잃은 것은 너무도 한스러워 지금 까지 마음이 아프다. 내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

그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이 큰소리로 외쳤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명나라 놈들이 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놈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아홉 명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공(主公)께서는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며 말했다.

“영철이 죄를 짓긴 했습니다만, 공께서 예전에 살려 주셨으면서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덕을 베풀지 못하는 게 되고 맙니다. 제가 영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후히 치르고자 하니 은덕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잎담배 이백 근을 짓값으로 치렀다.

이때 득북(得北)이 오랑캐 군중에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에게 말했다.

“네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가?”

즉시 득북을 불러오게 했다. 부자가 마주 보고 눈물을 흘리니, 진중에서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슬퍼하며 한숨

을 내쉬었다. 이로부터 득복은 매일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을 차려 와 영철을 대접했다. 영철은 귀한 과일은 유럽에게 먼저 올리고, 물러 나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때 오랑캐가 금주를 포위했다. 명나라에서는 십만 군사를 구원병으로 보내 오랑캐와 싸움을 벌였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유럽은 영철을 홍타이지*에게 보내 축하 인사를 하게 했다. ㉠ 아라나는 홍타이지에게 영철의 지난 일을 고하며 벌을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홍타이지는 손을 들어 남쪽을 가리켜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영철은 본래 조선 사람인데, 팔 년 동안은 우리 백성이었고 육 년 동안은 등주(登州) 백성이었다가 이제 다시 조선 백성이 되었다. 조선 백성 또한 우리 백성이다. 더구나 큰아들이 군중에 있고 작은아들은 우리 건주에 있으니, 부자가 모두 우리 백성인 셈이다. ㉡ 저 등주라고 해서 어찌 우리 백성이 될 수 없겠느냐? 내가 천하를 얻음 이로부터 시작되리니, 이 사람이 온 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홍타이지는 영철에게 비단 열 필과 몽고말 한 필을 하사하였다. 영철은 감사의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아라나에게 주어, 제 목숨을 살려 준 은혜에 보답하고 말을 흠뻑던 젖값을 치렀으면 합니다.”

홍타이지가 말했다.

“영철은 자기 잘못을 알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 할 만하구나.”

이에 그 말을 아라나에게 주고, 영철에게는 다시 노새 한 마리를 주었다. ㉢ 영철은 자기가 타던 말을 득복에게 주며 돌아가 득건에게 주라고 했다.

몇 달 뒤 조선에서 교대할 군대가 오자 영철은 봉황성*으로 돌아갔다. 유럽이 영철에게 말했다.

“금주에서 네 젖값을 치르기 위해 내놓은 일담배는 호조(戶曹)의 군수 물자이니, 네가 갚도록 해라.”

영철이 집으로 돌아와 몇 달이 지나자, 호조에서 관향사(管餉使)*에게 공문을 보내 영철에게 은 이백 냥을 받아 내라고 독촉했다. 영철은 노새를 팔고 가산을 모두 털었지만 겨우 그 절반밖에 낼 수 없었다. 나머지 일백 냥을 마련할 길이 없어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역시 부족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이 모두 슬피 여겼다.

이에 앞서 영철의 아버지가 안주 전투에서 사망했을 때 영철의 어머니는 남편의 옷으로 초혼제(招魂祭)를 올리고자 그 옷가지를 남겨 두었다. 영철은 조선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안주로 갔다. 안주성에 올라 사망을 두루 돌며 호곡하면서 부친의 혼을 부르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 “내가 죽거든 꼭 이 옷을 함께 묻어다오.”

마침내 어머니가 숨을 거두자 영철은 아버지의 옷을 함께 묻어 장사를 지냈다.

영철은 의상(宜尙), 득상(得尙), 득발(得發), 기발(起發) 네 아들을 두었는데, 자신이 종군하며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무술년에 조정에서 자모산성*을 고쳐 쌓으며 성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역을 면해 주었다. 영철이 즉시 네 아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 살았으니, 이때 이미 영철의 나이 예순이 넘었다.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하릴없이 늙어 가며 가슴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 성 위에 올라가 북쪽으로 건주를, 남쪽으로 등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영철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저버리고 와 두 곳의 처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지금 내 곤궁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게 어찌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또한 한스러이 여길 게 뭐 있겠나?”

영철은 이십여 년 간 성을 지키다가 여든넷에 죽었다.

— 홍세태, ‘김영철전’ —

* 홍타이지 : 청나라 태종.

* 봉황성 : 압록강 서쪽에 있는 성.

* 관향사 : 국경 방비에 쓰일 군량을 관리하기 위해 평안도에 설치한 관직.

* 자모산성 : 평안도 자산군에 있는 산성.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이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있다.
- ③ 초월적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④ 행복한 결말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환상적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영철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라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군.
- ② ㉡ : 홍타이지는 등주마저 차지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군.
- ③ ㉢ : 둘째 아들인 득건을 생각하는 영철의 마음이 나타나 있군.
- ④ ㉣ : 저승에서라도 전사한 남편과 함께하고픈 어머니의 소망이 표출되어 있군.
- ⑤ ㉤ : 건주와 등주에서의 행복했던 삶을 그리워하는 영철의 마음이 드러나 있군.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김영철의 일생은 명(明)과 후금(後金)이 격돌하던 시대적 격변기에 조선의 서민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질곡을 잘 보여준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어야 했던 종군의 괴로움, 포로 생활의 고통, 가족과의 이산의 슬픔, 서민에게 부과되었던 군역의 가혹함, 지배층의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작품 속에 두루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우리나라 소설이 거둔 새로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① 영철이 유림을 따라 또다시 종군했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조선군의 출병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어.
- ②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꾸짖는 말 속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 끼어 고통받던 조선 사람들의 삶의 질곡을 엿볼 수 있어.
- ③ 영철과 네 아들이 자모산성을 수리하고 방비하는 일에 응하는 장면은, 혹독한 군역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 ④ 영철이 처자식을 버리고 부모의 나라로 귀국한 것은, 그가 가족 간의 도리보다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
- ⑤ 호조가 관향사를 독촉하여 영철에게서 잎담배 값으로 은 이백 냥을 받아내려 하는 장면은, 서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외면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산(靑山)는 옛데흐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데흐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나)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靑山)이나 변(變)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져 우러 예어 가논고

- 황진이 -

(다)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쁘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가
내 마음 둘 터 업다 어드러로 가갓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놉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랴
출하리 **물그의** 가 빅길이나 보랴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딴 가고 빈 비만 걸렛논고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헌더이고
모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흐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흐야 꽃즙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흐야 **꿈**의 님을 보니
옥 그튼 얼굴이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슴 슬크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슴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흐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좁은 엇디 씨뎡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서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쿠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3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4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8.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초장과 중장의 대구를 통해 '청산'과 '유수'의 유사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의 화자는 '청산'을 자신과, '녹수'를 '님'과 동일시하여 대비하고 있군.
- ③ (나)의 화자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이 주목한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④ (가)와 (나)의 화자는 물의 흘러가는 속성에서 각기 다른 시적 의미를 도출하고 있군.
- 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간의 경과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허무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군.

39.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님'의 상실을 전제로 한 애정 시가의 경우 '나'가 있는 장소인 '여기'와 '님'이 있는 장소인 '거기'가 구별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적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님'은 제자리에 있고 '나'가 '거기'에서 이탈한 경우와 '나'는 제자리에 있는데 '님'이 '여기'에서 이탈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감상해 본다면 '님'의 상실은 _____ [A] _____ 이라는 상황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나'가 '거기'로 돌아갔기 때문
- ② '님'이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
- ③ '나'와 '님'이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
- ④ '나'가 '여기'를, '님'이 '거기'를 이탈했기 때문
- ⑤ '나'와 '님'이 '여기'에서 '거기'로 이탈했기 때문

40.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속미인곡(續美人曲)>에는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가 등장한다. 시적 화자는 임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도달 가능한 최대의 수직적, 수평적 공간에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 화자의 노력은 ‘꿈’이라는 반(半)현실적 공간으로까지 연장되지만 실패하고, 결국 시적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죽음이라는 비극적 초월로 극복해 보고자 한다. 임을 향한 시적 화자의 노력과 사념은 공간의 이동과 맞물려 점차 강화되는 특성을 보이며, 시적 화자의 고뇌와 절망 역시 점차 깊어지는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 ① ‘내 모습 둘 더 업다’는 것은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의 내면 상태로 볼 수 있군.
- ② 시적 화자가 ‘높은 퇴’를 오르는 것은 임과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수직적 극대화로 볼 수 있군.
- ③ ‘물?’에서 ‘님다히 소식’을 아득하게 느끼는 것은 현실에서는 더 이상 임을 사랑하지 않게 된 화자의 마음으로 볼 수 있군.
- ④ ‘썸’에서 임과 온전히 재회하지 못하는 것은 반현실적 공간에서 확인되는 시적 화자의 절망으로 볼 수 있군.
- ⑤ 시적 화자가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고뇌와 절망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비극적 초월로 볼 수 있군.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주 수남 모에 이어 사람 좋은 함평까지 갑자기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눈을 떠 보니, 용순이 어디서 제간엔 할머니를 위한 제수랍시고 양주 한 병을 구해와 제 손수 제상 위에다 올려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용순은 그 어른들의 질책을 들은 시늉도 않은 채 그 할머니 영정 앞에 놓인 동화책을 구실 삼아 다시 준섭을 물고 늘어졌다. “흥, 이건 또 뭐예요? 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서 이런 책까지 미리 써 놓은 거예요? 하긴 삼촌은 역시 삼촌이신데 어련하셨을라구요. 이것도 다 머리를 잘 굴리는 삼촌식 아니겠어요. 내가 내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제상에 양주병을 올려 드린 것처럼 말예요.”

아침 녘 이후로 장혜림과는 이미 무슨 말이 좀 오간 듯싶기도 했지만, ㉠ 용순은 그 할머니의 얼굴 모습까지 새겨진 동화책의 표지를 함부로 들춰 대며 심통기가 여전했다.

“하지만 삼촌, 이제 제발 좀 적당히 해 두세요. 나 삼촌한테 정말 질리고 말았어요.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삼촌을 좀 이해하고 가까이도 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삼촌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삼촌이 좀 빈 데를 보여주세요. 허술하고 모자란 데를 보여 주시란 말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삼촌을 이해하고 삼촌 가까이로 다가가 볼 수가 있지요? 삼촌이 그걸 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용순의 그런 원정*은 물론 준섭에 대한 불만 때문만이 아니었다. 방금 전에 저를 질책한 어른들이나 집안 사람들 전부에 대한 포원* 때문이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은지네가 보다 못해 명칭히 앉아 있지만 한 준섭을 대신하여 모처럼 매섭게 녀를 꾸짖고 나섰다.

“용순이 너 보다보다 이젠 정말 더 못 보겠구나. 큰일 치를 동안은 참아 넘기려 했지만 정말 더는 못 보겠어. 그래, 삼촌이 지금 무얼 잘못해서 그래. 삼촌이 이 마당에 할머니 이야기를 곱게 써 바친 것이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 용순이 너 혼자서 할머니 생각했어? 우린 그저 할머니 고생하고 앓다 가신 거 구경만 하고 있었는 줄 알아? 용순이 너야말로 할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렸어. 인제사 말이지만 할머니 치매증은 할머니 혼자서만

[A] 앓으신 병환이 아니셨어. 우리집 온 식구가 할머니 곁에서 그걸 함께 앓아 왔어. 그런데 너는 그동안 어디서 무얼 했어. 할머니가 가장 어렵고 힘드실 때 너는 그 할머니께 무엇을 해 드렸지? 너는 할머니한테 그냥 받기만 해 온 거야. 제가 드리지는 않고 받기만 하면서, 더 받질 못해서 혼자 아쉬워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런 패악질이나 일삼는 것이 —, 그것이 네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 드리는 길이야? 그건 철부지들이나 좋아 할 유치한 투정일 뿐이야.”

누구보다 말이 없고 만만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숨도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 용순은 처음 한동안 기가 질린 듯 표정이 굳어져 있다가 나중에 차라리 어이가 없다는 듯 비실비실 웃음기 속에 무시하는 태도를 짓고 있었다. 은지네가 다시 그 용순에게 준섭을 대신해 일렀다.

“그 책은 삼촌이 쓰셨지만, 우리가 할머니의 병환을 함께 앓아 온 이야기야. 그러니 너도 이젠 심통만 부리지 말고 그 책을 한번 읽어 봐. 그래서 우리집 식구들이 할머니의 치매증을 어떻게 함께 앓았고 그것을 어떻게 서로 곱게 앓고 싶어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를 곱게 보내 드리려 소원해 왔는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봐. 생각처럼 할머니를 잘 모시지는 못했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더 마음 아파하고 죄스러워해 온 삼촌의 속마음도..... 나는 그동안 할머니에 대한 우리 집안 식구들의 아픈 소망을 이렇게 글에 담아 써 주신 삼촌이 고맙고, 할머니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리라 믿어. 그걸 읽어 보고 더 투정을 부리든지 행패를 부리든지 네 알아서 해. 그때는 나도 더 아무 말 않을 테니까.”

㉡ “자네가 대신 매를 들어 주니 나는 입을 두고도 할 말이 없네만, 자네도 그렇게 큰소리를 칠 만큼 괴롭이 많았던 줄은 몰랐네이!”

아랫동서가 너무 자신의 뒷감당 노릇을 내세우려 드는 것쯤으로 알았던가. 이번에는 외동댁이 그런 은지네 쪽을 고까워하는 어조로 비양대고 드는 바람에 용순도 은지네도 더 입을 열지 못하고 시비는 서로 표적이 물고 물린 꼴이 되어 끝이 나게 되었다.

- 노다 가세. 노다 가세. 오늘 안 놀면 언제 노나

상여꾼들은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의 불화를 모른 척 싸 덮어 넘어가 주려는 듯 **홍겨운 노랫가락**까지 떠지르며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준섭은 그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 속에 노인의 혼령을 지키듯 당신의 영좌를 향해 다시 **목상**을 계속해 나갔다.

-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와 함께 지혜가 쌓이게 되고, 지혜가 마음속 가득 찬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지혜가 삭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고 싶은 사랑이 된단다. 할머니께서 은지를 위해 나이를 나눠 주시고 지혜를 나눠 주시는 것은 모두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란단다.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할머니는 키가 작아지고 몸집이 작아져서 점점 더 어린애가 되어 가시는 것도 아랑곳 앓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란다.

㉢ 그 역시 동화 속의 아빠가 딸아이에게 해 준 설명이요 준섭이 실제로 딸아이에게 일러 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노인이 그 한생애로 준섭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고 지금은 침묵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 하지만 이제 누가 당신의 그런 사랑을 기리고 명념하려 하는가. 물어 보내지 않고 지니고 싶어 하는가.

- 청청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상여꾼들의 취흥과 노랫소리는 이제 그 질탕한 아리랑 가락으로 절정을 이뤄 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 준섭은 다시 그 동화 속의 딸아이에게 의탁해 보였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으로 노인에 대한 그의 **소망과 기구**를 마음 깊이 혼자 되새겨 나가기 시작했다.

.....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나 새 옷 입혀 줘.’

할머니는 이날도 몸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췌근췌근 깊은 낮잠을 주무시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맑은 정신이 드신 목소리로 엄마에게 갑자기 새 옷을 줄라 대셨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엄마가 정성껏 다려 입혀 드린 새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옛날처럼 가지런히 몸을 개고 앉아, 이날따라 그 할머니를 위해 찾아온 듯싶은 한 쌍의 흰색배추꽃나비를 창밖으로 오래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B] 그런데 얼마 뒤, 바깥일에서 돌아오신 아빠가 그 할머니의 방엘 들어갔다 나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신 모양이다. 할머니의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고 우리 곁을 떠나가셨구나…….’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숨결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어 개켜 놓듯 곱게 벗어 놓고 가신 하얗고 조그만 옛날 모습 앞에 혼자 다짐하셨습니다.

‘할머니 안심하고 떠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세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 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준섭의 감은 눈 속에서도 그날 은지가 보았다는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팔랑팔랑 끝없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고 있었다.

- 이청준, ‘축제’ -

* 원정 : 원망하는 마음.

* 포원 : 원한을 품음.

4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진행되는 사건과 함께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다.
- ②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용순이 동화책을 빌미로 준섭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② ㉡ : 용순이 은지네의 말에 당황해 하다가 나중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 : 은지네가 한 말에 대해 외동댁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동화책이 실제 준섭의 어머니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어머니가 보여 주셨던 사랑과 삶의 지혜가 은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난다.

4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과 자신들의 행동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② 단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의 행위를 규정짓고 있다.
- ③ 질문을 연이어 던지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비난하는 사람을 자신이 대신하여 옹호하고 있다.

4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장례’를 ‘축제’라고 명명함으로써 전통적인 ‘장례’의 성격을 재조명한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상이 정지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드러나는 시공간이다. 이 작품에서의 ‘장례’ 역시 일상이 정지되고, 모인 사람들이 망자를 애도하는 가운데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축제’와 같다. 이러한 ‘장례’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들을 풀어냄으로써 마침내 화해와 융합에 이르게 된다.

- ① 망자를 애도하기 위한 ‘장례’에서 용순, 은지네, 외동댁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있다.
- ② ‘난장판’, ‘소란통’과 같은 표현에서 ‘축제’로서의 ‘장례’가 갖는 혼돈과 무질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집안 사람들의 불화’와 이를 싸 덮는 ‘홍겨운 노랫가락’은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장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준섭이 ‘장례’를 계기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망과 기구’를 드러냄으로써 가족 간의 화해와 융합이 가능해지고 있다.
- ⑤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과 준섭의 ‘묵상’이 대비를 이루면서 ‘장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애도와 소란스러움이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45.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할머니가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자는 모습은 병들고 약해진 할머니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 ③ 준섭은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떠올리면서 나비를 할머니의 영혼과 연결짓고 있다.
- ④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셨다는 ‘아빠’의 말에는 할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자책이 담겨있다.
- ⑤ 할머니가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은지의 모습에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 시



201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A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육 군 사 관 학 교

권
말

[1 ~ 3] 다음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 저는 여러분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해 알아볼 ○○○이라고 합니다. 우선 준비한 동영상은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의 내용 - 기상 전, 스마트폰 화면에 교통사고로 출근길 도로가 심하게 막힌다는 뉴스 알림이 표시된다. 스마트폰 알림이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울리면서 자는 회사를 깨우기 위해 집 안의 전등이 일제히 켜지고, 각종 조리 기구가 때맞춰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한다. 식사를 마친 회원이 집을 나서며 문을 잠그자, 집 안의 모든 기기가 스스로 꺼진다.]

자,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 (학생들의 소감을 들은 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라는 반응이 많군요. 이미 일부는 실현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약어로 IoT)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사물인터넷은 각종 기기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 물론 지금도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지만, 사물인터넷이 주도하는 시대의 모습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인간의 조작이 개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물인터넷의 시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간단한 설정만 해주면 사람의 도움 없이 기기끼리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마주하고 이름을 물어보듯, 기기도 서로 정보를 나누려면 상대 기기의 아이디나 IP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블루투스나 근거리무선통신(NFC), 비콘* 등이 이들의 소통을 돕는 기술이 됩니다. 기기끼리 통성명을 한 후에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를 화제로 삼아 기기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통해 주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 자, 이 정도면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작동 방식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세요.

(질의응답 후) 사물인터넷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2009년 당시 9억 개 정도로 집계되었던 사물인터넷 기기의 개수는 2020년이 되면 370억 개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신차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한데요, 한 회사에서는 거의 모든 부품이 인터넷과 연결된 신형차를 내놓았습니다. 이 차는 에어백이 터지면 센서를 통해 이를 감지하여 중앙관제센터로 신호가 전송됩니다. 센터에 연결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는 그 동안 발생했던 수천만 건의 사고 유형을 분석해 해결책을 모색하지요. 범퍼는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과거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지, 해당 지역 도로와 날씨는 어떤지, 사고가 날 만한 특이 사항은 없었는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사고라고 판단되면 근처 고객센터와 병원에 즉시 사고 수습 차량과 구급차를 보내라는 명령을 전송하고, 보험사에도 자동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사용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관련 산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14년 5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올라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콘(beacon) :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 등을 전송하는 장치.

1. 위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 중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논의를 본격화해야겠군.
- ② 사물인터넷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를 제시하면 좋겠어.
- ③ 사물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기반 기술의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해야지.
- ④ 사물인터넷 기술의 시장 전망이 밝다는 점을 수치를 통해 강조해야겠어.
- ⑤ 해외와 대비하여 국내의 사물인터넷 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군.

2.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대중 화법이란 대중적 말하기와 듣기의 화법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이나 강연 등을 하고 이를 청중이 듣는 상황과 관련된 화법을 가리킨다. 화자가 청중을 상대로 혼자서 이야기하고 청중이 그것을 듣기 때문에 대중 화법은 일방적인 성격을 띠지만, 실제 상황에서 화자는 청중을 고려한 말하기를 통해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중과의 상호 소통을 지향하게 된다.

- ① ㉠ : ‘여러분과 함께 ~ 알아볼’과 같은 표현을 통해 청중과의 공감대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 ② ㉡ : 청중의 말에 주목하고 그에 반응함으로써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 : 현재와 대조되는 미래의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 :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 ⑤ ㉤ : 질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중의 의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하고 있다.

3. <보기>는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작성한 감상문이다. 강연과 관련지어 학생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오늘 사물인터넷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던 주제였지만, 영화와 같은 도입부의 동영상은 본 후 흥미를 느끼고 강연에 집중하게 되었다. 다소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등장해서 조금 낯설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궁금함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강연이 끝난 후 학교 도서관에 들러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몰랐던 용어의 의미는 물론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사물인터넷이라면 인터넷이 되는 기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내게 이번 강연은 그 이상의 지식을 알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① 강연에서 사용된 전문 용어의 이해를 위해 주위의 조언을 구하고 있군.
- ② 강연을 듣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군.
- ③ 강연에서 시청각 매체 자료가 활용된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강연으로 인한 궁금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군.
- ⑤ 강연 내용의 현실적 적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4 ~ 5] 다음은 도서부원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국 : 도서관 개방에 대해서, 3학년 부원들의 생각을 모으라고 하시네. 선생님께서 도서부 의견서를 제출하실 건가 봐.

유준 : 지난 번 그 얘기구나. 나는 찬성!

철호 :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 나는 반대! 다수결이니까, 반장 마음대로 해.

인국 : 이 친구들,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서로 말해야 민주적인 의사소통이지. 내 표의 향방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 (철호의 책을 접으며) 두 분께서는 저를 설득해 주세요.

철호 : 우리 학교 학생들만 관리하는 데도 이렇게 힘든데,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구? 우리 능력이 그 정도가 돼?

유준 :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면 관리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행복동 주민이잖아. 졸업하면 책 빌려볼 데가 없어서 아쉬울 텐데, 안 그래?

철호 :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따로 지어야지. 학교 개방했다가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면 어찌려고 그래? 꼬맹이들도 몰려올 거 아냐?

유준 : ㉢ 그래, 철호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가는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주민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꼬마들이 학교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봐. 난 학교가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을 것 같아.

철호 : 그 난장판 가운데 공부가 잘도 되겠다!

인국 : 너희들 말을 들어 보니, 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구나. (노트를 꺼내 적는다.) 일단 주민들과 공동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출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거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와야 할 거고.....

유준 : 우리 학교 안에서 책 빌려가는 거야 지금 도서실 컴퓨터로도 되지만,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용한다면 컴퓨터가 몇 대 더 필요하겠어. (인국의 노트를 건네받아 적는다.)

철호 : 그게 한두 푼 드는 일이나?

인국 : 물론 그렇겠지..... 음, 이 정도면 우리 도서부 의견이 정리된 거 같아. 찬성으로 말이야.

철호 : ㉣ (놀란 표정으로 인국을 바라보며) 뭐야, 너도 그럼 찬성이야?

인국 : 유준이한테 설득당한 거지.

철호 : 예잇, 그럼 나도. (노트를 당겨와 적으며) 학교 도서관이니까, 학생들이 이용 우선권을 가져야 해. 이걸 분명히 해야 해.

유준 : 응? ㉤ (철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 철호가 왜 이럴까?

철호 :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말야. 내가 귀찮은 건 좀 싫어해도, 마음은 열려 있거든.

인국 : 고맙다. 너희들은 최고의 친구야. 이렇게 ㉥ 의견서를 제출할게.

4. 위 대화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단호한 의사 표현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② ㉡ : 말투의 변화와 행동을 통해 대화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하고 있다.
- ③ ㉢ :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대 의견에 대한 반론을 개진하고 있다.
- ④ ㉣ :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 ⑤ ㉣ : 의도를 알 수 없게 하는 표현으로 인해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5. <보기>는 ㉣를 구체화한 것이다. 도서부원들의 대화로 보아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학교 도서관 주민 개방에 대한 의견서

도서부 3학년 김철호, 민유준, 우인국

저희 도서부 3학년들은 행복동 주민들이 우리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는 도서관 개방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학교 도서관 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건의합니다.
 - 1) 학교에 들어오는 주민들에 대한 신원 확인 ㉠
 - 2)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취학 아동의 출입 금지 ㉡
2. 도서관 공동 이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건의합니다.
 - 1) 주민 대표와 도서관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 모색 ㉢
 - 2) 도서 대출 관리 컴퓨터 추가 확보 ㉣
 - 3) 재학생 이용 우선권 부여 ㉤

저희들은 앞으로도 도서관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6 ~ 8] (가)는 학생회의 회의 내용이고, (나)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은 : 어제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2학기부터 학생회 주관으로 신청자를 받아 아침 운동을 실시하려고 해. 학교 누리집에 이 내용을 안내하는 글을 올리려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현민 : ㉠ 선거에서 우리가 내세운 공약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행했는지 알려 주자. 1학기부터 운영했던 아침 식당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거지. ㉡ 더불어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침 식당 운영의 성과를 알려 주면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

지은 :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학기에 할 아침 운동을 안내하자. ㉢ 학교 여건부터 이야기하면 어떨까?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여러 운동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많은 학생이 동시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잖아.

재준 : 맞아. ㉣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원하는 종목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아침 운동에 참여할 것 같아.

현민 : 아침 운동이 처음에는 피곤할 수 있어. ㉤ 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의 시작이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상쾌할 수 있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참여를 유도하자.

유은 : 모두 좋은 생각이야. 그럼 너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누리집에 글을 올릴게. 그리고 재준아, 너는 ㉠ 홍보 문구를 작성해서 학교 게시판에 부착해 줘.

(나)

△△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학생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영양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메뉴는 계란, 사과, 샐러드 등 간단하지만 건강한 식단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침 식당’을 이용한 학생은 전체 학생 중 47%가 넘었으며, 만족도도 83% 가까이 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1학기에 진행한 아침 식당과 더불어 ‘아침 운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에 테니스 코트 2개와 축구 골대가 설치되어 있고, 실내 체육관에는 탁구대, 농구대, 배드민턴 네트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학생이 동시에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허둥지둥 뛰어서 지각을 겨우 면하는 피곤한 아침에서 벗어나세요. 30분 일찍 여유롭게 등교해서 운동으로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의 시작이 더 상쾌해질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또래와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 주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학기에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6.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7. <조건>에 따라 ㉔를 만들어 보았다.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 (나)의 연구 결과에 나오는 운동의 장점을 모두 포함할 것.
- 직유법을 활용할 것.

- ① 친구와 운동장에서 함께 땀을 흘려 보세요. 여러분이 흘린 땀이 여러분의 체력을 키워 주는 보약입니다.
- ② 친구와 함께 호흡하며 운동을 해 보세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우정이 비타민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활력 넘치게 할 것입니다.
- ③ 늘 작심삼일에 그치던 다짐도 친구와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친구와의 우정이 도타워질수록 여러분의 몸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 ④ 일찍 일어나는 새처럼 남보다 일찍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운동으로 잠이 깬 뇌가 여러분의 학업 능력을 올려줄 것입니다.
- 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 운동을 친구와 시작하세요. 운동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생활을 더 기운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8. <보기>는 아침 운동에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㉑~㉔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지난 5월의 내 모습은 '5'와 관련이 깊었다. 늘 5분 간격으로 알람을 다섯 개씩 맞춰 두었지만,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학교에 ㉑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학기말 성적표에 나온 출석 상황의 지각 횟수를 보면서 2학기에는 지각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하였다.

2학기가 되어 학생회에서 하는 아침 운동으로 달리기를 함께 하자고 친구가 제안했다. 지금도 피곤해서 겨우 일어나는데 30분이나 일찍 학교에 오는 것이 ㉒ 바람직할까 걱정되었다. ㉓ 그런데 학교에 30분 일찍 도착하려고 노력하면 아무리 늦어도 지각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운동을하기로 약속했다.

처음 한 달은 너무 힘이 들었다. 내 부탁으로 아침마다 깨워 주시는 어머니께 짜증을 부리기도 하였다. 또 어머니께서 깨우시다 포기하셔서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어머니께 화를 내기도 하였다. ㉔ 고등학생이 되니 사소한 일에도 특하면 짜증을 내어 며칠 전에는 친구랑 크게 다투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가 달라지고 ㉕ 있음이 느낄 수 있었다. 아침 바람이 시원해지면서 운동장을 달리는 몸이 점차 가벼워졌고, 1교시 수업도 오히려 집중이 잘 되었다. 요즘 나는 '30'과 관련이 깊다. 30분 일찍 학교에 와서 매일 30분 운동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 컴퓨터를 하는 시간을 30분 줄였다. 앞으로도 나의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싶다.

- ① ㉑ : 의미가 중복되므로 '늦게'를 삭제한다.
- ② ㉒ : 문맥으로 보아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가능할까'로 수정한다.
- ③ ㉓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더욱이'로 수정한다.
- ④ ㉔ : 글의 통일성을 떨어뜨리므로 문장을 삭제한다.
- ⑤ ㉕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부적절하므로 '있음을'로 수정한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 부여 과제 : ‘표절 방지 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주제로 논설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 우리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후배들

※ 학생의 글

학생들이 과제물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무심코 타인의 글을 따오는 경우가 흔하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등의 핑계를 대면서 추호의 죄책감도 없이 표절을 한다. 가일층 심각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표절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학습과 관련된 표절 행위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절의 유형도 더욱 다양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의 표절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의 표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연한 실수이든 의도적 행위이든 간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일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표절 방지를 위한 작지만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학교에서도 표절 방지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무슨 거창한 운동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선 표절 방지 캠페인을 펼쳐 표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꾸어 보자. 표절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표절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예방 교육을 실시하자.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절의 유형을 알려 주고, 다른 사람의 글을 올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과제를 작성하면서 표절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게 될 것이다.

9. ‘학생의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반론을 펼친다.
- ② 가설을 설정한 후 근거를 들어 논증한다.
- ③ 상반된 관점을 제시하고 절충을 시도한다.
- ④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⑤ 자신의 체험을 일반화하여 주장을 뒷받침한다.

10. <보기>는 ‘학생의 글’을 검토한 선생님의 의견이다.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다듬기 위해 세운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글 쓰느라고 고생 많았어. 몇 가지 사항만 수정하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아. 먼저, 이 글의 주제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두 부분에 시사적인 내용을 언급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결말 부분에 주요 내용을 요약한 후 독자의 동참을 촉구해 봐. 또한, 표절에 대한 전문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추가해서 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해. 끝으로, 예상 독자들이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해.

- ① ‘추호’, ‘가일층’, ‘무관용’ 같은 한자어는 쉬운 말로 바꾸자.
- ② ‘표절 방지 운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와 같은 제목을 붙이자.
- ③ 서두에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표적인 표절 사건을 언급하자.
- ④ 인터넷 보급률과 표절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추가하자.
- ⑤ 결말에 외국의 표절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독자의 동참을 호소하자.

11.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 ① ‘없다’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업따]로 발음한다.
- ② ‘앞문’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서 [암문]으로 발음한다.
- ③ ‘밝는’은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밤는]으로 발음한다.
- ④ ‘닫히다’는 축약과 교체가 일어나서 [다치다]로 발음한다.
- ⑤ ‘짓이기다’는 탈락과 첨가가 일어나서 [진니기다]로 발음한다.

12. <보기 1>의 ㉠~㉣에 대한 <보기 2>의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 < 보 기 1 > —

- 나는 눈을 감은 ㉠ 채로 고향을 생각했다.
- 그는 부모님께 이불 두 ㉡ 채를 선물로 보냈다.
- 어머니께서는 ㉢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 그녀는 항상 당근은 ㉣ 채를 썰어서 기름에 볶아 먹었다.

— < 보기 2 > —

- a. ㉠, ㉡, ㉢은 체언이다.
 b. ㉠, ㉡은 수식어가, ㉢은 피수식어가 필요하다.
 c. ㉠, ㉢은 ㉡과 달리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d. ㉢은 ㉡과 달리 문장 안에서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

-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c, d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 시청에서 파란 대문이 인상적인 저 오래된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 그에게는 우리가 언제 서울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 그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에게 그 답을 주도록 하겠다.

- ① ㉠에는 간접 인용절이 안겨 있다.
 ② ㉡의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주어는 ‘문제가’이다.
 ③ 문장을 분석하면 홑문장의 개수는 ㉢이 가장 적다.
 ④ ㉢은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의 주어는 ‘시청에서’이고, ㉡의 주어는 ‘그에게는’이다.

14. <보기>의 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성 수 :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아버지 : ㉠ 너, 지금이 도대체 몇 시냐?
 성 수 : 죄송해요, 아버지. 축제 관련 학생회 회의가 있었는데, 선배들한테 늦게까지 ㉡ 붙잡혔어요.
 아버지 : 오늘 학교 갈 때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렸니?
 성 수 : ㉢ 아차! 바쁘게 나간다고 깜빡 잊었어요.
 아버지 : 그럼 중간에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성 수 : 하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회의를 하느라고 전화를 ㉣ 못 했어요.
 아버지 : ㉤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이 녀석아. 방에 가서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 드려라.
 성 수 : 예, 알겠습니다.

- ① ㉠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한다.
 ③ ㉢ : 감탄사를 사용하여 잘못을 갑작스럽게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④ ㉣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⑤ ㉤ :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상대를 포함한 동일 공간 내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15.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자료로 삼아 탐구 학습을 하였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부르다¹ [불러, 부르니] 「동사」

[1] 【...을】

- ㉠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누나가 동생을 부른다.
- ㉡ 이름이나 명단을 소리 내어 읽으며 대상을 확인하다. ♣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 ㉢ 곡조에 맞추어 노래의 가사를 소리 내다. ♣ 응원가를 부른다.
- ㉣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 ♣ 푸른 바다가 우리를 부른다.
- ㉤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 ♣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2] 【...을 ...에】 【...을 ...으로】

청하여 오게 하다. ♣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3] 【...을 ...으로】 【...을 -고】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불렀다.

불리다¹ [불리어[--어/--여](불려), 불리니] 「동사」

[1] 【...에게】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 교무실로 선생님에게 불리어 갔다.
- ㉡ ‘부르다¹[1] ㉢’의 피동사. ♣ 이 노래가 요즘 생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다.

[2] A 의 피동사. ♣ 반 아이들 이름이 하나하나 불렸다.

[3] 【...에게 ...으로】 【...에게 -고】

‘부르다¹[3]’의 피동사. ♣ 막걸리는 농민들에게 농주로도 불렸다.

- ① A에는 ‘부르다¹[1] ㉡’이 들어간다.
- ② ‘부르다¹’과 ‘불리다¹’은 모두 활용을 할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 ③ ‘부르다¹[1] ㉢’의 용례로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부르다¹[1]’의 ㉢, ㉤은 ‘불리다¹’을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 ⑤ ‘부르다¹’의 [1]~[3]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문장 성분이 더 필요하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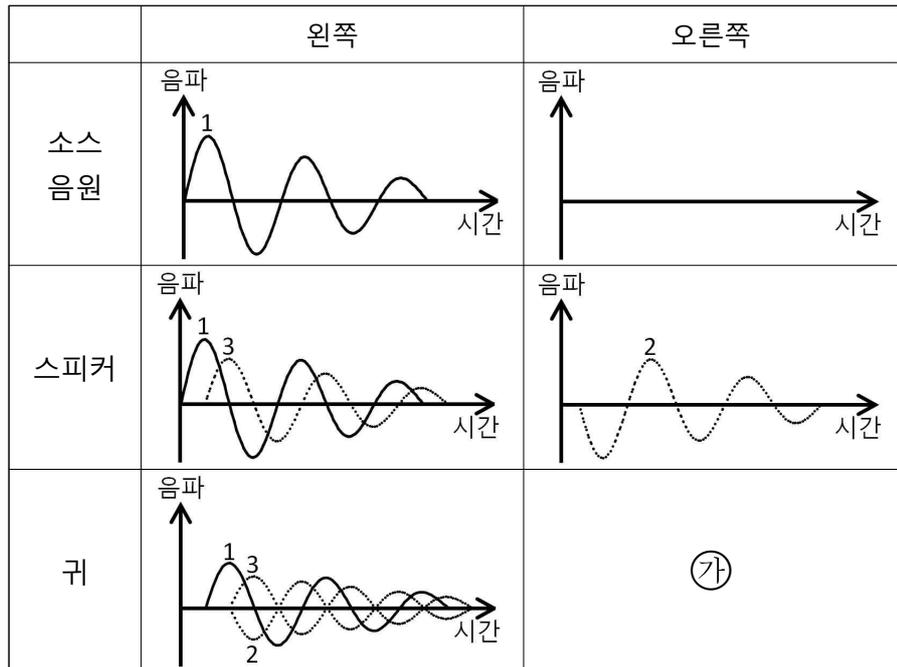
사람은 두 귀로 3차원 공간 상에서 음원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 이는 음이 두 귀에 도달하는 시간차(ITD)와 두 귀에서 느끼는 음의 세기차(ILD) 때문이다. 이를 바이노럴(binaural) 효과라 하며, 이 효과를 반영하면 음원의 위치를 3차원 공간 상의 어느 곳이나 위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입체 음향 기술이라고 한다.

입체음향용 음원을 제작할 때는 주로 ‘더미 헤드(dummy head)’를 사용한다. 사람 머리 모양인 더미 헤드 양옆의 모조 귀 안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음원을 녹음하면, 제작자가 3차원 공간 상에 임의로 위치시킬 수 있는 음원이 녹음된다. 이를 바이노럴 음원이라고 한다. 바이노럴 음원 제작 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양 귀를 잇는 축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축의 중심점으로부터 같은 각도와 거리를 갖는 위치들의 경우 ITD와 ILD가 같기 때문에 서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더미 헤드는 머리 크기나 귓바퀴의 모양 등 청각과 관련된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이 음원을 청취할 때 음원 위치 지각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바이노럴 음원을 헤드폰으로 청취할 경우 청취자는 별도의 신호 처리 과정 없이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바이노럴 음원은 헤드폰을 기준으로 음의 위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드폰이 움직이면, 즉 사람의 머리가 움직이면 음원의 방향도 함께 움직이는 단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동일한 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정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청취할 경우 입체감은 현저하게 감소된다. 닫힌 공간 구조를 가진 헤드폰과 달리 열린 공간 구조를 갖는 스피커 청취 환경으로 인해, 한쪽 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출력된 소리가 청자의 반대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원치 않는 소리가 반대편 귀로 들어가는 현상을 ‘크로스토크(crosstalk)’라고 한다. 크로스토크는 스피커를 이용한 입체 음향 기술 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자연 세계에서 크로스토크로 인한 간섭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줄이기 위한 크로스토크 제거 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

크로스토크 제거 원리를 도식화한 <표>는 소스 음원이 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스피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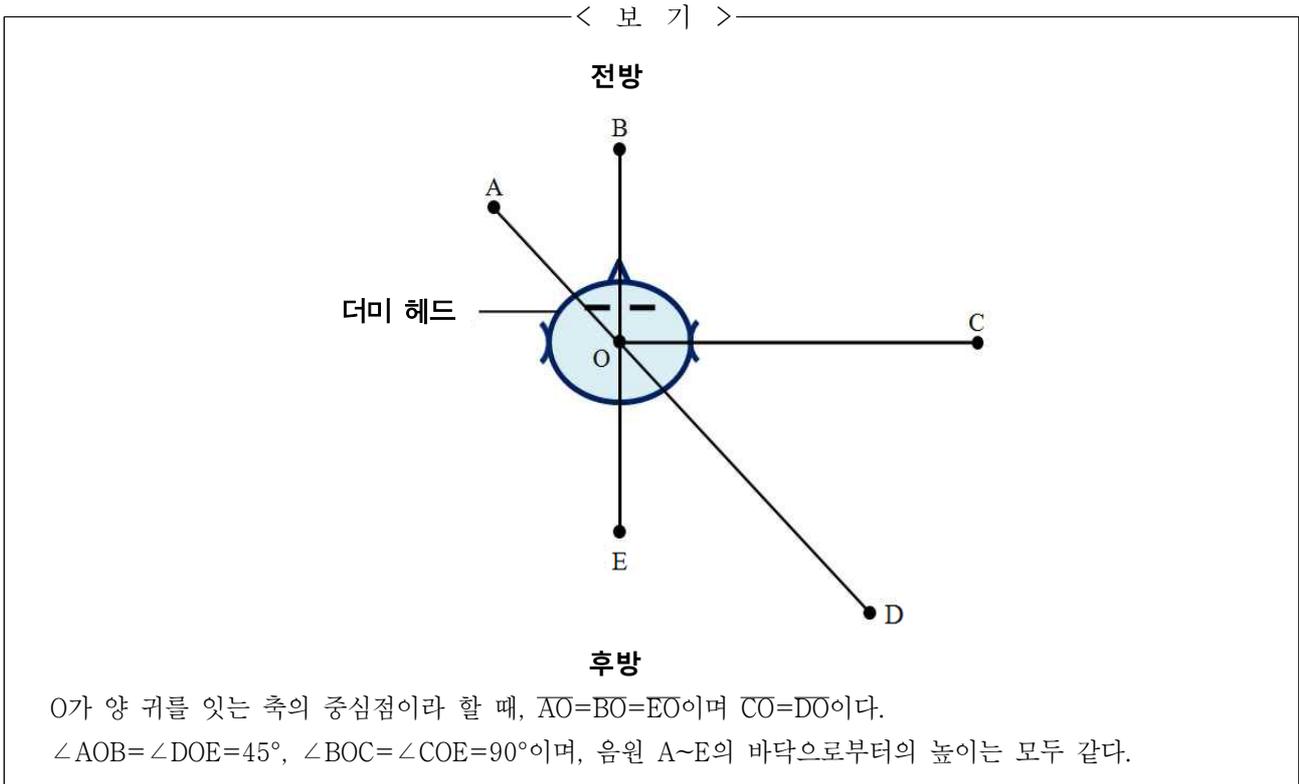
귀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 차가 존재하며, 스피커로 출력된 1, 2, 3은 크로스토크 제거 필터를 통해 처리된 것이다. 이때 청자가 듣는 음원은 소스 음원과 같아야 한다. 즉, 왼쪽 귀에는 1만 들리고, 오른쪽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왼쪽 스피커에서는 1, 3을 재생하고, 오른쪽 스피커에서는 2를 재생한다. 그렇게 되면 3이 2와 상쇄돼서 왼쪽 귀에는 1이 남게 되고, 오른쪽 귀에는 1과 2가 상쇄돼서 3만이 남게 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왼쪽 귀에는 1만 들리게 하고 오른쪽 귀에는 3이 매우 작게 들리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표>

1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이 3차원 공간 상에서 음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이노럴 효과 때문이다.
- ② 더미 헤드를 이용하면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바이노럴 음원을 제작할 수 있다.
- ③ 바이노럴 음원을 스피커로 청취할 때 크로스토크로 인한 간섭 현상은 완벽하게 제거되기 어렵다.
- ④ 바이노럴 효과가 적용된 음원을 스피커로 청취할 때 헤드폰에 비해 입체감이 현저하게 감소된다.
- ⑤ 바이노럴 음원을 재생할 때 헤드폰을 낀 청취자가 머리를 움직이면 음원이 들리는 방향이 달라진다.

17. <보기>의 A~E는 더미 헤드를 사용하여 녹음한 음원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이 중 청취자가 헤드폰으로 청취할 때 음의 위치 판단에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A와 B
- ② A와 D
- ③ B와 E
- ④ C와 E
- ⑤ D와 E

그러나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판단이 단순한 객관적 실재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실재론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판단은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의존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웅장함’이라는 미적 속성은 ‘웅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감상자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미적 판단의 주관성과 경험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미적 판단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이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불일치란 굳이 해소해야 하는 문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경험, 취미와 감상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적 속성과 미적 판단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였던 레빈슨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대상의 감상 과정에서 감상자들은 일차적으로 대상의 비미적(非美的) 속성에 주목한다. 비미적 속성이란 대상의 선, 색, 모양, 질감, 무게, 리듬, 음색 등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다시 정상 지각자에 의해 관찰이나 지각이 가능한 ㉠ 구조적 속성,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지각으로는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는 ㉡ 하부 구조적 속성, 작품의 발생에 관계하는 주요 요소들, 즉 작품의 창작자나 작품이 속한 경향, 영향 관계 등을 일컫는 ㉢ 맥락적 속성으로 나뉜다.

이러한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적 속성을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이라 규정하였다.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주관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인상의 가치 중립적 속성으로 인해, 그 인상의 기술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술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그런데 감상자들이 제한된 범위 내의 술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미적 판단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성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새뮤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들은 한 감상자가 이 곡으로부터 현상적 미적 인상을 지각한 후, 이 인상을 기술할 수 있는 술어로 ‘신파적이다’를 선택하고 이를 자신의 미적 판단으로 표현했다고 가정해 보자. 레빈슨에 의하면, 이 술어로 이루어진 미적 판단(‘이 곡은 신파적이다’)은 감상자 자신이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 에 대한 지각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감상자가 같은 곡에 대해 ‘이 곡은 우아하다’라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가 내린 미적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감상자들이 받은 인상이 모두 ‘고음의 현악기 위주의 연주, 느린 템포, 단조 선율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이라면, 그들의 판단은 모두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근거한 것으로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미적 판단 간의 차이는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 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레빈슨의 견해이다.

1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효용을 밝힌 후, 다른 이론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분야의 사례와 더불어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이론을 설명한 후, 이들을 포괄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이론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20. ㉠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판단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미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판단의 주체는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
- ③ 미적 판단의 다양성에 대한 논쟁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
- ⑤ 미적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가 대상의 외부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1.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보 기 > —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은 ㉠ 네덜란드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직선들의 수직적 교차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직사각형들에 의해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 ㉡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들 중 일부는 선명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두드러져 보인다. ㉢ 엄밀한 측정 결과 이들 직사각형에서 서로 평행 관계에 있는 직선들의 길이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는 감상자들이 대상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22. 레빈슨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거대한 화면을 단일한 색채로 가득 메운 마크 로스코의 색면 회화에 대한 미적 판단은 ‘따분하다’,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술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층위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감상자들의 입장에서 ‘야하다’라는 술어는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적절한 술어로 평가받지 못한다. ‘야하다’라는 술어는 ‘밝고 부조화스러우면서 눈길을 끄는 색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기술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① 평가에 사용된 술어들은 로스코의 작품으로부터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과 그에 대한 감상자의 주관적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 ② 로스코의 작품을 판단하는 술어 중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것들은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술어이다.
- ③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와 같은 술어를 이끌어내는 현상적 미적 인상은 작품의 색, 면과 같은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해 ‘따분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판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술어의 선택과 사용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 ⑤ ‘야하다’가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술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 술어가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재한 술어이기 때문이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본권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되었지만 개념상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구별된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생래적(生來的), 천부적(天賦的) 권리를 말하며,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 중에는 생래적 권리가 헌법에 수용된 것도 있지만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된다고 생각되는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환경권 등도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공권(公權)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본권이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따라서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작위(作爲)나 부작위(不作爲)*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헌법 질서를 형성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권리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에 대하여서는 자연권설, 실정권설, 통합가치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자연권설(自然權說)에서는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은 시대나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고, 국가 권력의 침해와 간섭을 배제하는 기본권의 방어적, 저항적 성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정 권력자도 기본권 존중이라는 근본 규범에는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전(前) 국가적, 초(超)국가적인 천부적 자연권이라고 본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규정은 그 헌법의 규정이 기본권을 창설(創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문서로 확인, 선언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정권설(實定權說)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은 실정권으로 파악한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도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서는 자연법상의 권리로 주장된 것이지만, 사회는 공동 생활체이므로 개인의 자유는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가 영역 안에서는 그 최후의 조정자가 국가인 이상 국가에 의한 국민의 자유의 제한, 조정은 필요 불가결하므로, 결국 자유권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권도, 그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헌법 또는 법률이 국가의 실정법인 이상 그것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정법상의 권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정권설에 의하면 기본권도 헌법에 규정되어야만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의 기본권 보장 규정은 기본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본다.

통합가치설(統合價値說)에서는 질서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바라본다. 현실의 인간은 일정한 질서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 내의 자유와 권리를 뜻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통합가치설에서 기본권은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뜻하고 사회 공동체가 동화되고 통합되어 가기 위한 실질적인 ① 원동력을 의미하므로, 본질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또한 헌법 질서 내의 국가 권력은 국민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의해서 창설되고,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 통제되고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통합가치설은 기본권의 국가 형성적 기능과 동화적(同化的) 통합 기능을 강조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의 정치적 성격을 중시한다.

* 작위, 부작위 : '작위'는 의식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나 동작이고,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일.

23. 밑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기본권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② 기본권은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므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작위나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연권설에서는 기본권이 자연권으로서 가지는 방어적, 저항적 성격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④ 실정권설에서는 자유권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 자유로 이해한다.
- ⑤ 통합가치설에서는 기본권을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24. 밑글에 근거하여 <보기>의 헌법 조문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① 자연권설에 의하면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권이 가지는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확인, 선언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 ② ‘제37조 ①’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과, ‘제37조 ②’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자연권설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③ ‘제37조 ②’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본권이 실정법상의 권리라는 실정권설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
- ④ ‘제10조’에 대해 통합가치설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가치 지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핵심적 가치로 하는 동화적 통합 질서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 ⑤ 통합가치설은 ‘제37조 ①’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적 질서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유와 권리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25. 밑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자연권설의 입장은 다시 절대적 자연권설과 상대적 자연권설로 나뉜다. 상대적 자연권설을 취하는 법이론가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구분하여, ㉠ 전자는 후자와 달리 실정권임을 인정한다.

- ①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은 모두 헌법에 규정된 실정권이기 때문이다.
- ②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 권력에 앞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③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은 모두 인간의 본성에 의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 ④ 생존권적 기본권은 시대나 국가가 달라도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자연권이기 때문이다.
- 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26. ㉠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힘 ② 바닥 ③ 일으킴 ④ 본바탕 ⑤ 움직임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자(量子)는 원자, 전자, 광자 등의 덩어리진 작은 입자를 말하며, 양자 물리학은 양자들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음에 ㉠ 주목하는 학문이다. 파동의 특징 중 하나는 ‘중첩’인데, 중첩이란 기타 줄을 통겼을 때처럼 파장이 다른 여러 파가 겹쳐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 것도 여러 개의 파들이 중첩된 파동으로 볼 수 있다. 전자가 어떤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는 확률로 주어지는데, 측정을 하게 되면 ‘중첩’ 상태가 깨지고 특정 값을 갖는 상태로 ‘확정’된다. 이는 측정 행위가 파동에 ㉡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중첩된 상태의 모든 값을 측정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양자 물리학의 정론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한다.

확률을 세계의 본질로 보고 미래의 우연성을 ㉢ 용인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양자 물리학이 우주의 숨은 변수들을 모두 알게 되면 확률이 아닌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에게 우주의 인과 관계는 신의 질서와도 같아서, 단순하고 명쾌한 이론으로 아름답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양자 물리학이 ㉣ 전제로 삼고 있는 ‘중첩’ 상태의 깨짐과 상태의 ‘확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제출되었는데, 폰 노이만은 측정 장비들도 양자로 ㉤ 구성되어 있으므로, 측정 단계에서는 ‘중첩’ 상태의 변화가 없고, 측정 결과를 ‘인간이 인식할 때’ 비로소 ‘중첩’이 깨지고 값이 ‘확정’된다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슈뢰딩거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쇠로 된 상자 안에 고양이와 방사성 원자, 방사선 검출기, 그리고 독약병을 넣어둔다. 양자인 방사성 원자는 한 시간에 50%의 확률로 붕괴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사선이 검출되면 독약병이 깨지고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독가스를 발생시키도록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한 시간이 지난 후 고양이의 생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폰 노이만의 해석을 따르자면, 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상자 안의 고양이는 살아 있는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의 ‘중첩’된 상태에 있지만, 상자를 열어 생사를 확인하는 순간 두 상태 중의 하나로 ‘확정’된다. 고양이의 생사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생사를 확인하는 행위이며, 고양이의 생사는 ‘중첩’된 상태와 확인 행위와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 슈뢰딩거의 해석을 따르자면, 반생반사(半生半死)의 고양이는 있을 수 없다. 한 시간 후 고양이의 생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상자를 열어 보는 행위는 이미 벌어진 일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

한편, ‘슈뢰딩거의 고양이’에 대해 코펜하겐 해석을 정밀하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아무리 작은 검출기라도 양자적인 특성을 온전히 갖기엔 거시적이다. 따라서 방사성 원자의 중첩 ‘상태’를 깨뜨리고 특정한 상태로 ‘확정’시킨 것은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닌 검출기라는 것이다. 많은 해석 중에서 이는 가장 많은 물리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학 논쟁을 촉발한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파동의 ‘중첩’ 상태가 ‘확정’되는 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미시 세계의 원인과 거시 세계의 결과를 연결시켜 놓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수많은 학자들의 비판과 기여 속에 양자 물리학은 20세기 물리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21세기에 들어서 보안성이 높은 양자 암호와 우수한 성능이 기대되는 양자 컴퓨터 등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기술은 점차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 사고(思考) 실험 : 실행 가능성이나 입증 가능성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사고상으로만 성립하는 실험. 하나의 이론 체계 안에서의 연역 추리의 보조 수단으로 쓰임.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세계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 ②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이해할 때 확률과 우연을 배제하고자 했다.
- ③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엄밀한 인과 관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 ④ 양자 물리학에서는 양자가 입자와 파동의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양자의 상태를 정확한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28.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짝지은 것은? (3점)

— < 보 기 > —

- ㉠. 중첩된 상태를 특정한 상태로 확정하는 것은 검출기이다.
- ㉡.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는 고양이는 있을 수 없다.
- ㉢.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는 순간 고양이의 중첩 상태가 깨진다.
- ㉣. 상자를 열어서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와 고양이의 생사는 독립적이다.
- ㉤. 고양이의 생사는 중첩 상태의 고양이와 상자를 열어서 확인한 사람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9.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제로 수많은 고양이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② 양자 물리학은 ‘중첩’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 ③ 미시 세계의 원인과 거시 세계의 결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 ④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지닌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 ⑤ 실제 실험이 아닌 사고 실험이라는 점에서 고양이를 이용한 실험은 한계를 지닌다.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 ② ㉡ :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 ③ ㉢ : 거두어들여 사용함.
- ④ ㉣ :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
- ⑤ ㉤ :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룸.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재령(新載寧)에도 나무리벌
물도 많고
땅 좋은 곳
만주(滿洲) 봉천(奉天)은 못살 곳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자곡자곡이 피땀이라
고향 산천이 어디메나

황해도
신재령
나무리벌
두 몸이 김매며 살았지요

올벼 눈에 닿은 물은
출렁출렁
벼 자랐나
신재령에도
나무리벌

- 김소월, '나무리벌 노래' -

(나)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 턱 움 속에서 두 손 오구려 흑 흑 입김 불며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
기 혼자만 곱구나

거북네는 만주서 왔단다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을 세월은 흘러 거북이는 만주서 나고 할배는 만주에 묻히
고 세월이 무심찮아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 돌아 왔단다

띠팡*을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지으며 가 가 거 거 배운다더니 조선으로
돌아와도 집도 고향도 없고

거북이는 배추 꼬리를 씹으며 달디달구나 배추 꼬리를 씹으며 꺼무테테한 아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배추 꼬리를
씹으며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

첫눈 이미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 턱 움 속에서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 이용악, '하늘만 곱구나' -

* 띠팡 : 지방(地方)을 뜻하는 중국어.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을 통해 시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으로 풍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 ⑤ 특정 종결어미를 구사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조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즉 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장소'로 만든다. 그에 따라 자연적 공간에는 친숙하고 안정적인 공간, 낯설고 위협적인 공간과 같은 이원적 가치가 부여된다. 인간은 또한 자아 동일성을 형성하는 장소에 본원적인 애착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장소'를 상실하게 되면 자아는 삶의 기반이 와해되는 근본적 결핍을 겪게 되고 절망과 불행의 경로를 걷는 가운데 장소의 회복을 갈망하게 된다.

- ① (가)의 '나무리벌'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아 동일성을 형성시킨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② (나)의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에는 상실한 '장소'의 회복에 대한 갈망과 함께 불행을 예감하는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
- ③ (가)의 '만주 봉천'과 (나)의 '만주'는 쫓겨 갔던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위협적인 공간에 해당한다.
- ④ (가)와 (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본원적 애착을 가졌던 '장소'를 상실하고 삶의 기반이 와해되는 결핍을 겪었을 것이다.
- ⑤ (가)의 '자곡자곡이 피땀이라'와 (나)의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은 친숙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잃고 살아가는 절망적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3. <보기>에 근거하여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용악의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화자는 대상과 관련된 사연을 전달하거나 기록하기도 하고, 그가 직접 등장인물이 되거나 등장인물의 내면과 소통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는 인물 혹은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법은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공감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 ① 1연의 '(하늘이) 혼자만 곱구나'는 '거북이'의 발화로도 화자의 발화로도 볼 수 있다.
- ② 2연에서 화자는 '~ 왔단다'의 형식으로 '거북네'의 사연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화자는 '띠팡'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거북네'의 이동 경로를 '아베'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다.
- ④ 4연의 '달디달구나'는 '거북이'의 감각을 화자 자신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4연의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는 '거북이'의 내면과 소통을 시도하는 화자의 물음으로 볼 수 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가슴이 터져오니 터지거든 구멍 뚫어
고미장자 세살장자 완자창을 갖춰 내어
이 설움 답답할 제 여달아나 보고지고
- ㉡ 어화 어찌하리 설마한들 어이하리
세상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 나 혼자라
소무의 복해 고생 돌아올 때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이 귀불귀 설마 하랴
 무슨 일 마음 붙여 시름을 잊으리라
 작은 낫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천고절 **푸른 대**는 봄빛이 혼자로다
 곧은 대 빼쳐 내어 가지 쳐 다듬으니
 밭 가웃 낚싯대는 좋은 품 되겠구나
 청울치 가는 줄에 낚시 매어 둘러메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셋바람 아니 불고 물결이 고요하니
 고기가 물릴 때라 낚시질 함께 가자
 사립을 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로 내려가니 대 바람 한가하다
- ㉢ 원근산천에 홍일이 떠었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이 절로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의취를 취함이라
 낚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
 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좇아 예 왔노라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르는가
- ㉣ 평생에 곱던 님을 천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견딜손가
- ㉤ 수심이 첩첩하니 내 마음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을 일없이 들었으니
 고기도 불관커든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쾌히 내어 볼 양이면 네가 응당 알리로다

3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을 열거하여 특정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 ③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의 변화상을 묘사하여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창’의 속성에 기대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 근경과 원경의 대조를 통해 자연의 풍광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유사한 통사 구조를 되풀이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만언사>는 당대에 잘 알려진 상투적인 구절들을 가져와 불특정 다수 대중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새롭게 재창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아래와 같은 텍스트 구성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쉽고 재미있게 읽히게 하였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언사>의 텍스트 구성 방식

- ㉠ 익숙한 표현의 제시 :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이웃집 아이들아’ 등
- ㉡ 관습적 의미를 지닌 소재 사용 : ‘백구’, ‘푸른 대’, ‘낙시’ 등
- ㉢ 대중적 고사 제시 : 소무의 복해 고생
- 북쪽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간 한나라의 소무가 억류되어 19년 동안 고생했던 일

- ① ‘소무의 복해 고생’과 같은 대중적 고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는 계절적 배경의 표현을 위해 흔히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이는 ‘성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연결되는 ‘푸른 대’의 관습적 의미를 한층 강조하고 있다.
- ③ ‘이웃집 아이들’과 같이 구체적인 시적 청자를 거명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제한된 범위의 청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낙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은 화자의 모습은 ‘낙시’의 관습적 의미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취어가 아니로다 의취를 취함이라’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⑤ ‘백구’에게 말을 건네는 화자의 모습은 ‘백구’의 관습적 의미와 연관되어,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그 말을 듣고 반겨 웃으며 대답하되,

“후회를 하시면 정성이 못 되오니 아버지 어두우신 눈 정녕 밝아 보일 양이면 삼백 석을 아무쪼록 준비하여 보리다.”

“네 아무리 애를 쓴들 안빈낙도 우리 형세, 단 백 석인들 할 수 있겠느냐?”

[A] “아버지, 그 말 마오. 옛일을 생각하니 왕상(王祥)은 얼음을 두드리서 얼음 구멍에서 잉어를 얻고 맹종(孟宗)은 대나무 앞에서 통곡하여 눈 가운데 죽순(竹筍) 나니, 그런 일을 생각하면 출천대효(出天大孝) 사친지절(事親之節)이 옛사람만 못하여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니, 아무 걱정 마옵소서.”

심청이 부친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뒤꼍을 정히 하고 황토로 단을 쌓아 두고 좌우에 금줄을 매고 정화수 한 동이를 소반 위에 받쳐 놓고 북두칠성 호반(號盤)에 분향재배한 연후에, 두 무릎을 공손히 꿇고 두 손을 합장하여 비는 말이,

[B] “상천(上天) 일월 성신(星辰)이며, 하지(下地) 후토(后土) 성황(城隍) 사방지신(四方之神), 제천제불(諸天諸佛) 석가여래 팔금강보살 소소응감(昭昭應感)* 하옵소서. 하느님이 만드신 일월은 사람에게는 눈과 같은지라. 일월이 없사오면 무슨 분별 하오리까. 소녀 아버 무자생(戊子生) 이십 후 눈이 멀어 사물을 못 보오니, 소녀 아버 허물일랑 제 몸으로 대신하고 아버 눈을 밝게 하여 천생연분 짝을 만나 오복을 갖게 주어, 수부다남자(壽富多男子)*를 점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야로 빌었더니, 도화동 심 소저는 천신이 아는지라 흠향하시고 앞일을 인도하셨더라. 하루는 유모 귀덕 어미가 오더니,

“아가씨, 이상한 일 보았나이다.”

“무슨 일이 이상하오?”

“어떠한 사람인지 십여 명씩 다니면서 값은 고하간에 십오 세 처녀를 사겠다고 다니니 그런 미친놈들이 있소?” 심청이 속마음에 반겨 듣고,

“여보, 그 말이 진정이오? 정말로 그리 될 양이면 그 다니는 사람 중에 노숙하고 점잖은 사람을 불러오되, 말이 밖에 나지 않게 조용히 데려오오.”

귀덕 어미 대답하고 과연 데려왔는지라. 처음은 유모를 시켜 사람 사려는 내력을 물은즉 그 사람의 대답이,

“우리는 본디 황성(皇城) 사람으로서 상고(商賈)차로 배를 타고 만 리 밖에 다니더니, 배 갈 길에 인당수라 하는 물이 있어 변화불측하여 자칫하면 몰사를 당하는데 십오 세 된 처녀를 제수(祭需) 넣고 제사를 지내면, 수로 만 리를 무사히 왕래하고 장사도 흥왕하옵기로 생애가 원수로 사람 사러 다니오니, 몸을 팔 처녀가 있사오면 값을 관계치 않고 주겠나이다.”

심청이 그제야 나서며,

“나는 본존 사람으로 우리 부친 앞을 보지 못하여 세상을 분별하지 못 하기로, 평생에 한이 되어 하느님 전에 축수 하더니, 몽운사 화주승이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되, 가세가 지빈(至貧)하여 주선 할 길 없삽기로 내 몸을 방매하여 발원하기 바라오니 나를 사 가는 것이 어떠하오? 내 나이 십오 세라 그 아니 적당 하오?”

① 선인이 그 말 듣고 심 소저를 보더니, 마음이 억색(臆塞)하여 다시 불 정신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섰다가, “남자 말씀 듣자오니, 가륙하고 장한 효성 비할 데 없습니다.”

이렇듯이 치하한 후에 저의 일이 긴한지라,

“그리하오.”

하고 허락하더라.

“행선 날이 언제입니까?”

“내월 십오 일이 행선할 날이오니 그리 아옵소서.”

피차에 상약을 하고 그날에 선인들이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에 보냈더라. 심 소저는 귀덕 어미를 백 번이나 단속하여 말 못 내게 한 연후에, 집으로 들어와 부친 전에 여쭙오되,

“아버지!”

“왜 그러느냐?”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로 올렸나이다.”

심 봉사가 깜짝 놀라서,

“그게 웬 말이냐? 삼백 석이 어디 있어 몽운사로 보냈어?”

심청이 같은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일까마는 사세부득이라 잠깐 속여 여쭙는다.

[C] “일전에 무릉촌 장 승상 님 부인께서 소녀보고 말씀하기를, 수양딸 노릇하라 하되 아버지 계시기로 허락 아니하였는데, 사세부득하여 이 말씀 사되었더니 부인이 반겨 듣고 쌀 삼백 석을 주시기에 몽운사로 보내옵고 수양녀로 팔렸나이다.”

심 봉사가 물색 모르고 크게 웃으며 즐겨 한다.

“어허, 그 일 잘되었다. 언제 데려간다더냐?”

“내월 십오 일 날 데려간다 하옵니다.”

“네가 거기 가서 살더라도 나 살기 관계찮지. 어! 참으로 잘되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 소소응감(昭昭應感) : 분명히 마음에 응하여 느낌.

* 수부다남자(壽富多男子) : 오래 살고 부유하여 아들이 많음.

3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고 있다.
- ③ 공간에 대한 상세한 묘사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둘러싼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과거 인연이 계기가 되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38.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고사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상황을 비판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 ② [B]는 초월자에 기대어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 ③ [C]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거짓으로 상황을 꾸며 이를 전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상대방의 처지가, [B]에서는 자신의 처지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⑤ [A]와 [C]는 말하는 목적을 상대방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에 두고 있다.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주 수남 모에 이어 사람 좋은 함평까지 갑자기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눈을 떠 보니, 용순이 어디서 제간엔 할머니를 위한 제수랍시고 양주 한 병을 구해와 제 손수 제상 위에다 올려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용순은 그 어른들의 질책을 들은 시늉도 않은 채 그 할머니 영정 앞에 놓인 동화책을 구실 삼아 다시 준섭을 물고 늘어졌다.

“흥, 이건 또 뭐예요? 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서 이런 책까지 미리 써 놓은 거예요? 하긴 삼촌은 역시 삼촌이신데 어련하셨을라구요. 이것도 다 머리를 잘 굴리는 삼촌식 아니겠어요. 내가 내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제상에 양주병을 올려 드린 것처럼 말예요.”

아침 녘 이후로 장혜림과는 이미 무슨 말이 좀 오간 듯싶기도 했지만, ㉠ 용순은 그 할머니의 얼굴 모습까지 새겨진 동화책의 표지를 함부로 들춰 대며 심통기가 여전했다.

“하지만 삼촌, 이제 제발 좀 적당히 해 두세요. 나 삼촌한테 정말 질리고 말았어요.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삼촌을 좀 이해하고 가까이도 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삼촌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삼촌이 좀 빈 데를 보여주세요. 허술하고 모자란 데를 보여 주시란 말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삼촌을 이해하고 삼촌 가까이로 다가가 볼 수가 있지요? 삼촌이 그걸 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용순의 그런 원정*은 물론 준섭에 대한 불만 때문만이 아니었다. 방금 전에 저를 질책한 어른들이나 집안 사람들 전부에 대한 포원* 때문이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은지네가 보다 못해 멍청히 앉아 있기만 한 준섭을 대신하여 모처럼 매섭게 녀를 꾸짖고 나섰다.

“용순이 너 보다보다 이제 정말 더 못 보겠구나. 큰일 치를 동안은 참아 넘기려 했지만 정말 더는 못 보겠어. 그래, 삼촌이 지금 무얼 잘못해서 그래. 삼촌이 이 마당에 할머니 이야기를 곱게 써 바친 것이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 용순이 너 혼자서 할머니 생각했어? 우리 그저 할머니 고생하고 앓다 가신 거 구경만 하고 있었던 줄 알아? 용순이 너야말로 할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렸어. 인제사 말이지만 할머니 치매증은 할머니 혼자서만

[A] 앓으신 병환이 아니셨어. 우리집 온 식구가 할머니 곁에서 그걸 함께 앓아 왔어. 그런데 너는 그동안 어디서 무얼 했어. 할머니가 가장 어렵고 힘드실 때 너는 그 할머니께 무엇을 해 드렸지? 너는 할머니한테 그냥 받기만 해 온 거야. 제가 드리지는 않고 받기만 하면서, 더 받질 못해서 혼자 아쉬워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런 패악질이나 일삼는 것이 —, 그것이 네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 드리는 길이야? 그건 철부지들이나 좋아 할 유치한 투정일 뿐이야.”

누구보다 말이 없고 만만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숨도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 용순은 처음 한동안 기가 질린 듯 표정이 굳어져 있다가 나중엔 차라리 어이가 없다는 듯 비실비실 웃음기 속에 무시하는 태도를 짓고 있었다. 은지네가 다시 그 용순에게 준섭을 대신해 일렀다.

“그 책은 삼촌이 쓰셨지만, 우리가 할머니의 병환을 함께 앓아 온 이야기야. 그러니 너도 이제 심통만 부리지 말고 그 책을 한번 읽어 봐. 그래서 우리집 식구들이 할머니의 치매증을 어떻게 함께 앓았고 그것을 어떻게 서로 곱게 앓고 싶어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를 곱게 보내 드리려 소원해 왔는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봐. 생각처럼 할머니를 잘 모시지는 못했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더 마음 아파하고 죄스러워해 온 삼촌의 속마음도..... 나는 그동안 할머니에 대한 우리 집안 식구들의 아픈 소망을 이렇게 글에 담아 써 주신 삼촌이 고맙고, 할머니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리라 믿어. 그걸 읽어 보고 더 투정을 부리든지 행패를 부리든지 네 알아서 해. 그때는 나도 더 아무 말 않을 테니까.”

㉢ “자네가 대신 매를 들어 주니 나는 입을 두고도 할 말이 없네만, 자네도 그렇게 큰소리를 칠 만큼 괴롭이 많았던 줄은 몰랐네이!”

아랫동서가 너무 자신의 뒷감당 노릇을 내세우려 드는 것쯤으로 알았던가. 이번에는 외동댁이 그런 은지네 쪽을 고까워하는 어조로 비양대고 드는 바람에 용순도 은지네도 더 입을 열지 못하고 시비는 서로 표적이 물고 물린 꼴이 되어 끝이 나게 되었다.

-노다 가세. 노다 가세. 오늘 안 놀면 언제 노나

상여꾼들은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의 불화를 모른 척 싸 덮어 넘어가 주려는 듯 **홍겨운 노랫가락**까지 떠지르며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준섭은 그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 속에 노인의 혼령을 지키듯 당신의 영좌를 향해 다시 **목상**을 계속해 나갔다.

-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와 함께 지혜가 쌓이게 되고, 지혜가 마음속 가득 찬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지혜가 삭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고 싶은 사랑이 된단다. 할머니께서 은지를 위해 나이를 나눠 주시고 지혜를 나눠 주시는 것은 모두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란단다.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할머니는 키가 작아지고 몸집이 작아져서 점점 더 어린애가 되어 가시는 것도 아랑곳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란다.

㊸ 그 역시 동화 속의 아빠가 딸아이에게 해 준 설명이요 준섭이 실제로 딸아이에게 일러 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딸은 노인이 그 한생애로 준섭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고 지금은 침묵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㊹ 하지만 이제 누가 당신의 그런 사랑을 기리고 명념하려 하는가. 물어 보내지 않고 지니고 싶어 하는가.

- 청청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상여꾼들의 취흥과 노랫소리는 이제 그 질탕한 아리랑 가락으로 절정을 이뤄 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 준섭은 다시 그 동화 속의 딸아이에게 의탁해 보였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으로 노인에 대한 그의 **소망과 기구**를 마음 깊이 혼자 되새겨 나가기 시작했다.

.....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나 새 옷 입혀 줘.’

할머니는 이날도 몸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췌근췌근 깊은 낮잠을 주무시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맑은 정신이 드신 목소리로 엄마에게 갑자기 새 옷을 줄라 대셨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엄마가 정성껏 다려 입혀 드린 새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옛날처럼 가지런히 몸을 개고 앉아, 이날따라 그 할머니를 위해 찾아온 듯싶은 한 쌍의 흰색배추꽃나비를 창밖으로 오래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B] 그런데 얼마 뒤, 바깥일에서 돌아오신 아빠가 그 할머니의 방엘 들어갔다 나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신 모양이다. 할머니의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고 우리 곁을 떠나가셨구나.....’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숨결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어 개켜 놓듯 곱게 벗어 놓고 가신 하얗고 조그만 옛날 모습 앞에 혼자 다짐하셨습니다.

‘할머니 안심하고 떠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세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 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준섭의 감은 눈 속에서도 그날 은지가 보았다는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팔랑팔랑 끝없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 이청준, ‘축제’ -

* 원정 : 원망하는 마음.

* 포원 : 원한을 품음.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진행되는 사건과 함께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다.
- ②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용순이 동화책을 빌미로 준섭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② ㉡ : 용순이 은지네의 말에 당황해 하다가 나중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 : 은지네가 한 말에 대해 외동댁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동화책이 실제 준섭의 어머니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어머니가 보여 주셨던 사랑과 삶의 지혜가 은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난다.

4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과 자신들의 행동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② 단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의 행위를 규정짓고 있다.
- ③ 질문을 연이어 던지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비난하는 사람을 자신이 대신하여 옹호하고 있다.

4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장례’를 ‘축제’라고 명명함으로써 전통적인 ‘장례’의 성격을 재조명한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상이 정지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드러나는 시공간이다. 이 작품에서의 ‘장례’ 역시 일상이 정지되고, 모인 사람들이 망자를 애도하는 가운데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축제’와 같다. 이러한 ‘장례’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들을 풀어냄으로써 마침내 화해와 융합에 이르게 된다.

- ① 망자를 애도하기 위한 ‘장례’에서 용순, 은지네, 외동댁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있다.
- ② ‘난장판’, ‘소란통’과 같은 표현에서 ‘축제’로서의 ‘장례’가 갖는 혼돈과 무질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집안 사람들의 불화’와 이를 싸 덮는 ‘홍겨운 노랫가락’은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장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준섭이 ‘장례’를 계기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망과 기구’를 드러냄으로써 가족 간의 화해와 융합이 가능해지고 있다.
- ⑤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과 준섭의 ‘묵상’이 대비를 이루면서 ‘장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애도와 소란스러움이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45.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할머니가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자는 모습은 병들고 약해진 할머니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 ③ 준섭은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떠올리면서 나비를 할머니의 영혼과 연결짓고 있다.
- ④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셨다는 ‘아빠’의 말에는 할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자책이 담겨있다.
- ⑤ 할머니가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은지의 모습에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 시



2015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B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공 권

[1 ~ 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의 공동 구매자를 모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시민 단체 대표 김○○님과 소비자정책연구원의 이△△ 교수님을 모시고 소셜커머스 이용에 따른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 대표님께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 대표 :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살펴 보면, 광고로 접했던 것과 구입한 상품이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상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은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 :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가족 외식권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간 식당에서 광고했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와 가족 외식을 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와 피해를 보상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먼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교수 :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셜커머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고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업체들이 보상하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과 법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차후에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 대표 : 소셜커머스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관계 당국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법규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자 :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추진되어야 하고 아울러 현행 법규를 토대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소셜커머스의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 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속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김 대표 :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업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백여 개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 개인이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단체 및 정부 차원에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A]

1. 위 토의 참여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대표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느슨한 단속을 문제 삼고 있다.
- ② 김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③ 김 대표는 이 교수가 제시한 방안의 문제점을 언급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이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 ⑤ 이 교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중시하고 있다.

2. 위 토의에서 사회자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다.
- ② 토의의 배경을 제시하며 토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 ④ 토의 참여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⑤ 토의가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3. 위 토의를 참관한 청중이 [A]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개인의 특수한 사례만을 근거로 제시해 주장의 타당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② 자료의 출처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앞서 제시한 주장들과 상충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발언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④ 앞서 논의된 토의 내용을 거듭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논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⑤ 상반된 입장 중에 한 쪽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내용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4 ~ 5] 다음은 세 학생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민규 : 경아야, 먼저 와 있었구나. 시간 내 줘서 고마워.

경아 : 응, 할 말 있다더니 무슨 일이야? 지영이도 같이 왔네, 안녕?

지영 : 응, 오랜만이야.

민규 : 경아야, ㉠ 다름이 아니라 지영이랑 나랑 영화 토론 동아리 하는 거 알지? 우리 동아리에서 이번 여름 방학에 선생님들 모시고 토론회를 여는데 같이 하자.

경아 : ㉡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난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아. 영화는 혼자서 즐기는 게 더 좋거든. 그냥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나?

민규 : 영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은 점이 많아. 내가 놓친 장면의 의미도 생각하게 되고,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하는 데서 위안도 얻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거든. 이만한 공부가 없다 싶어.

㉢ 그렇지?

지영 : 응, 맞아. 더구나 이번 방학엔 영화와 문학을 주제로 하는데, 너 그 분야에 관심 많지 않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경아 : 그래? 음, 그래도 용기가 안 나네.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서툴기도 하고.

지영 :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너도 내 성격 알잖아.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

민규 : 난 방학마다 참여해서 이번에 다섯 번째인데 어떤 때보다 프로그램이 좋아. 네가 좋아하는 김○○ 선생님도 참석하실 건데. 우리 같이 하자.

경아 :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 볼게. ㉣ 그러나저러나 너흰 방학 때 다른 계획은 없니? 난 벌써부터 해야 할 공부 때문에 걱정이다.

지영 : 그러게 말이야. 나도 밀린 공부랑 과제물 때문에 정신없을 것 같아.

민규 : 다 그렇지 뭐. ㉤ 그건 그렇고, 그럼 영화 토론 같이 하기로 한 거다.

경아 : 그래, 알았어. 어떤 작품들이야?

4. <보기>를 참고할 때 ‘민규’와 ‘지영’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설득 전략은 화자, 청자, 메시지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우선 ㉠ 화자 측면에서는 화자의 권위, 지식, 열정, 경험 등이 화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여 설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청자 측면에서는 청자의 요구나 관심을 파악하고, 청자와의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 ㉢ 메시지 측면에서는 메시지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화자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① 민규가 ‘다섯 번째 참여’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② 민규가 ‘김○○ 선생님도 참석하실’ 것임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화자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③ 지영이가 ‘나도 처음엔 그랬’음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청자와의 심리적 일체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④ 지영이가 ‘영화와 문학을 주제로’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청자의 요구나 관심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⑤ 민규가 ‘위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의 화제를 제시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다른 대화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④ ㉣: 화제를 새로운 화제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 ⑤ ㉤: 맞장구를 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6~7] <보기 1>은 '고등학교 진로 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1 >

(가) 신문 기사

최근 진로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현장 직업 체험 교육을 포함해, 진로 교육을 위한 창의·인성 체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진로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실제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구하지 못해 직업 체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도 직업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이 큰 고등학교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진로 교육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나) 조사 자료

1.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

노력한 내용	학교 급	노력 정도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노력한다.	초등학교	4.10
	중학교	3.90
	고등학교	3.88
장래 희망을 위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노력한다.	초등학교	4.12
	중학교	3.75
	고등학교	3.85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체험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초등학교	3.16
	중학교	2.26
	고등학교	2.16

※ 노력 정도

1: 전혀 노력 안 함. / 2: 별로 노력 안 함. / 3: 보통임. / 4: 약간 노력함. / 5: 매우 노력함.

2. 고등학교 교사의 진로 교육 관련 이해도

	안다 (%)	보통이다 (%)	모른다 (%)
직업·직장 체험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2.3	32.3	43.8
진로 지도 전문성 함양 방법을	29.7	38.4	30.2
직업 관련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35.8	37.1	25.4

(다) 인터뷰

○ “고등학교에 와서 진로 교육을 받아 보았지만 프로그램도 단조롭고 저의 관심과 동떨어진 활동들이 많아서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공부만 잘 하면 되지 왜 굳이 진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 △△ 고등학교 학생

○ “초등학교에서는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중학교에서는 진로 탐색을 중심으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중심으로 진로 교육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사 연수가 시급합니다. 또한 학교가 지역 사회, 기업 등과 함께 협력하여 진로 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 □□대 교육학과 교수

< 보 기 2 >

○ 서론

○ 본론

- 1. 현황 ㉠
- 2. 문제점 분석
 - 가. 교사 측면
 - 나. 학생 측면 ㉡
 - 다. 교육 당국 측면
- 3. 개선 방안
 - 가. 교사 측면 ㉢
 - 나. 학생 측면 ㉣
 - 다. 교육 당국 측면 ㉤

○ 결론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고등학교의 진로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진로 교육' 실태를 다룬다.
- ② (나)-1과 (다)에서 고등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진로 교육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진로 교육에 임하는 고등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 문제를 다룬다.
- ③ (나)-2와 (다)에서 진로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 교육 연수 확대' 방안을 다룬다.
- ④ (가)와 (다)에서 학생들이 흥미 위주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고등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다룬다.
- ⑤ (다)에서 교육청이 주도하여 진로 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역 사회, 기업 등과 연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 방안을 다룬다.

7. <보기 2>의 '서론'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나도록 할 것.
- 질문을 하는 방식과 예를 드는 방식을 활용할 것.

- ① 진로 교육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진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표정 없이 문제집만 풀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기면서 이제 학교는 새로운 활기가 넘친다. 진로 교육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가장 힘써야 할 과제임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 ② 직업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잘 고려하여 직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진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진로 교육을 그만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③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직업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대학 졸업 후에 다시 새로운 과를 선택해 재입학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 ④ 최근 직업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청소년 시기에 직업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신나는 일인가? 하지만 직업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바로 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학력지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고 한다. 이에 비해 핀란드의 고등학생들은 학력지수와 함께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많이 길러내는 교육 제도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교육 제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교육 제도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8. <보기>의 항목 중,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보고서 작성 계획 ◇

- ㄱ. 견학의 목적을 제시한다.
- ㄴ. 장소 선정의 경위를 밝힌다.
- ㄷ. 견학 중 이동한 경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
- ㄹ. 견학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정보를 제시한다.
- ㅁ. 좋았던 점과 함께 아쉬웠던 점을 밝힌다.

제목: △△ 자연사 박물관을 다녀오다.

작성일: 2014년 ○월 ○일

작성자: ◆◆고등학교 생물탐구반

우리 생물탐구반은 방학을 맞아 그동안 책에서만 배웠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기 위해 자연사 박물관을 견학하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 자연사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자연사 박물관으로,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전시관을 갖추고 있으며 알찬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버스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어서 우리는 △△ 자연사 박물관을 견학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다.

△△ 자연사 박물관에 도착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간 곳은 1층에 있는 '지구 환경관'이다. 지구의 탄생 과정과 지각의 구조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방이었는데, 원시 지구에서 생명의 터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고생대 말인 3억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대륙이 하나의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간 곳은 2층에 있는 '생명 진화관'이었다. 이곳은 다양한 생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었는데, 특히 남세균류의 화석이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것을 통해 남세균류가 지구 최초의 생명체 증거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3층에 있는 '인간과 자연관'은 살아 있는 생명체 구역, 멸종 위기 생명체 구역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진 구역들로 꾸며져 있었는데, 인간이 자연과 오랫동안 공존하기 위해서는 더욱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지하에 있는 '가상 체험실'에서 공룡이 활동했던 시기를 4D 영상으로 가상 체험할 수도 있었다.

책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설렘과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기쁨이 매우 큰 하루였다. 학교에 돌아가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볼 것을 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견학을 마쳤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김누리 학생은 작문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쓰기'라는 과제를 수행했다.

※ 김누리 학생의 수필

이번 설 전날,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의 일이다.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귀엽게 생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 아기는 젓꼭지를 물다 이내 울음을 터트리곤 했는데, 주변 소리가 성가신 듯했다.

어느새 아기 웅가 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한다. 울음 끝에 일을 보고 만 것이다.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겠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한다.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 마치 과도타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고 이 쪽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그 모양이 꼭 냄새가 번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결국 직원이 가서 무슨 말을 하자 아저씨는 화를 내며 아기를 안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집에 돌아오는 길, 어머니께선 ㉡ 고약한 냄새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마트 직원들이 곤란했겠다며, 아저씨의 에티켓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 꼼꼼히 생각해 보니,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았다. 명절 선물을 사려고 했을 테지. 엄마는 왜 없었을까. 엄마가 있었다면 수유실로 갔겠지. 그렇지만 웅가는..... 그래, 그 마트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없었다. 그렇다고 변기 뚜껑 위에 아기를 눕힐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아저씨는 모유 수유실도,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다. 모유 수유실도 기저귀 교환대도 없었지만, 엄마들이 뒤돌아 앉아 아기들의 배를 채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줄 만한 공간은 어디든 있었으니, 널런 게 요람이었다. 우선은 도시 공공시설에 아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실을,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확대해야겠지만, 그런다고 계절이 돌아오듯 아기들이 행복했던 시절이 돌아올까. 아기 전용 공간이 늘어나지만 도리어 아기에게 허용된 공간은 줄어들고 있는 이 ㉣ 궤변에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야 했다.

가장 행복했어야 하는 존재지만, 충분히 배려 받지 못했던 그 아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물론 그 아저씨에게 뭐라 말을 건넸던 직원처럼 우리도 할 일은 해야 하겠지만, 힘차게 기저귀를 풀어헤치던 아저씨의 당당한 모습 뒤로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모습이 떠올랐다. 아, 그 사이에 내가 있었구나!

9. 다음은 뒷글을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전략과 구체화 방안이다. 뒷글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 글쓰기 전략 >	< 구체화 방안 >
사건을 새롭게 해석한다.	⇒ • 사건을 아저씨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 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 • 현재형 종결 표현과 동작 묘사를 통해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한다. ② • 비유법을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인다. ③
성찰한 내용을 제시한다.	⇒ •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예상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④ • 평범한 사건에 내재해 있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밝힌다. 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한편'으로 고쳐 쓴다.
- ②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로 고쳐 쓴다.
- ③ ㉢은 맞춤법에 맞도록 '곰곰이'로 고친다.
- ④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역설'로 바꾼다.
- ⑤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11. <보기 1>을 토대로 <보기 2>의 ㉠~㉣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소리의 길이'에 관한 표준 발음법 규정 요약>

구분	규정 내용	예시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함.	많다[만:타] 알다[알:다] 멀리[멀:리] 꼬다[꼬:다] 두어[두어]→뒤[뒤:] 기어[기어]→겨[겨:]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함.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 밟다[밟:따]-밟히다[발피다]

- < 보 기 2 >
- 철수는 영희와 ㉠ 눈먼 사랑에 빠져 있다.
 - 그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재치가 ㉡ 많고 슬기롭다.
 - 예전에는 새끼로 줄을 ㉢ 짜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 바느질을 하는데 ㉣ 감긴 실을 풀지 못해 애를 먹었다.
 - 몰랐던 것을 스스로 ㉤ 알아 가는 데에 공부의 참 재미가 있다.

- ① ㉠의 '먼'은 둘째 음절에 있으므로 [먼]으로 짧게 발음되겠군.
- ② ㉡의 '많-'은 첫음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만:]으로 길게 발음되겠군.
- ③ ㉢의 '짜'는 어간인 '꼬-'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짜]로 짧게 발음되겠군.
- ④ ㉣의 '감-'은 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감]으로 짧게 발음되겠군.
- ⑤ ㉤의 '알아'는 어간 '알-'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아라]와 같이 어간 부분이 짧게 발음되겠군.

12. <보기>의 ㄱ~ㅁ은 중의문들이다. 제시된 의미 조건에 맞게 ㄱ~ㅁ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 ㄴ.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 ㄷ.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 ㄹ.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혔다.
- ㅁ.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고 있다.

구분	의미 조건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	
ㄱ	형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좋음.	→ 어떤 사람이든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	... ①
ㄴ	그녀의 손이 아름답음.	→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 ②
ㄷ	철호가 도서관에 간 것은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임.	→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는 가지 않았다.	... ③
ㄹ	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으라고 시켜서 아이가 직접 옷을 입음.	→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게 하였다.	... ④
ㅁ	혜원이는 새 체육복을 이미 몸에 착용했음.	→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은 상태이다.	... ⑤

13. <보기>를 토대로 ‘두음 법칙’에 관한 국어 표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선생님: 한글 맞춤법 제5절은 두음 법칙과 관련해 국어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두음 법칙은 주로 한자어의 첫 음절에 있는 어두음에 적용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에 유의해 다음 자료를 토대로 두음 법칙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탐구 자료]

구분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한자의 본래 음
㉠	요소(尿素), 익명(匿名) 당뇨(糖尿), 은닉(隱匿)	뇨소(尿素), 닉명(匿名) 당요(糖尿), 은익(隱匿)	尿: 뇨 / 匿: 닉
㉡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역이용(逆利用)	신녀성(新女性), 공념불(空念佛) 역리용(逆利用)	女: 녀 / 念: 녀 利: 리
㉢	규율(規律), 백분율(百分率) 보급률(普及率), 시청률(視聽率)	규률(規律), 백분률(百分率) 보급율(普及率), 시청율(視聽率)	律: 률 / 率: 률
㉣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열력학(熱力學), 해외러행(海外旅行)	力: 렉 / 旅: 려
㉤	낙원(樂園), 뇌성(雷聲), 누각(樓閣)	락원(樂園), 뢰성(雷聲), 루각(樓閣)	樂: 락 / 雷: 뢰 樓: 루

- ① ㉠ → 모음 ‘ㅛ, ㅣ’ 앞에 ‘ㄴ’이 사용된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ㄴ’을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데,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는군.
- ② ㉡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뒤에 붙어 있는 한자어는 그 첫소리가 ‘ㄴ’이나 ‘ㄹ’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ㄴ’이나 ‘ㄹ’을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군.
- ③ ㉢ → 한자음 ‘률’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자음 뒤에 위치하는 경우와 달리 ‘률’을 본음대로 적어야 하는군.
- ④ ㉣ → 한자어들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뒷말의 첫소리가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ㄹ’을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군.
- ⑤ ㉤ → 모음 ‘ㅏ, ㅑ, ㅓ’ 앞에 ‘ㄹ’이 사용된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 대신에 ‘ㄴ’으로 적어야 하는군.

14. 다음은 '이르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르다¹ [이르러, 이르니] 「동사」

- ㉠ 【...에】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 ㉡ 【...에】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이르다² [일러, 이르니] 「동사」

- ㉢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하다.
- ㉣ 【...을】 【...에게 ...을】 【...에게 -고】 【...에게 -도록】 타이르다.
- ㉤ 【...에게 ...을】 【...에게 -고】 미리 알려 주다.
- ㉥ 【...에게 ...을】 【...에게 -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윗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
- ㉦ 【...에게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르다³ [일러, 이르니] 「형용사」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거나 앞서다.

- ① '이르다¹', '이르다²', '이르다³'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니 동음이의어이군.
- ②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둘 다 다의어이군.
- ③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활용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④ '이르다¹' ㉠과 '이르다²' ㉢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군.
- ⑤ '이르다³'의 용례로 '그는 항상 나보다 빨리 결승점에 이르렀다.'를 들 수 있겠군.

15. 다음의 ㉠~㉥에 사용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선생님 아까 수업 마치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던데.
㉡	<가게 점원이 손님에게>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고모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	<학교 후배의 집에 전화한 선배가 후배의 초등학생 아들(철호)에게> 철호야, 잘 있었어? 아저씨인데, 아빠 지금 집에 계시니?
㉤	<장모가 사위에게> 잘 가게.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 조심하게.

- ① ㉠: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말하고 있다.
 ② ㉡: ‘나오셨습니다’는 ‘커피’를 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접 높임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나왔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
 ③ ㉢: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특수 어휘 ‘잡수시다’를 통해 높여 말하지만,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인 고모에 대해서는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고 있다.
 ④ ㉣: 화자의 후배이지만 청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높여 말해야 하는 아버지이므로, 화자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후배를 높여 말하고 있다.
 ⑤ ㉤: 화자인 장모는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접적으로 낮춰 말하기가 어색하므로 두루 높임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높여 말하고 있다.

1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 보 기 1 >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의 ‘에’나 ‘에서’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던 ‘애/예/예’는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체언의 끝 음절에 사용된 모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쓰였다.

선행 체언의 끝 음절 모음	부사격 조사	사례
양성 모음	애	불휘 기픈 남근 브르 <u>애</u> 아니 필씩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u>애</u> 아니 움직이므로)
음성 모음	예	行宮(행궁) <u>예</u> 도즈기 들어 (행궁 <u>애</u> 도적이 둘러서)
이, ㅣ	예	狄人(적인)人 서리 <u>예</u> 가샤 (오랑캐들 사이에 가시어)

< 보 기 2 >

- 저근 빅 + ㉠ 을오리라 (작은 배에 오르리라)
- 골형 + ㉡ 므를 디내샤 도즈기 다 도라가니(골목에 말을 지나게 하시어 도둑이 다 돌아가니)

- | | | | | | |
|---|---|---|---|---|---|
| | ㉠ | ㉡ | | ㉠ | ㉡ |
| ① | 애 | 예 | ② | 애 | 예 |
| ③ | 에 | 예 | ④ | 예 | 애 |
| ⑤ | 예 | 애 | | | |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해’와 ‘설명’은 모두 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중 ‘이해’는 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정신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었던 반면에 ‘설명’은 자연적 대상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어 왔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는 과연 ‘이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설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본능적인 행동을 제외한 인간의 행위 대부분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신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물론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같은 인간이라는 삶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타인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처럼 느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철학자인 딜타이는 ‘객관적 정신’을 내세웠다. [객관적 정신]은 개별적인 인간 정신의 상호 작용에 의해 산출되는 집단 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정신’을 통해 ‘이해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면 ‘객관적 정신’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모든 과학의 통일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과적 설명으로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개별 현상을 보편 법칙에 포섭하여 대상을 인과적으로 규명하는 방법론인 ‘설명’은 인간의 행위를 규명할 때에도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간의 행위를 다룰 때에도 개별적 특성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 법칙의 수립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행위를 어떤 보편 법칙 속에 포섭되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별 행위를 포섭하는 보편 법칙이 객관성을 갖는다면 그 행위에 대한 설명 역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행위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런 의도가 왜 생겨났는가를 묻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도 ㉠ ‘설명’이 ‘이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속하는 의도는 자연처럼 관찰이나 실험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는 어떤 법칙을 따르기보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타인의 의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이해’는 인간의 행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도를 모든 상황에서 모두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행위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생긴 원인까지 알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행위는 결코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보다 ‘설명’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이해’와 ‘설명’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할 것이다.

1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 다른 두 이론이 상호 교섭해 온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 ② 기존의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대비하여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 ③ 서로 관련된 두 이론이 경쟁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 ⑤ 대립하는 두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절충적인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객관적 정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정신'은 상반된 인식의 차이를 부각한다.
- ② '객관적 정신'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 순서를 부여한다.
- ③ '객관적 정신'은 대상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한다.
- ④ '객관적 정신'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공통의 기반이 된다.
- ⑤ '객관적 정신'은 집단 정신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19. 밑글과 <보기>를 함께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콜링우드 는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칙령을 연구할 때, 황제가 생각했던 것을 자신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황제가 처했던 상황이 마치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황제가 결단을 내렸던 그 과정을 자신의 마음속에 재연하면서 음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단순한 문헌학적 지식과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지식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나) 험펠은 중세 가톨릭교회에서 판매했던 면죄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면죄부에 대해 가졌던 열망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두려워하며 구원을 바란다는 보편 법칙에서 생겨난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험펠은 면죄부 판매도 특정한 시대의 일회적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면죄부는 일정한 돈만 내면 성직자가 신을 대신하여 일반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것으로 중세 유럽에서 성행했다.

- ① (가)로 보아, '콜링우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을 때의 역사적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재현하려고 하였군.
- ② (가)로 보아, '콜링우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처한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과정을 통해 황제가 칙령을 내린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③ (나)로 보아, '험펠'은 중세 유럽에서 성행한 '면죄부 판매'를 보편 법칙에 포섭되는 하나의 사례로 설명하였군.
- ④ (나)로 보아, '험펠'은 기독교인들이 지닌 두려움과 욕망을 '면죄부 판매'라는 사건의 원인으로 보았군.
- ⑤ (나)로 보아, '험펠'은 일정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면죄부 판매'와 유사한 역사적 사건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보았겠군.

20. ㉠의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골라 짝지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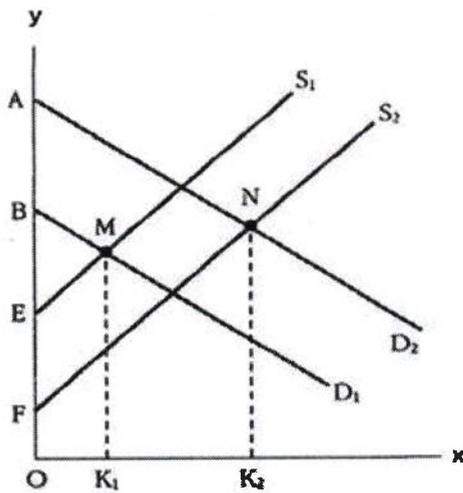
— < 보 기 > —

- ㉠. 타인의 행위에 담긴 의도에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 ㉡. 인간이 지닌 의도는 관찰이나 실험의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 법칙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 ㉣.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보다 '그 의도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자본 이론은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의 생산적인 힘을 인간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 그로 인해 포기된 소득 등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파악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게 결정되는 것은 인간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림>

인간자본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게리 베커로,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베커의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르면, <그림>에서 x축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을 나타내며 y축은 수요곡선일 때는 ‘한계수익’을, 공급곡선일 때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한계수익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 값이며 한계비용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값이다. 수요곡선 D는 우하향하는데 이는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량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기 때문이고, 공급곡선 S는 우상향하는데 투자량에 대한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D₂는 D₁보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이며 S₂는 S₁보다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다. 수요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 D₂의 값 A가 D₁의 값 B보다 큰 것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급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의 S₂의 값 F가 S₁의 값 E보다 작은 것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비용은 부유한 사람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한계수익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는 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 때,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수요곡선의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되며 인간자본 투자의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랫부분의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인간자본 투자의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D₁의 수요곡선과 S₁의 공급곡선을 가진다면 K₁까지 투자를 하므로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OBMK₁, 총비용은 OEMK₁이므로 순이익은 BEM이 된다.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라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투자 기회 측면에서의 공급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수요 조건, 즉 동일한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면의 차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은 능력이 적은 사람의 수요곡선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소득 격차는 불가피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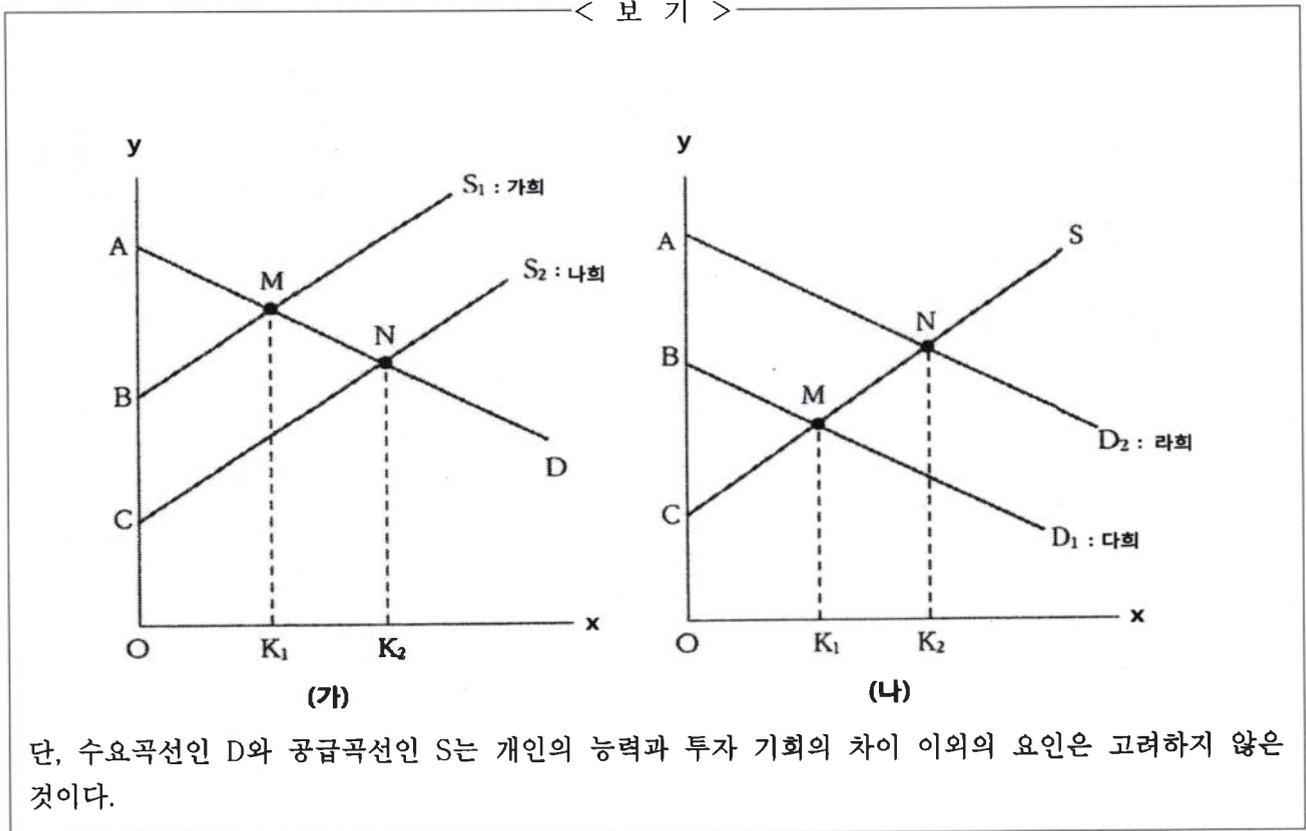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은 모든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비슷하므로 같은 양의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고 본다. 부유한 사람은 유리하게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 가난한 사람의 공급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이것이 곧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축을 도출하게 한다.

㉠ 베커로 대표되는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자들은 인간자본 이론을 지배적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행정가들이 이 이론을 정책 입안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2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공헌을 하였다.
- ② 투자에 의해 형성되고 체화된 인간의 지식은 인간자본에 해당한다.
- ③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 ④ 인간자본 이론에서는 인간자본 형성을 위해 포기한 소득을 배제하고 투자를 정의한다.
- ⑤ 베커는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밑글과 <보기>를 토대로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OAMK₁은 '가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수익이다.
- ② (가)에서 OCNK₂는 '나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비용이다.
- ③ (나)에서 BCM은 '다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순이익이다.
- ④ (나)에서 OK₁은 '라회'의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이다.
- ⑤ (나)에서 ABMN은 '다회'와 '라회'의 소득 격차이다.

2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회’가 ‘나회’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가회’의 능력이 ‘나회’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 ② ‘가회’는 ‘나회’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 ③ ‘가회’와 ‘나회’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대안으로는 교육 기회 보장 정책이 있을 수 있다.
- ④ ‘다회’와 ‘라회’는 타고난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
- ⑤ ‘라회’는 ‘다회’에 비해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적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

24. <보기>를 근거로 하여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인도에서는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하위 계급 노동자는 상위 계급의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같은 인간자본을 획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는다. 하위 계급 노동자가 상위 계급의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인간자본이 충분한 노동자라고 해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 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교육을 통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인간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 ③ 노동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 등에 대한 파악 없이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 ④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회 구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 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인간의 지식과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1>

‘영구 기관’이란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하거나 연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속 움직이는 가상의 장치를 말한다. 주로 16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영구 기관이 고안되었는데,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 <그림 1>의 장치는 17세기에 고안된 영구 기관으로, 내부가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진 원반이 선풍기처럼 회전하면서 각 구획의 벽을 따라 쇠구슬이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장치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쇠구슬로 인한 회전력에 의해 원반이 영구적으로 회전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 장치는 결국 멈추었다. 처음에 원반을 돌린 힘은 회전축의 마찰과 쇠구슬이 구르면서 생기는 마찰 등으로 인해 열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치 안에서 마찰로 인해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할 새로운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쇠구슬의 무게로 인해 회전축에 걸린 힘이 모두 원반의 왼쪽에 있는 쇠구슬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새로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한 법칙이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이다. 결국 <그림 1>과 같은 영구 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열역학 제1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영구 기관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영구 기관의 작동은 가능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공기의 열을 이용하여 달리는 가상의 자동차를 상상해 보자(<그림 2>). 주변 공기의 온도가 20℃인 상황에서, 끓는점이 15℃인 액체를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증기 기관이 장착된 자동차가 있다고 하자. 이때 액체를 끓여 증기를 만드는 데는 주위에 있는 공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액체를 증기로



<그림 2>

만드는 과정에서 열을 빼앗겨 온도가 떨어진 공기는 자동차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자. 증기를 다시 식혀 액체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자동차는 영구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증기를 식혀서 다시 액체로 만들 수 있을까? 온도가 20℃인 주변의 공기만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 이 증기를 15℃ 이하로 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칙이 열의 이동에 관한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으로, 그 내용은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며,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위 자동차의 아이디어는 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 <그림 2>와 같은 자동차의 영구적 작동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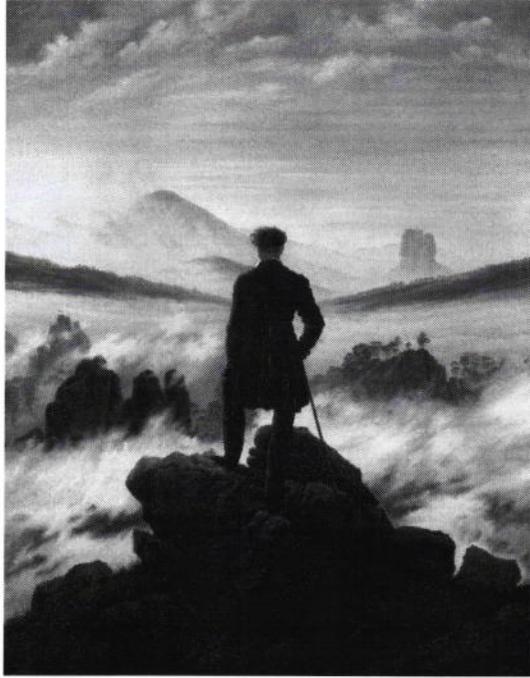
- (가) ㉠ 예술을 진리와의 연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낭만주의의 큰 특징이다. 낭만주의에서는 과학보다 예술이 한 단계 높은 진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예술이 그 독특한 힘으로 이성적, 의식적, 논리적 접근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무한, 영원 등과 같은 보다 심오하고 본질적인 진리나 실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낭만주의 작품에는 유한한 현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낭만주의 경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가가 독일의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이다. 그의 풍경화는 광활하고 영원한 자연을 대면한 인간의 낭만적 정서를 탁월하게 보여 주었다.
- (나) 프리드리히는 자연을 신의 체현으로, 또 예술을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 여겼다. 그는 자연을 통해 신을 만날 수 있으며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그림 속에 담는 것을 신적인 창작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풍경화를 통해 자연 속에 내재된 무한함, 즉 신적인 것을 표현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관계를 보여 주고자 했다. 자연을 상징적 도구로 삼아 유한자와 무한자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에 그려진 자연은 단순히 사실적인 풍경에 해당하지 않고 인간이 갖는 신비스러운 종교적 감정, 또는 자연과 대면해 관조하며 품은 영원성에 대한 동경과 같은 인간의 낭만적 심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 (다)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는 18세기 미학에서 중요시 되었던 ‘숭고’의 감정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자연의 규모와 그 힘이 인간이 측량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인간은 자연을 대면하여 고통과 쾌감의 상호 모순된 정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정서를 칸트는 ‘숭고’라고 이름 붙였다. 이에 따르면 숭고는 측량할 수 없는 자연의 크기와 위력 앞에서 느끼는 외경의 감정으로 우리 정신 속에 무한한 것에 관한 이념을 환기시킨다. 프리드리히는 실제 자연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숭고의 감정을 풍경화를 통해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그의 그림에는 인간이 전경(前景)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속 인간은 압도적인 자연과 대비되며 숭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환기하는 데에 기여한다.
- (라) 프리드리히는 1818년부터는 전경에 있는 사람을 이전보다 크게 그렸고 명암을 강하게 대조시켰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안개 바다를 굽어보는 산행가」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자연과 마주 대하고 있는 인물은 명암의 대조를 통해 그 존재가 강하게 부각되면서 화면에 긴장감을 자아내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 측량하고 지배할 수 없는 규모의 자연을 접하고 그러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의 낭만적 심정을 환기한다. 감상자는 이 인물을 통해 그림 속으로 끌려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어 자연을 관조하게 되며, 이러한 관조를 통해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낭만주의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마)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관계에 대한 내적 통찰을 나타내고 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통일에 대한 지향을 담은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는, 항상 변화를 겪는 인간에 비해 변치 않는 이상과 영원성을 대변하는 자연에 숨겨진 신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감상자로 하여금 그 의미를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28.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낭만주의의 특징적인 경향을 소개한 다음, 그와 관련해 글의 중심 화제가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임을 밝히고 있다.
- ② (나): 자연과 예술에 관한 프리드리히의 견해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 세계가 변모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숭고’의 개념에 관한 칸트의 견해를 소개해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프리드리히의 풍경화 속 인물의 특징을 제시하고 작품에서 그 인물이 수행하는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다음, 프리드리히의 풍경화가 지닌 의의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29. 윗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프리드리히, 「안개 바다를 굽어보는 산행가」, 1818년

- ① 작품에 그려져 있는 ‘안개 바다’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대조되는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② ‘산행가’와 ‘안개 바다’의 명암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명암의 대조는 그림 속에서 ‘산행가’의 존재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프리드리히에 따르면, 그림 속 ‘안개 바다’는 신이 체현된 자연을 의미하며, 이를 나타낸 이 작품은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④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안개 바다’는 인간에게 한계를 자각하게 만들어 쾌감을 억제하는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숭고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산행가’는 감상자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그림 속 ‘안개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외경감을 토대로 무한한 세계를 동경하는 심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

30. 윗글에서 ㉠과 관련해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낭만주의에서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② 낭만주의에서는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진리로 생각한다.
- ③ 낭만주의에서는 삶과 분리된 성격이 강한 예술 작품을 높이 평가한다.
- ④ 낭만주의에서는 과학이 추구하는 진리에 미치는 예술의 영향을 중시한다.
- ⑤ 낭만주의에서는 예술가가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夕陽).....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 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傳說)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박히기 전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未開地)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 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 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찌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② 특정한 종결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대구의 방식을 규칙적으로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가)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푸 투안은 공간 조직의 근본 원리는 인간의 신체,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공간 체험은 신체를 통해서 가능하며,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문화적 의미가 획득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적 공간의 구성 원리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가)의 경우 신체 또는 인간들의 관계와 결합된 공간의 표상들은, '우리들의 고향'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① 고운 얼굴 조석으로 비취이던 우물가
- ②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나오던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 ③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
- ④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
- ⑤ 비단치마 나부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

33. (나)의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까지'의 '물결'은 멸치의 원시적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그물'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력을 앗아 가는 세계의 폭력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빠다귀'와 '모래 더미'는 생명력을 잃은 멸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이 작은 무늬'는 멸치가 생명력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는다고 한 것은 멸치의 생명력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 초까지 아버지는 시내 공립 중학교의 서무과장이었다. 그런데 작년의 학기말을 끝으로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 점은 순전히 엄마 탓이었다. 엄마는 아버지 학교의 공금을 빼내 썼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처음부터 엄마의 농간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공금을 빼내어 사용(私用)으로 쓰다니. 평생원인 아버지는 순제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 비단 그 문제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아버지는 소심하고 웅졸했다. 말이 없고 겁이 많았다. 이를 아버지는 전쟁 탓으로 돌렸다. 언젠가 아버지는, 고향을 잃을 때부터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구멍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고 자탄했다. 그러나 고향을 잃고 살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유는 타당치가 못했다. ㉠ 아버지는 저 유명한 금강산을 끼고 있는 강원도 통천군 두백리가 고향이었다. 들은 바로는 그곳에 배 열 척과 큰 어장까지 가진 재력 있는 수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방 전에는 일본서 전문학교까지 다녔다. 해방 후로는 서울서 대학에 적을 두었다. 전쟁이 나던 해 유월, 약혼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올라간 것이 그만 발이 묶여 버렸다. 그해 칠월 아버지는 고향서 징집을 당해 인민군 소위로 참전했다. 지난 봄, 어느 날 아버지는 나도 끼인 자리에서 형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나 난 공산주의가 원래 새, 생리에 맞지 않았어. 객관적으로 어느 주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그들은 매사에 너무 과격했거든. 마치 사나운 맹수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을 집단으로 기, 길들이려 덤벼 들었어. 그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로 버려 두지 않았다니깐. 혁명, 투쟁, 반동, 처단 아, 단어만 드, 들어도 얼마나 끔찍하니. 사람이란 다 개성이 다름으로 해서 가, 각자의 꿈과 소망이 다르듯, 그런 자유와 창의력을 나는 존중하지. 또 너들이 알다시피 인간이 생산과 노동 이외 사색도 피, 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꺾었다.

“아버진 역시 사색파시다, 이 말이시겠쎄. 너무 사색이 깊으셔서 결단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꺾테기. 오히려 소나 말처럼 잘 길들여진,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꿈쩍 못 하는 노예…….”

이제 형이 내 말을 꺾었다.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전쟁의 희생자야. 통일을 못 이루는 이 분단의 현실이 아버지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갔어. 요컨대 아버지 삶의 근간을 끊어 버린 거야.”

“형, 잠깐만” 하고 내가 말했다. “교과서에서도 노래삼아 나오는 통일, 통일이란 말은 귀에 못이 박일 정도야. 그런데 뭐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다시피 지금 이 상태에서 저쪽 놈들과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 선생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한 무력의 길 이외는 통일이 힘들다고 말했어. 나도 동감이야.”

“힘들기는 히, 힘들지. 그러나 누가 지금 토, 통일의 길을 포기하고 있어? 남북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통일을 막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아버지는 머리를 쭈레쭈레 흔들며 말했다.

[A]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지요. 아버지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통일을 위해 누가 전쟁을 원해요?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몇 할이 전쟁을 원하고 있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망쳐 버려요. 차라리 전쟁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아요.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너희 세대는 왜 통일이 중요한지 몰라.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한 건 순전히 교육 탓이야.” 형이 강한 어투로 내 말을 반박했다.

“교육 탓만은 아니야. 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 사회가 저 저, 젊은 애들을 다른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게 하는 거야.”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말을 들려냈다.

“저는 통일이 절실하다고 외치는 아버지나 형이 되기보단 차라리 통일을 모르는 쪽이 좋아요. 그리고 두 분을 절대로 닮지 않겠어요.” 내가 말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네 생각은 정직하지 못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아버지의 그 말에는 잘못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정직과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빼낸 공금을 보름 안으로 메워 놓겠다는 엄마의 허튼 약속을 절대 믿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파산, 집단 자살, 그것도 아니라면 나 혼자 감옥에 가거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극단적인 위협조차 사양치 않았다. 그렇게 협박과 울음을 섞어 아버지를 설득시킨 것이다. 그 결과 겨우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돌아왔다. “이건 나, 낱강도다. 이제 나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끝장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방으로 건너와 형과 나를 잡고 투정했다. 엄마는 그 돈으로 깨어지려는 계를 겨우 수습한 모양이었다. 아버지와 약속한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엄마는 그 돈을 메워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안절부절못했다. 엄마도 안달이었다. 이제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 부정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로써 아버지의 스물네 해 공직 생활은 불명예로 끝났다. 퇴직금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구멍을 막기에는 모자랐다. 나머지 돈은 엄마가 어떻게 융통한 모양이었다. 학교에서 송별회를 마치고 오던 날, 아버지는 우리들 앞에서 오랜만에 울었다. 그러나 끝내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암탉이 울면 지, 집안이 망한다더니 끝내 그 꼴을 보, 보고 말았구나.” 한숨 끝에 이 말을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좋게 말해 아버지는 제상에 오른 선한 양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아버지는 집 안에 들어앉고 말았다. 매달 일만천 원씩 나오는 삼급 상이용사 연금이 이제 아버지의 유일한 벌이었다. 그러나 역시 엄마는 수완가였다. 엄마는 우리 식구를 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았다. 물론 끼니를 거르게 만들지도 않았다. 엄마의 능력으로 우리 식구는 그런대로 옛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직 경제권이 전폭 엄마에게로 옮겨 간 점이 달랐다. ㉠ 아니, 전에도 경제권은 엄마가 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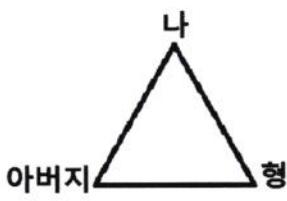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청렴결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 ② '아버지'는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는 이념에 대해 비판적이다.
- ③ '엄마'는 '아버지'의 퇴직금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 ④ '아버지'는 학교 공금을 빼내 쓴 일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했다.
- ⑤ '아버지'와 '엄마'는 고향을 잃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5. <보기>의 ㉠을 설명하기 위한 단서를 [A]에서 찾는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윗글에서 [A]는 현실 문제와 관련하여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나'는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술자이기도 하다. 이는 현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 하나의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작가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다는 '나'의 생각은, '형'에 의해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진단된다.
-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냉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치부된다.
- ③ '분단'이 아버지의 '삶의 근간'을 빼앗아갔다는 '형'의 생각은, '나'에 의해 '무력의 길'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 ④ '젊은 애들'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둘러대'는 말로 폄하된다.
- ⑤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은, '아버지'에 의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로 인한 도덕성의 상실로 비판된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처지와 가치관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7. <보기>는 [B]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공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다.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S# 91 안방

아버지 :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당신 생각은 정, 정직하지 못해.

엄마 : (애원조로) 아 내가 뭐했는데. 보름 안으로 꼭 채워준다고 했잖아. 이번만 좀 어떻게 해줘, 응?

아버지 : 그게 중, 중요한 게 아니야. 애, 애초에 공금을 빼낸다는 생각이 자, 잘못이라니까.

엄마 : (목소리를 높이며 빠르게) 그 돈이 없으면 우리 파산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우리 네 식구 모두 죽어야 한다고. 아님 내가 감옥살이 하는 동안 혼자서 고고하게 잘 먹고 잘 살든가!

아버지 :(묵묵부답, 집을 나선다.)

S# 92 며칠 후, 안방

아버지, 두툼한 돈봉투를 엄마에게 건넨다. 화색이 도는 엄마의 얼굴과 침울한 아버지의 표정 교차. 화면을 분할하여 각각의 얼굴 C. U.*

S# 93 어느 날 밤, 형제의 방

아버지의 취한 모습. 인사불성이 되어 ‘끝장이다’를 반복하며 형제에게 술주정하는 아버지. 말리려 온 엄마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정을 한다.

S# 94 보름 후, 안방

아버지 : (안절부절못하며) 도, 돈을 채워주겠다는 날인데.....어떻게 된 건가?

엄마 : (되려 화를 내며) 내가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거냐고. 갖다 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라니깐!

아버지 : (잠시 사이를 두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말투로) 그냥 내, 내가 죽어야지. 공금에 손을 대서 나, 낮을 붉히게 되느니 주, 죽는 게 낫겠어.

*C.U. : 시나리오 용어의 하나로, 어떤 한 부분을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찍는 것을 말함. ‘Close Up’의 약어.

- ① S# 91: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는 ‘아버지’의 성격을 고려해서, 원작에서 ‘아버지’가 다른 인물에게 했던 말을 ‘엄마’에게도 하는 걸로 했군.
- ② S# 91: ‘엄마’가 ‘협박과 울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대화 장면으로 구성해서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군.
- ③ S# 92: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라는 원작의 구절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심정을 추리하여, 두 인물의 심정 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군.
- ④ S# 93: ‘아버지’가 ‘형과 나’를 붙잡고 투정을 하는 원작과는 달리, ‘엄마’까지 등장시켜 ‘아버지’가 가족 모두에게 가졌던 불만을 살려 내고 있군.
- ⑤ S# 94: ‘약속한 보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하나의 시공간을 설정하여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38. 밑글의 단어를 활용하여, ‘아버지’를 주어로 ㉠을 달리 표현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만큼은 ‘공생원’으로 살지 않았다.
- ②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늘 ‘깍대기’에 불과했을 뿐이다.
- ③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날강도’가 되는 일만은 극히 꺼렸다.
- ④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항상 ‘희생자’의 역할을 맡아 왔다.
- ⑤ 아니, 아버지는 언제나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경주에 사는 박생은 학문의 성취 수준이 높았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늘 불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품이 온후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어느 날 박생은 한밤중에 ‘주역(周易)’을 읽다가 얼핏 잠이 드는데, 꿈에 나타난 저승사자에게 인도되어 염부주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염부주의 임금인 염왕을 만난다.

박생이 또 물었다.

“임금님께서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이역(異域)에 살면서 임금이 되셨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였다.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도적을 토벌하였소.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은 뒤에도 마땅히 여귀(厲鬼)*가 되어 도적을 죽이리라.’ 하였소. 그런데 그 소원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곳에 와서 우두머리가 된 것이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러르는 사람들은 모두 전세에 부모나 임금을 죽인 자들이거나 간교하고 흉악한 무리들이요.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통제를 받아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소. 그러나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도 이 땅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소. 과인이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고 뜻이 굳세어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진실로 달인(達人)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도 그 뜻을 당세에 한 번도 펼쳐 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형산의 옥이 티끌 가득한 벌판에 버려지고 밝은 달이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소. 훌륭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물임을 알아주겠소? 그러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소? 나는 시운(時運)이 이미 다하여 장차 활과 검을 버리고자 하오. 그대도 또한 명수(命數)가 이미 다했으니 곧 썩덤불 속에 묻힐 것이요. 그러니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릴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겠소?”

임금은 잔치를 열어 박생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그리고 박생에게 삼한(三韓)이 흥하고 망한 역사를 물으니 박생이 하나하나 대답하였다. 이야기가 고려가 창업한 대목에 이르자 임금은 거듭 탄식하며 서글퍼하다가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같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역할 뜻을 품고 있어서 날이 가고 달이 가면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덕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되오. 하늘이 비록 거듭 말해 주지는 않아도 행사(行事)로 보여주니, 처음부터 끝까지 상제의 명령은 지엄한 것이요. 대체로 나라라는 것은 백성의 나라요, 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이요.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가면 임금이 비록 제 몸을 보전하고자 한들 어떻게 가능하겠소?”

박생이 또 역대의 제왕들이 이도(異道)*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자 임금이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백성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는데도 홍수와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군주로 하여금 일을 삼가라고 거듭 경계하는 것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요괴가 군주에게 아첨해서 더욱 교만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 역대 제왕들에게 상서로운 징조가 일어났던 때가 백성들이 안락함을 누리던 때겠소, 아니면 원통함을 부르짖던 때겠소?”

박생이 말하였다.

“간신들이 별 때처럼 일어나고 큰 변란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윗사람들이 백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도 잘한 일이라고 여기며 부질없는 명예만 구하려 한다면 어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말이 옳소.”

잔치를 마친 후 임금이 박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손수 다음과 같은 ㉠ 조서를 내렸다.

염주의 땅은 실로 풍토병이 유행하는 곳이므로 우(禹)임금의 발자취도 이르지 못하였고, 목왕(穆王)의 준마도 오지 못하였다.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다. 목이 마르면 이글이글 끓는 구리 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활활 타오르는 쇠덩이를 먹어야 한다. 그러니 야차(夜叉)나 나찰(羅刹)이 아니고는 발붙일 곳이 없고, 도깨비가 아니고는 그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다. 불의 성벽이 천 리에 둘러 있고, 철로 된 산악이 만 겹이나 겹쳐 있다. 백성들의 풍속이 강하고 사나워서 정직한 자가 아니면 그 간사함을 판단할 수 없다. 지세도 굴곡이 심해 험준하니 신령하고 위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들을 교화할 수가 없다.

아아, 동쪽 나라의 박아무개는 정직하고 사심이 없고,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남을 포용하는 자질을 갖추었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줄 재주를 가졌도다. 생전에 비록 현달하여 영화를 누리는 못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로다. 모든 백성이 길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마땅히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려 백성들을 착한 길로 이끌고,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해주오. 하늘을 본받아 법을 세우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을 본받아 내 이제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나니 아아, 그대는 삼가 받을지어다.

박생은 조서를 받아 든 후 예법에 맞추어 두 번 절하고 물러 나왔다. 임금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치하를 드리게 하고, 태자의 예로써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박생에게 경계하였다.

“머지않아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오. 이번에 가거든 수고롭지만 내가 말한 바를 인간 세상에 널리 전하여 황당한 일들을 다 없애 주오.”

박생은 다시 두 번 절을 올리고 감사하면서 말하였다.

“감히 명하신 바의 만분의 하나라도 받들지 않겠습니까.”

박생이 문을 나선 후 수레를 끄는 자가 발을 헛디더 수레가 뒤집혔다.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넘어졌는데 놀라서 깨어 보니 한갓 꿈이었다. 박생이 눈을 떠 보니 책은 책상 위에 내던져 있고,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박생은 한참 동안 감격스러우면서도 의아하게 여기다가 장차 죽게 될 것을 깨닫고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는 데 몰두하였다.

몇 달 뒤 박생이 병을 얻었는데 스스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의사와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박생이 죽던 날 밤 이웃 사람들의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 주었다.

“네 이웃집 아무개가 장차 염라대왕이 될 것이다.”

- 김시습,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

* 여귀(厲鬼): 재앙을 가져오는 악귀.

* 이도(異道): 불교를 이룸.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배경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토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 ⑤ 작품 속의 서술자가 상황과 인물의 태도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40.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염왕’은 염부주를 떠나야 하는 것을 후회했다.
- ② ‘염왕’은 왕위를 물려 달라는 ‘박생’의 요구를 듣고 당황했다.
- ③ ‘박생’은 꿈에서 깬 후 자신이 죽을 것을 깨닫고 신변을 정리했다.
- ④ ‘박생’은 ‘이도(異道)’를 숭상해 현실 세계에서 널리 알리고자 했다.
- ⑤ ‘박생’은 현실 세계로 돌아와 염부주에서의 경험을 ‘신인’에게 알려 주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남염부주지’의 작가 김시습이 살았던 당대의 현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이 일어났고 인제가 제대로 등용되지 않아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이다. 김시습은 이처럼 불의가 판을 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도(正道)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정치의 정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왕도 정치이다. 덕목을 갖춘 왕이 백성을 위하는 민본 정치를 해야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남염부주지’에서 염왕과 박생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김시습의 사상과 이상을 대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대변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된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염부주’는 김시습이 개혁하고자 했던 현실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 ①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는 공간으로 ‘염부주’를 형상화한 것은 부조리한 현실 세계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② 염왕이 말한 ‘훌륭한 장인’은 풍속을 교정하고 백성을 교화해 정치의 정도(正道)를 회복하기 위해 임금이 반드시 등용해야 하는 인재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염왕의 말을 통해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중시했던 작가의 민본주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④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염부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염왕의 말은 덕목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큰 변란이 일어나는데도 부질없는 명예만 좇는 ‘윗사람들’이 득세한 현실에 대한 박생의 비판은 당대의 현실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던 작가의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생’이 염부주의 왕이 되어야 하는 까닭을 밝히고 있다.
- ② ‘박생’이 ‘염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임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 ③ ‘박생’이 염부주를 태평하게 만들어줄 것이란 ‘염왕’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염왕’이 ‘박생’에게 신이한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전수해 주기 위해 지은 것이다.
- ⑤ ‘염왕’이 ‘박생’과 치국(治國)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룬 후에 ‘박생’에게 내린 것이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횡장(行裝)을 다 찢티고 석경(石逕)의 막대 디퍼
 빅천동(百川洞) 겨티 두고 만폭동(萬瀑洞) 드리가니
 은(銀) 닻튼 무지계 옥(玉) 닻튼 룡(龍)의 초리
 섯들며 썸는 소리 십리(十里)의 즈자시니 [A]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금강딤(金剛臺) 밍 우 층(層)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B]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의 첫 즘을 끼뚫던디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쓰니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셔 넘노는 듯
 쇼향노(小香爐) 대향노(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正陽寺) 진혈딤(眞歇臺) 고터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 진면목(眞面目)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C]
 늘거든 썬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논 듯 백옥(白玉)을 못것논 듯
 동명(東溟)을 박츠논 듯 북극(北極)을 꺾왓논 듯
 ㉠ 놉홀시고 망고딤(望高臺) 외로올샤 혈망봉(穴望峰)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닻트니 썬 잇는가
 기심딤(開心臺) 고터 올라 등향성(衆香城) 바라보며
 만이천(萬二千) 봉(峰)을 녀녀(歷歷)히 혀여흐니 [D]
 봉(峰)마다 밍쳐 잇고 굿마다 서린 기운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
 더 기운 흐터내야 인걸(人傑)을 뵈들고자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

* 서호 넷 주인 :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아 풍류를 즐겼다고 알려진 송나라의 임포를 가리킴.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간편한 차림으로 산에 올라 자연의 정경을 접했다.
- ② 화자는 '금강딤'에 올라 '쇼향노'와 '대향노'를 굽어보며 흥취에 젖었다.
- ③ 화자는 학이 자신을 반긴다고 여기며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냈다.
- ④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조물주의 숨씨가 뛰어나다며 감탄했다.
- ⑤ 화자는 '진혈딤'에 올랐다가 다시 '기심딤'에 올라 산봉우리들을 바라보았다.

44. <보기>의 입장에서 [A] ~ [D]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진경산수(眞景山水)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김창흡은 진경(眞景)을 그릴 때 '신정(神情)'을 얻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신정은 외물(자연)과 만날 때 일어나는 신령스러운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데,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줄 만한 것을 살리고 외적인 형상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생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을 그린다면 말의 형과 색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보다 말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여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관동별곡은 이와 같이 신정이 드러나는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신정이 드러나는 묘사는 압축과 생략을 동반하기 때문에 마치 띄엄띄엄 점을 찍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독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상상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머릿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고, 화자의 감흥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 ① [A]에서 화자가 폭포를 대했을 때 '룽', '눈' 등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폭포를 대했을 때 얻은 '신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B]에서는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과 학의 비상을 연결해 학을 대한 화자의 '신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학의 비상은 화자의 고양된 감흥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D]의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는 화자가 느낀 봉우리의 본질적 특성을 제시한 것으로 봉우리를 대했을 때 얻은 화자의 '신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④ [A], [C]에서는 각각 폭포와 산봉우리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점을 찍듯 제시하고 있는데, 독자가 그렇게 제시된 것들을 연결해 상상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 ⑤ [B], [D]에서는 공통적으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감흥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

4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적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화자는 자연의 모습에서 혼탁한 속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군.
- ③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자신이 지키며 살아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④ 화자는 자연물의 조화로운 모습에서 백성과 어울려 선정을 베푸는 임금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⑤ 화자는 속세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을 잊은 채 자연에 몰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국어 영역 B형 답안지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④	④	②	②	⑤	④	②	⑤	④	①	③	③	③	⑤	⑤	④	⑤	④	①	③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④	④	③	④	②	③	③	②	④	①	②	④	④	③	③	⑤	④	②	④	③
문항	41	42	43	44	45															
정답	②	④	②	⑤	③															

제 1 교 시



2015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A형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육 군 사 관 학 교

이
관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낙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혼난 적도 많은데요, 여러분도 뒷골목 벽이나 책상에 몰래 낙서해 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낙서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고 정제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 하지만 오늘 저는 낙서의 또 다른 얼굴, 그래피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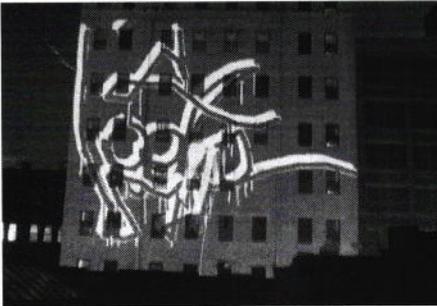


<자료 1>

여러분, 그래피티라는 말이 좀 낯설죠? 그래피티는 낙서를 예술로 만들어낸 하나의 미술 장르이자 기법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 이런 거, 하실 겁니다. (<자료 1>을 제시하며) 이처럼 그래피티는 벽에 페인트로 자유롭게 그리는 것으로, 미술관이 아닌 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피티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그라피아토(graffiato)로 ‘긁는다’는 뜻인데요, 긁거나 그리는 것은 그 연원이 원시 시대의 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오래된 표현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960년대 뉴욕 거리에 낙서들이 범람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위험

을 감수하면서까지 몰래 그래피티를 그리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것은 온갖 광고판들로 점령당한 도시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남기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도심 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래피티의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에 그래피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는 하나의 작업이 있습니다. ㉢ 여기를 보시죠. (<자료 2>를 제시하며) 2010년 8월 베를린 도심 건물에 그래피티가 그려지는 영상입니다. 잠시 감상해 볼까요? (시간을 준 후)



<자료 2>

이 작업은 레이저 포인터, 카메라, 프로젝터를 이용한 ‘디지털 그래피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건물 벽면에 그림을 그리면, 카메라와 프로젝터가 이 움직임을 캡처하는 동시에 건물 벽면에 투사하여, 보신 것처럼 우리 손이 그리는 대로 글자나 그림이 건물에 나타나게 되죠.

더구나 이 작업은 그래피티가 흔히 그려졌던 뒷골목이 아니라 고층 건물과 같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도되었습니다. 가상적이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한밤중에 그래피티를 그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표현의 도구를 제공한 셈이죠. 그것도 위압적인 도심 건물에 말입니다. ㉣ 상상만으로도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한 보신 대로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그래피티가 아니라 그래피티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손의 움직임을 재현한 점도 이 작업의 특별한 점이지요. 자판과 화면 터치 기능으로 퇴화하는 우리 손의 기능을 다시 일깨워 준 착한 테크놀로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그래피티와 디지털 그래피티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 저는 이러한 시도들이 삭막한 도심 공간의 숨통을 틔워 줄 거리 예술, 공공 미술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중 분석'에 따른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중 분석		발표 전략
낙서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친근감을 형성하고 공감의 폭을 넓힌다. ①
낙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	낙서의 부정적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고 그래피티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②
그래피티를 봤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	<자료 1>로 그래피티를 제시하여 청중의 경험을 환기한다. ... ③
그래피티라는 용어에 익숙지 않을 것이다.	⇒	그래피티의 어원을 언급하여 이해를 돕는다. ④
디지털 그래피티는 흔히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	<자료 2>로 실제 작품 영상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발표에서 다들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음 내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③ ㉢: 제안을 통해 청중의 주의를 시각 자료로 돌리고 있다.
- ④ ㉣: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 ⑤ ㉤: 발표를 마무리하며 전망을 덧붙이고 있다.

3.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굶거나 그리는 행위는 그 연원이 아주 오래되었군.
- ② 그래피티가 자유로운 정신을 상실한 것이 문제로군.
- ③ 도심 공간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그래피티는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군.
- ④ 디지털 그래피티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된 그래피티라고 할 수 있군.
- ⑤ 그리는 과정을 재현한 것은 디지털 그래피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군.

[4 ~ 5] 다음은 세 학생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민규 : 경아야, 먼저 와 있었구나. 시간 내 줘서 고마워.

경아 : 응, 할 말 있다더니 무슨 일이야? 지영이도 같이 왔네, 안녕?

지영 : 응, 오랜만이야.

민규 : 경아야, ㉠ 다름이 아니라 지영이랑 나랑 영화 토론 동아리 하는 거 알지? 우리 동아리에서 이번 여름 방학에 선생님들 모시고 토론회를 여는데 같이 하자.

경아 : ㉡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난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아. 영화는 혼자서 즐기는 게 더 좋거든. 그냥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나?

민규 : 영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은 점이 많아. 내가 놓친 장면의 의미도 생각하게 되고,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하는 데서 위안도 얻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거든. 이만한 공부가 없다 싶어. ㉢ 그렇지?

지영 : 응, 맞아. 더구나 이번 방학엔 영화와 문학을 주제로 하는데, 너 그 분야에 관심 많지 않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경아 : 그래? 음, 그래도 용기가 안 나네.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서툴기도 하고.

지영 :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너도 내 성격 알잖아.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

민규 : 난 방학마다 참여해서 이번에 다섯 번째인데 어떤 때보다 프로그램이 좋아. 네가 좋아하는 김○○ 선생님도 참석하실 건데. 우리 같이 하자.

경아 :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 볼게. ㉣ 그러나저러나 너흰 방학 때 다른 계획은 없니? 난 벌써부터 해야 할 공부 때문에 걱정이다.

지영 : 그러게 말이야. 나도 밀린 공부랑 과제물 때문에 정신없을 것 같아.

민규 : 다 그렇지 뭐. ㉤ 그건 그렇고, 그럼 영화 토론 같이 하기로 한 거다.

경아 : 그래, 알았어. 어떤 작품들이야?

4. <보기>를 참고할 때 ‘민규’와 ‘지영’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설득 전략은 화자, 청자, 메시지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우선 ㉠ 화자 측면에서는 화자의 권위, 지식, 열정, 경험 등이 화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여 설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청자 측면에서는 청자의 요구나 관심을 파악하고, 청자와의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 ㉢ 메시지 측면에서는 메시지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화자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① 민규가 ‘다섯 번째 참여’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② 민규가 ‘김○○ 선생님도 참석하실’ 것임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화자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③ 지영이가 ‘나도 처음엔 그랬’음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청자와의 심리적 일체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④ 지영이가 ‘영화와 문학을 주제로’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청자의 요구나 관심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⑤ 민규가 ‘위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의 화제를 제시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다른 대화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④ ㉣: 화제를 새로운 화제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 ⑤ ㉤: 맞장구를 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6~8] 다음은 학생이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장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학생 대의원 회의에서는 아침 독서 시간 운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정규 수업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고 있는 자율 학습 대신 전교생이 독서를 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과 공부에 바빠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하니, 우리 학교도 이를 도입하여 독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생활화하면 사고력과 창의력이 증진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은 저희들의 진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아침 독서 시간을 통해 전교생이 독서 습관을 키운다면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제안에 대한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니 학우들은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가 아침 독서 시간 운영에 관한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것에서, 작문은 공동체 구성원과 의 의사소통 과정임을 알 수 있다.
- ② 글쓴이가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제안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밝힌 것에서, 작문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지향적 활동임을 알 수 있다.
- ③ 글쓴이가 아침 독서 시간 운영에 관한 학생 대의원 회의 논의 내용을 서술한 것에서, 작문은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 과정이면서 회귀적 과정임을 알 수 있다.
- ④ 글쓴이가 학생들이 독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제안한 것에서, 작문이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글쓴이가 학생 대의원 회의의 결과에 따라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아침 독서 시간 운영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것에서, 작문이 사회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밑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학교 신문에 실린 기사 중 일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연평균 독서량은 14.1권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평소 책 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62.1%가 ‘학과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대답했으며, 21.7%의 학생이 ‘책 읽기 습관이 들어 있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

(나) ‘아침 독서 시간’ 운영에 관한 통계

1.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가?

(전국 초·중·고 학교 대상)



2. 아침 독서가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가?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대상)



(다) 전문가 인터뷰

“독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면서 독서가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으니까요. 최근에는 독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 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성인의 약 70%가 청소년기의 독서 습관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가정 및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독서 습관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학생들의 지속적인 독서 활동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 ① (가)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학생들이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독서 활동이 학생들의 진학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한다.
- ④ (가),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아침 독서 시간 운영을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강한다.
- ⑤ (나),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 아침 독서를 통해 형성된 독서 습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8. 한 학생이 <보기>에 따라 뒷글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1. 학생회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을 먼저 밝혀야지.
2. 제안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해야지.

- ① 우리 학교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싶어도 시끄러운 분위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피로울 때가 많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②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책을 찾아 읽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독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서를 통한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③ 저는 독서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책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떤 책을 골라서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가 중요하다고만 말할 게 아니고 독서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④ 아침 독서를 통해 책 읽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졸음을 쫓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도서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책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⑤ 아침 독서 시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자율 학습 대신 아침 독서를 하자는 제안은 학생 대의원 회의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의 생각일 뿐 우리들 모두의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학급 회의를 통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침 독서 시간을 운영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김누리 학생은 작문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쓰기'라는 과제를 수행했다.

※ 김누리 학생의 수필

이번 설 전날,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의 일이다.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귀엽게 생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 아기는 젓꼭지를 물다 이내 울음을 터트리곤 했는데, 주변 소리가 성가신 듯했다.

어느새 아기 웅가 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한다. 울음 끝에 일을 보고 만 것이다.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겠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한다.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 마치 파도타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그 모양이 꼭 냄새가 번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결국 직원이 가서 무슨 말을 하자 아저씨는 화를 내며 아기를 안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집에 돌아오는 길, 어머니께선 ㉡ 고약한 냄새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마트 직원들이 곤란했겠다며, 아저씨의 에티켓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 꼼꼼히 생각해 보니,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았다. 명절 선물을 사려고 했을 테지. 엄마는 왜 없었을까. 엄마가 있었다면 수유실로 갔겠지. 그렇지만 웅가는…… 그래, 그 마트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없었다. 그렇다고 변기 뚜껑 위에 아기를 눕힐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아저씨는 모유 수유실도,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다. 모유 수유실도 기저귀 교환대도 없었지만, 엄마들이 뒤돌아 앉아 아기들의 배를 채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줄 만한 공간은 어디든 있었으니, 널린 게 요람이었다. 우선은 도시 공공시설에 아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실을,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확대해야겠지만, 그런다고 계절이 돌아오듯 아기들이 행복했던 시절이 돌아올까. 아기 전용 공간이 늘어나지만 도리어 아기에게 허용된 공간은 줄어들고 있는 이 ㉣ 케변에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야 했다.

가장 행복했어야 하는 존재지만, 충분히 배려 받지 못했던 그 아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물론 그 아저씨에게 뭐라 말을 건넬던 직원처럼 우리도 할 일은 해야 하겠지만, 힘차게 기저귀를 풀어헤치던 아저씨의 당당한 모습 뒤로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모습이 떠올랐다. 아, 그 사이에 내가 있었구나!

9. 다음은 뒷글을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전략과 구체화 방안이다. 뒷글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 글쓰기 전략 >	< 구체화 방안 >
사건을 새롭게 해석한다.	⇒ • 사건을 아저씨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 ①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 • 현재형 종결 표현과 동작 묘사를 통해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한다. ② • 비유법을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인다. ③
성찰한 내용을 제시한다.	⇒ •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예상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④ • 평범한 사건에 내재해 있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밝힌다. 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한편’으로 고쳐 쓴다.
- ②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로 고쳐 쓴다.
- ③ ㉢은 맞춤법에 맞도록 ‘곰곰이’로 고친다.
- ④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역설’로 바꾼다.
- ⑤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11.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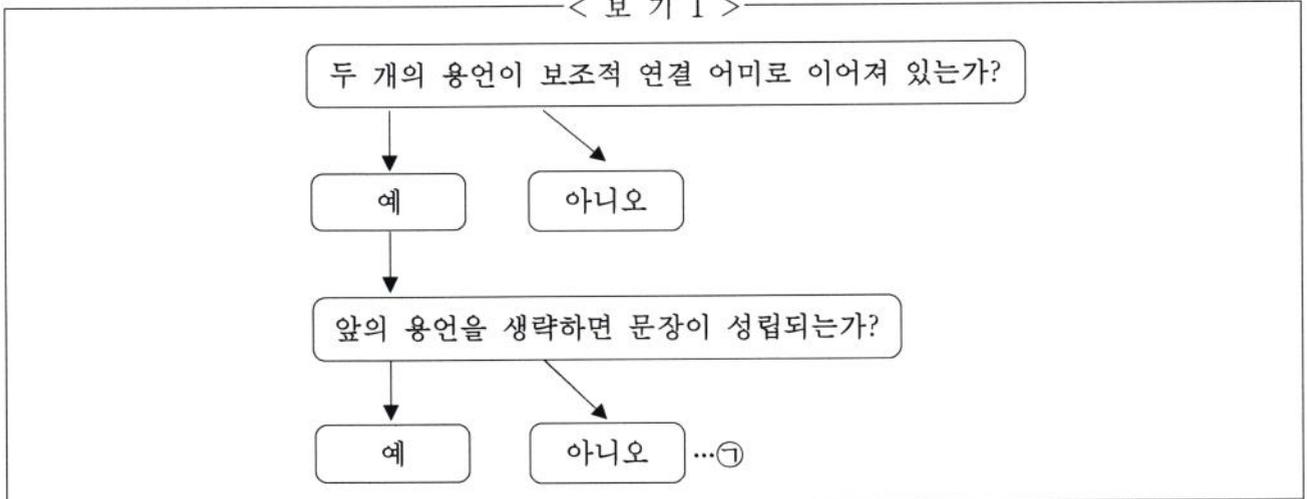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발이랑[반니랑] · 늦여름[느너름] · 술하다[수타다]
- 국물[궁물] · 좋으면[조:으면]

- ① ‘발이랑’이 발음될 때에는 첨가되는 ‘ㄴ’으로 인해 앞의 자음이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늦여름’이 발음될 때에는 ‘ㄷ’이 탈락하면서 ‘ㄴ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가 발음될 때에는 ‘ㅌ’이 ‘ㄷ’으로 교체된 후 이어지는 음운과 만나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국물’이 발음될 때에는 ‘ㄱ’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좋으면’이 발음될 때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나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12. <보기 1>은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구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 2>의 ㉠~㉤ 중에서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1 >



< 보 기 2 >

- 그 종이는 휴지통에 잘 ㉠ 찢어 버려라.
- 나도 책을 많이 ㉡ 읽고 싶다.
- 잠은 집에 ㉢ 가서 자야지.
- 그것만 좀 더 ㉣ 먹어 보자.

- ① a, b
- ② a, c
- ③ a, d
- ④ b, c
- ⑤ b, d

1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1 > —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는데, 이는 크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 보 기 2 > —

오늘은 ㉠ 날씨가 아주 덥다. 하지만 큰맘 먹고 집을 나선 이상, ㉡ 지금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는 ㉢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 순간 ㉤ 소리도 없이 다가온 자전거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 ① ㉠: 앞의 주어틀 고려할 때 안은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
- ② ㉡: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명사절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 안은문장과의 공통 주어가 생략되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다.
- ④ ㉣: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주체의 말이나 생각을 읊기는 인용절이다.
- ⑤ ㉤: 부사형 어미 ‘-이’의 도움을 받아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14. 다음은 ‘이르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르다¹ [이르러, 이르니] 「동사」
 ㉠ [...에]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 [...에]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이르다² [일러, 이르니] 「동사」
 ㉢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하다.
 ㉣ [...을] [...에게 ...을] [...에게 -고] [...에게 -도록] 타이르다.
 ㉤ [...에게 ...을] [...에게 -고] 미리 알려 주다.
 ㉥ [...에게 ...을] [...에게 -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윗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
 ㉦ [...에게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르다³ [일러, 이르니] 「형용사」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거나 앞서다.

- ① ‘이르다¹’, ‘이르다²’, ‘이르다³’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니 동음이의어이군.
- ②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둘 다 다의어이군.
- ③ ‘이르다¹’과 ‘이르다²’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활용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④ ‘이르다¹’ ㉠과 ‘이르다²’ ㉢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군.
- ⑤ ‘이르다³’의 용례로 ‘그는 항상 나보다 빨리 결승점에 이르렀다.’를 들 수 있겠군.

15. 다음의 ㉠~㉥에 사용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선생님 아까 수업 마치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던데.
㉡	<가게 점원이 손님에게>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고모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	<학교 후배의 집에 전화한 선배가 후배의 초등학생 아들(철호)에게> 철호야, 잘 있었어? 아저씨인데, 아빠 지금 집에 계시니?
㉤	<장모가 사위에게> 잘 가게.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 조심하게.

- ① ㉠: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말하고 있다.
 ② ㉡: ‘나오셨습니다’는 ‘커피’를 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접 높임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나왔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
 ③ ㉢: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특수 어휘 ‘잡수시다’를 통해 높여 말하지만,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인 고모에 대해서는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고 있다.
 ④ ㉣: 화자의 후배이지만 청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높여 말해야 하는 아버지이므로, 화자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후배를 높여 말하고 있다.
 ⑤ ㉤: 화자인 장모는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접적으로 낮춰 말하기가 어색하므로 두루 높임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높여 말하고 있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흔히 방언을 한 언어의 하위에 속하는 변이형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몇 개의 사례만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 인식이 그다지 명료하지 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는 별개의 언어인가, 아니면 영어라는 한 언어의 방언들인가? 또한 호주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아마도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기준만을 가지고는 대상 언어가 개별 언어인지 아니면 한 언어의 하위 방언인지를 명료하게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의 특히 유럽의 많은 언어학자들은 언어와 방언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이 둘을 ‘코드(code)’라는 하나의 중립적인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어,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등이 모두 동일한 자격으로 이 코드에 해당되는 것이다. ‘코드’는 방언이라는 용어에 숨어 있는 부정적 함축은 물론 언어와 방언 간의 모호한 계층 관계로 인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에 따라 코드는 세계의 언어학계에서 언어와 방언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는 보통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개의 코드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현재 처한 사회적 상황이나 담화 맥락 등을 고려하여 특정 코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코드 선택(code choice)’이라 한다. 이 코드 선택은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코드 선택과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개별 화자가 대화 참여자나 화제 등과 같은 미시적인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지로 특정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재미 교포 학생이 학교에서 한국 친구와 대화할 때 한국어와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나 회사원이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후자는 국가가 자국의 언어 상황이나 정치·경제적 이익 관계 또는 국제 외교 관계 등의 거시적 차원을 고려하여 특정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 최근 우크라이나에 친유럽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크림 반도를 러시아군이 장악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감의 표시로 자국 내에서 러시아어가 가지고 있던 제2공식어로서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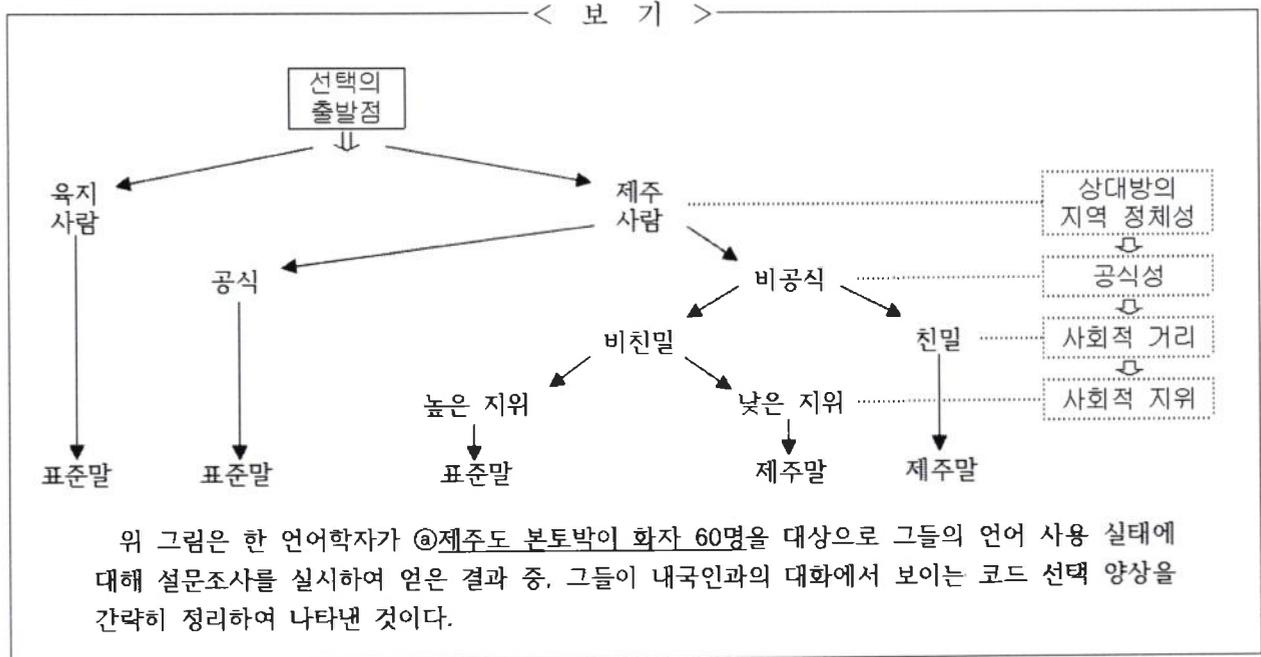
또한 우리는 이미 특정 코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다른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화자가 이제껏 사용해 왔던 코드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현상을 ‘코드 전환(code switching)’이라 한다. 이 코드 전환은 그것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에 따라 상황적 코드 전환과 인식적 코드 전환의 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상황적 코드 전환은 대화 참여자, 화제, 맥락 등과 같은 담화 구성 성분의 변화, 즉 외적 동기에 의해서 화자가 다른 코드를 새로이 선택하게 될 때 발생한다. 딸과 표준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한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의 고향 방언인 경상도 말을 사용해 통화하는 모습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식적 코드 전환은 비록 담화 구성 성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화자가 전략적으로 특정 의사소통 효과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 즉 내적 동기에 의해서 다른 코드를 사용하게 될 때 발생한다. 표준말로 강의를 하던 선생님이 학생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내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언을 사용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공식적으로 한국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언어와 방언 사이의 위계 관계도 비교적 명료하기 때문에 코드 개념이 아직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수가 점점 늘어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코드들이 상호 접촉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이제는 우리에게도 개인적 차원의 코드 선택이나 코드 전환 또는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에 관한 문제들이 머지않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1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언어학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언어와 방언을 명료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 ②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은 언어나 방언 대신 코드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개별 화자들은 사회적 상황이나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특정 코드를 선택해 사용한다.
- ④ 대부분의 화자들은 담화 구성 성분상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상황적 코드 전환을 한다.
- ⑤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드 선택이나 코드 전환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17.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표준말과 제주말의 두 가지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군.
- ② 상대가 제주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표준말을 사용하는군.
- ③ 네 개의 담화 고려 요소 중 상대와의 사회적 지위 관계를 제일 먼저 고려하는군.
- ④ 제주 사람과의 대화 중에 공식성이 변화하게 되면 코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겠군.
- ⑤ 상대와의 사회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가깝게 조정하기 위해 코드 전환을 할 수도 있겠군.

18. 밑글을 읽은 독자가 ㉡의 상황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도 별개의 언어인지 아니면 한 언어의 방언인지가 불명확했군.
- ②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어보다 러시아어를 코드 선택해서 사용하는 이가 더 많았겠군.
- ③ 우크라이나는 언어가 아닌 정치,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을 하였군.
- ④ 러시아에는 러시아어에서 우크라이나어로 상황적 코드 전환을 시도하는 이가 거의 없었겠군.
- ⑤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어에서 러시아어로의 인식적 코드 전환이 자주 발생하겠군.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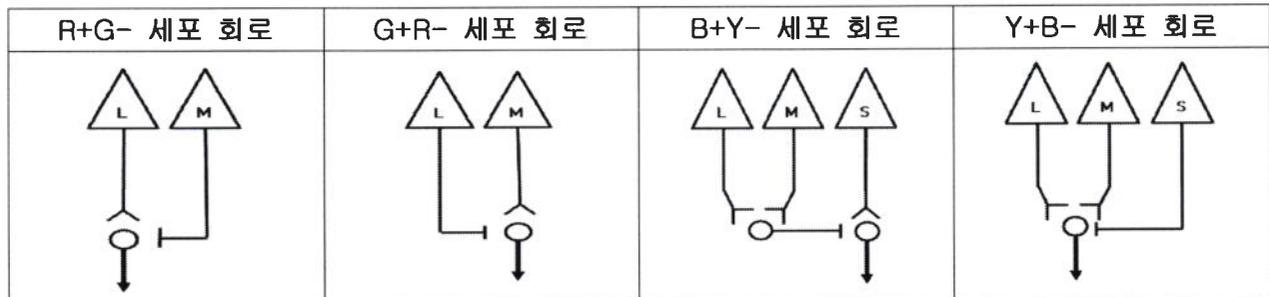
인간의 색 지각 과정은 망막의 추상체에서 시작된다. 추상체는 감광 색소에 따라 L, M, S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L 추상체는 빛의 스펙트럼 중 적색(R)에 가까운 장파장에서, M 추상체는 녹색(G)에 가까운 중파장에서, S 추상체는 청색(B)에 가까운 단파장에서 빛을 최대 흡수하고 주변 파장으로 갈수록 빛 흡수율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추상체가 빛을 흡수함으로써 전기적으로 흥분하여 신호를 방출할 때, 우리는 빛을 지각할 수 있다. 예컨대 황색은 L, M 추상체가 크게 흥분하고 S 추상체가 조금 흥분할 때 지각되는 색이다. 반대로 청색은 S 추상체가 크게 흥분하고, L, M 추상체가 조금 흥분할 때 지각되는 색이다. 세 개의 추상체가 모두 강하게 흥분할 때에는 백색이 지각되는데, 이는 청색 빛과 황색 빛을 겹쳤을 때 백색광이 지각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L, M, S 추상체의 발견은 적, 녹, 청 삼원색 이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삼원색 이론은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의 경우, 파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달린 세 개의 광원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 이론은 인간에게 빛을 지각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으며, 색상이 빛의 파장에 내재한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색 지각의 다음 단계는 망막에 분포된 신경절 세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백만 개의 신경절 세포들은 7백만 개의 추상체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수렴하여 기초적인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연산이 가능한 것은 추상체에서 서로 이르는 수직적 경로의 각 요소들마다 그것들을 상호 연결하는 수평적 연결이 더해져 일종의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수평적 연결은 수직적 연결을 따라 흐르는 전기신호를 통과시키기도 하고, 합산하여 흥분시키기도 하며, 감산하여 억제시키기도 한다.

이 회로들의 기능은 대립과정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일찍이 실험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착시 현상을 관찰하였다. 적색 물체를 오랫동안 응시한 후 흰색 배경을 바라보면 녹색 잔상이 남는 착시 현상이 생기고, 그 반대로의 착시 현상도 생기며, 청색과 황색의 조합에서도 그러했다. 이러한 실험에서 주어진 색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잔상의 색은 ‘억제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설명되었고, 이는 적색과 녹색에 대한 지각과 청색과 황색에 대한 지각이 각각 단일한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가설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설은 대립쌍의 한 쪽 빛에는 흥분하고 다른 쪽 빛에는 흥분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아래 네 가지 신경절 세포 회로의 발견으로 증명되었다. 이 회로들은 선택적인 신호처리를 통해 색의 번짐을 막음으로써 사물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 삼각형은 L, M, S 추상체를, 원은 신경절 세포를, 화살표는 색 지각 정보가 신경절 세포의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人 기호는 흥분성 연결을, ⊖ 기호는 억제성 연결을 의미한다. 세포 회로의 이름은 적(R), 녹(G), 청(B), 황(Y) 네 가지 색에 대해 흥분성(+)으로 반응하는지, 억제성(-)으로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단순화를 위해 다른 요소들은 생략하였다.

이 회로 그림을 놓고 황색(Y) 빛이 눈에 들어올 때 ‘Y+B-’ 회로의 반응을 살펴 보자. 앞서 설명했듯, 황색은 L 추상체와 M 추상체를 크게 흥분시키고 S 추상체를 조금 흥분시킨다. 그 결과 L, M 추상체에서 모인 큰 전기 자극이 흥분성 연결(+)을 통해 더해지고, S 추상체에서 발생한 작은 전기 자극이 억제성 연결(-)을 통해 감해져, 최종적으로는 흥분성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포 회로들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에 대해 서로 다른 신호의 조합들을 만들어 뇌로 보내게 된다.

19. 빛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색상은 빛의 파장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 ② L, M, S 추상체가 모두 강하게 흥분하면 백색이 지각된다.
- ③ 수평적 연결은 수직적 연결을 따라 진행되는 전기신호를 조절한다.
- ④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빛의 조합으로 모든 색상을 만들 수 있다.
- ⑤ M 추상체는 중파장에서 빛을 최대 흡수하고, 주변 파장으로 갈수록 빛을 덜 흡수한다.

20. 빛을 참고할 때 <보기>의 ㉠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전자눈은 인간의 눈을 모방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눈을 말한다. 인간에게 이식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전자눈이 되기 위해서는 ㉠ 생체 눈의 구조와 기능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전자눈은 조악한 수준이다. 외양과 크기는 그럴싸하지만 망막의 형태를 모방하여 RGB센서*들이 집적된 감광장치를 곡면 모양으로 만들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 RGB 센서: 적색(R), 녹색(G), 청색(B) 빛을 받아 전기 신호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R, G, B 센서는 각각 생체 눈의 L, M, S 추상체에 대응한다.

- ① 개별 센서들의 신호를 연산하는 회로를 만들어 감광장치에 넣는다.
- ② R, G센서를 연결하여 B센서와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회로를 만든다.
- ③ 개별 센서에서 뇌로 향하는 수직적 연결에 수평적 연결을 가미한다.
- ④ 대립과정 이론을 적용하여 사물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⑤ 눈의 추상체 개수만큼 RGB센서를 확보한 후 이를 일대일로 뇌에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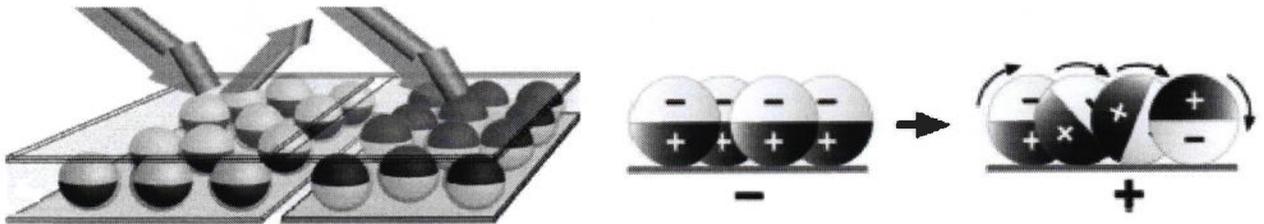
21. 적색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세포 회로의 반응을 옳게 제시한 것은?

	R+G- 세포 회로	G+R- 세포 회로	B+Y- 세포 회로	Y+B- 세포 회로
①	흥분	억제	흥분	억제
②	흥분	억제	억제	흥분
③	흥분	흥분	억제	억제
④	억제	흥분	흥분	억제
⑤	억제	억제	흥분	흥분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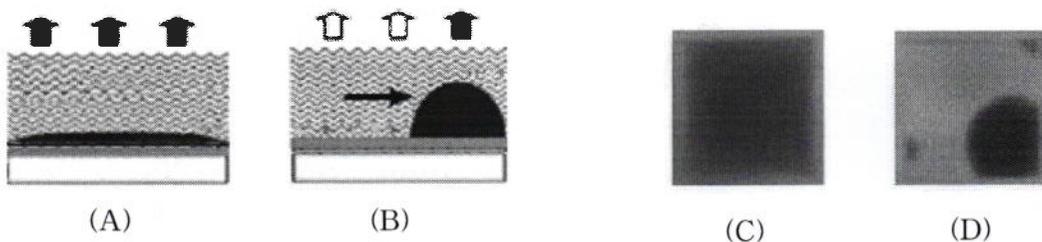
전자종이(Electronic Paper)는 종이처럼 얇은 재질과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정보의 저장, 변환 및 송수신 등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달리 전자종이는 기기 내부에 발광을 위한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반사형 디스플레이로서 외광이 강한 야외에서도 읽기에 편리하며 낮은 전력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갖는다. 아울러 유리 기판을 사용하는 LCD와 비교할 때 다양한 기판에 구현이 가능하여 경량화 측면에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전자종이 관련 기술 중 하나로 전기영동 방식이 있다. 전기영동이란 유동성 매체 내에서 전하를 띤 물질들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림 1>과 같이 두 패널 사이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띤 흰색과 검은색을 가진 반구를 합한 회전 공을 투명한 유체와 함께 분산시킨다.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공들이 회전하여, 흰색 부분이 위로 오면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 부분이 위로 오면 빛을 흡수하므로 원하는 영상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한번 디스플레이 되고 나면 전압을 제거한 후에도 다른 전압을 가하여 다른 디스플레이 내용으로 바꿀 때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므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전압을 가해도 공의 위상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어 이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특정 전압을 찾기가 어렵다. 만일 구동 전압이 너무 클 경우 공이 회전보다 직진을 먼저 하게 되어, 부분 회전한 상태로 안정화되는 등 구동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또한 공은 유체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점과 컬러 표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색 필터가 필요하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림 1>

또 다른 전자종이 기술로 전기습윤 방식을 들 수 있다. 전기습윤 방식은 전압을 가하면 물의 표면 장력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물 분자는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금속에는 더 끌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림 2>와 같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흰색 기판 위에 소수성 물질(절연체)을 코팅하고 (A)와 같이 물과 컬러 기름을 셀에 넣는다.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물이 기판 쪽으로 끌리면서 퍼지게 되어 기름 층을 한쪽으로 밀치게 되므로 (B)와 같이 기름이 뭉치게 된다. (C)와 (D)는 각각 (A)와 (B)를 위에서 본 그림이다. 기름이 밀쳐진 부분은 빛을 반사하므로 흰색으로 표현되게 된다. 이때 가해지는 전압 차가 클수록 기름 층이 좁은 영역으로 모이게 되므로 전압 차를 조절해 진하기를 달리할 수 있다. 기름 층은 들어오는 빛의 크기를 조절하는 셔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색을 표시하는 색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전기습윤 현상의 속도는 매우 빠르므로 전기습윤 디스플레이는 속도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기름 층과 물 층의 유체 층을 안정적으로 주입 및 보존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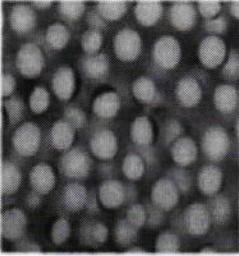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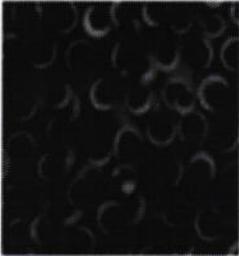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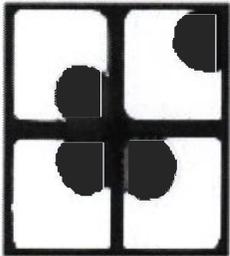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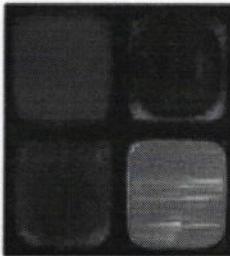
<그림 2>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자종이는 외광이 강한 곳에서도 읽을 수 있다.
- ② 전기영동 방식의 회전 공은 직진은 하지 않으며 회전만이 가능하다.
- ③ 전기습윤 방식에서 전압을 가하면 물이 기관 쪽으로 끌리면서 퍼진다.
- ④ 전기영동 방식에서 회전 공의 반응 속도는 유체의 저항에 영향을 받는다.
- ⑤ 전기습윤 방식은 기름 층이 퍼진 정도에 따라 진하기가 다르게 표현된다.

23. 윗글과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적절한 설명만을 고른 것은?

— < 보 기 1 > —

(가) 전기영동 방식		(나) 전기습윤 방식	
㉠	㉡	㉢	㉣
			
회전 공의 흰색 반구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음.	회전 공의 검은색 반구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음.	컬러 기름이 한쪽에 뭉쳐 있음.	컬러 기름이 전체에 퍼져 있음.

— < 보 기 2 > —

㉠ (가)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게 할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 (나)의 전압 차를 높이면 ㉢의 원 모양이 작아진다.
 ㉢ ㉠의 상태에서 전압을 해제하면 ㉡의 상태로 변한다.
 ㉣ ㉢의 상태에서 전압을 해제하면 ㉣의 상태로 변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판단은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감상이나 판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거나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덜 발달되었을 수도, 더 세련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흄(D. Hume)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흄은 예술적인 판단이란, 색이나 맛과 같은 지각 가능한 성질에 대한 판단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 <돈키호테>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마을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기고 있었는데 두 명의 '전문가'가 불평을 한다. 한 사람은 쇠 맛이 살짝 난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가죽 맛이 향을 망쳤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지만, 포도주 통 밑바닥에서 가죽 끈에 묶인 녹슨 열쇠가 발견되었다. 이 전문가들은 마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었던 포도주 맛의 요소들을 식별해낸 셈이다.

이는 예술적인 식별과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나 화음의 구성을 구별해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구도나 색 또는 명암의 대비, 중요한 암시를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세련된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또는 좋은 비평을 읽음으로써 계발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적 판단이나 식별이 계발될 수 있다 해도 의문은 남는다. 포도주의 맛을 알아챈 전문가들에게는 가죽 끈에 묶인 녹슨 열쇠가 있었지만, 예술 비평가들의 판단이나 식별이 올바르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흄은 '진정한 판관(true judge)'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흄이 말한 진정한 판관은, 세련된 감수성과 섬세한 감각을 가졌으며 부단한 연습과 폭넓은 경험으로 식별력을 키운 사람이다. 그리고 편견이나 편애와 같은 작품 외적 요소들에서 벗어나 있으며, 당대의 일시적인 유행에도 거리를 두고 작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술 작품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흄은 '시간의 테스트'를 넘어서, 즉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가로질러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들에 주목하였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 태도들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에 매혹되어 온 최고의 비평가들이 있어 왔다.

이처럼 예술 비평가들의 판단과 식별의 타당성은 이들이 갖춘 비평가로서의 자격, 이들이 알아보고 매혹된 위대한 작품들의 존재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흄의 생각은 분명 그럴듯한 점이 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조, 고야, 렘브란트의 작품을 그 작품들이 창조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감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작품이 지닌 힘과 위대함을 증명해준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 자격을 갖춘 비평가들, 심지어는 최고의 비평가들에서조차 비평의 불일치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흄은 이러한 불일치를 낳는 두 개의 근원을 지적했는데, 비평가 개인의 성격적인 기질의 차이가 그 하나이다. 또한 자격을 갖춘 비평가라 할지라도 자기 시대의 특정한 믿음이나 태도, 가정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불일치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살아있던 당시에는 갈채를 받았던 예술가의 작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곤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에게든 자격을 갖춘 비평가에게든 그런 작품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졌던 호소력은, 그 시대에만 특별했던 태도나 가정에 의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흄의 견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 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흄의 견해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 ③ 제기된 의문들과 관련하여 흄의 견해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④ 흄의 견해에 근거하여 통상적인 의문들에 내포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다.
- ⑤ 흄의 견해에 근거하여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기존의 답변들을 비판하고 있다.

25. 밑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 오늘날 세계적으로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는 마티스, 고갱과 같은 ㉠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처음 전시되었을 당시, 이들은 ㉡ 소수의 비평가들을 제외하고는 ㉢ 학계와 전문가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당했다.

B: ㉣ 프랭크 브랭컨은 산업 윤리, 대영제국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이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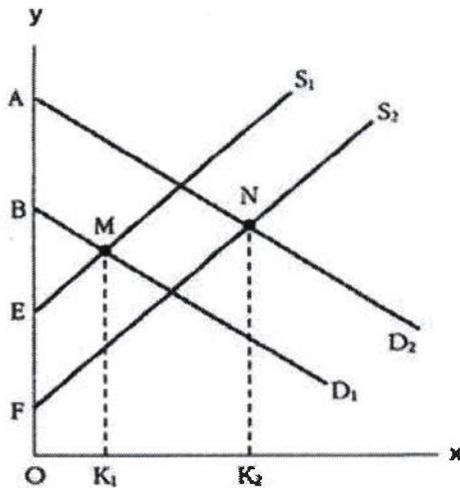
- ① ㉠에 대한 ㉡와 ㉢의 반응은 비평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② ㉠과 ㉣를 통해 예술적 판단과 식별이 계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 ③ ㉡는 ㉠의 가치를 알아본 '진정한 판관'이라 할 수 있다.
- ④ ㉣는 '시간의 테스트'를 넘어서지 못한 작가라 할 수 있다.
- ⑤ ㉤는 자기 시대의 특정 태도나 가정에 밀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6. ㉠에서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마을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비웃었다.
- ② 마을 사람들은 포도주 맛의 요소들을 식별하지 못했다.
- ③ 포도주 통 밑바닥에서 가죽 끈에 묶인 녹슨 열쇠가 발견되었다.
- ④ 포도주의 이상한 맛에 대한 '전문가'들의 원인 진단이 서로 달랐다.
- ⑤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포도주 맛에 대해 불평을 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자본 이론은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의 생산적인 힘을 인간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 그로 인해 포기된 소득 등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파악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게 결정되는 것은 인간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림>

인간자본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게리 베커로,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베커의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르면, <그림>에서 x축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을 나타내며 y축은 수요곡선일 때는 ‘한계수익’을, 공급곡선일 때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한계수익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 값이며 한계비용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값이다. 수요곡선 D는 우하향하는데 이는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량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기 때문이고, 공급곡선 S는 우상향하는데 투자량에 대한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D₂는 D₁보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이며 S₂는 S₁보다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다. 수요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 D₂의 값 A가 D₁의 값 B보다 큰 것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급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의 S₂의 값 F가 S₁의 값 E보다 작은 것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비용은 부유한 사람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한계수익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는 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 때,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수요곡선의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되며 인간자본 투자의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랫부분의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인간자본 투자의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D₁의 수요곡선과 S₁의 공급곡선을 가진다면 K₁까지 투자를 하므로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OBMK₁, 총비용은 OEMK₁이므로 순이익은 BEM이 된다.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라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투자 기회 측면에서의 공급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수요 조건, 즉 동일한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면의 차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은 능력이 적은 사람의 수요곡선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소득 격차는 불가피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없다.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은 모든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비슷하므로 같은 양의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고 본다. 부유한 사람은 유리하게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 가난한 사람의 공급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이것이 곧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축을 도출하게 한다.

㉠ 베커로 대표되는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자들은 인간자본 이론을 지배적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행정가들이 이 이론을 정책 입안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회'가 '나회'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가회'의 능력이 '나회'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 ② '가회'는 '나회'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 ③ '가회'와 '나회'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대안으로는 교육 기회 보장 정책이 있을 수 있다.
- ④ '다회'와 '라회'는 타고난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
- ⑤ '라회'는 '다회'에 비해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적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

30. <보기>를 근거로 하여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인도에서는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하위 계급 노동자는 상위 계급의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같은 인간자본을 획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는다. 하위 계급 노동자가 상위 계급의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인간자본이 충분한 노동자라고 해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 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교육을 통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인간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 ③ 노동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 등에 대한 파악 없이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 ④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회 구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 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인간의 지식과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목이 휘인 채 꽃 진 꽃대같이 조용히 춘향이는 잠이 들었다. 칼 위에는 눈물방울이 어룡져 꽃 이파리의 겹쳐진 그것으로 보였다. 그렇다, 그것은 달밤일수록 영롱한 것이 오히려 아픈, 꽃 이파리 꽃 이파리, 꽃 이파리들이 되어 떨고 있었다.

[A] 참말이다, 춘향이 일편단심(一片丹心)을 생각해 보아라. 원(願)이라면, 꿈속엔 홀룡한 꽃동산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을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슬기 다음에는 마치 저 하늘의 달에나 비길 것인가. 한결같이 그 둘레를 거닐어 제자리 돌아오는 일이나 맘대로 하였을 그것이다. 아니라면, 그 많은 새벽마다를 사람치고 그렇게 같은 때를 잠 깨일 수는 도무지 없는 일이란 말이다.

- 박재삼, '화상보(華想譜) - '춘향이 마음' 초(抄)' -

31.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춘향이의 마음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 있다.
- ② 화자는 다양한 관점으로 춘향이의 마음을 추측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춘향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이상을 발견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춘향이의 모습을 묘사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 ⑤ 화자는 춘향이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칼'은 '춘향'이 현재 처한 상황을 알려준다.
- ② 1연에서 '춘향'을 '꽃'에 비유함으로써 '눈물방울'은 '꽃 이파리'로 이어진다.
- ③ 1연의 '잠'은 2연의 '꿈속'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④ 2연의 '아니라면'은 1연의 '그렇다'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 ⑤ 2연의 '참말이다'는 '춘향'에 대한 서술의 진정성을 강화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대상의 부재는 주체의 감정과 태도, 내면 공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움'은 공간을 뛰어넘어 부재하는 대상에 닿고자 하는 확산의 감정이며, '기다림'은 그 대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정지의 의지이다. 이러한 확산의 감정과 정지의 의지가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주체의 내면 공간은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원형(圓形)을 이루게 되며, 주체는 그 원형적 공간의 둘레를 돌 수밖에 없다.

- ① '춘향'의 '일편단심'은 확산의 감정과 정지의 의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정서라 할 수 있다.
- ② '슬기'는 '춘향'의 감정과 태도의 상호 작용이 소멸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하늘의 달'은 원형적 순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미지라 할 수 있다.
- ④ '둘레를 거닐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꽃동산'은 '춘향'의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⑤ '같은 때를 잠 깨'인다는 것은 행위의 순환과 반복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 초까지 아버지는 시내 공립 중학교의 서무과장이었다. 그런데 작년의 학기말을 끝으로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 점은 순전히 엄마 탓이었다. 엄마는 아버지 학교의 공금을 빼내 썼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처음부터 엄마의 농간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공금을 빼내어 사용(私用)으로 쓰다니. 평생원인 아버지는 슛제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 비단 그 문제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아버지는 소심하고 웅졸했다. 말이 없고 겁이 많았다. 이를 아버지는 전쟁 탓으로 돌렸다. 언젠가 아버지는, 고향을 잃을 때부터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구멍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고 자탄했다. 그러나 고향을 잃고 살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유는 타당치가 못했다. ㉠ 아버지는 저 유명한 금강산을 끼고 있는 강원도 통천군 두백리가 고향이었다. 들은 바로는 그곳에 배 열 척과 큰 어장까지 가진 재력 있는 수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방 전에는 일본서 전문학교까지 다녔다. 해방 후로는 서울서 대학에 적을 두었다. 전쟁이 나던 해 유월, 약혼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올라간 것이 그만 발이 묶여 버렸다. 그해 칠월 아버지는 고향서 징집을 당해 인민군 소위로 참전했다. 지난 봄, 어느 날 아버지는 나도 끼인 자리에서 형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나 난 공산주의가 원래 새, 생리에 맞지 않았어. 객관적으로 어느 주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그들은 매사에 너무 과격했거든. 마치 사나운 맹수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을 집단으로 기, 길들이려 덤벼 들었어. 그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로 버려 두지 않았다니깐. 혁명, 투쟁, 반동, 처단 아, 단어만 드, 들어도 얼마나 끔찍하니. 사람이란 다 개성이 다름으로 해서 가, 각자의 꿈과 소망이 다르듯, 그런 자유와 창의력을 나는 존중하지. 또 너들이 알다시피 인간이 생산과 노동 이외 사색도 피, 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꺾었다.

“아버진 역시 사색파시다, 이 말이시겠쵸. 너무 사색이 깊으셔서 결단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꺾테기. 오히려 소나 말처럼 잘 길들여진,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끔찍 못 하는 노예…….”

이제 형이 내 말을 꺾었다.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전쟁의 희생자야. 통일을 못 이루는 이 분단의 현실이 아버지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갔어. 요컨대 아버지 삶의 근간을 끊어 버린 거야.”

“형, 잠깐만” 하고 내가 말했다. “교과서에서도 노래삼아 나오는 통일, 통일이란 말은 귀에 못이 박일 정도야. 그런데 뭐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다시피 지금 이 상태에서 저쪽 놈들과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 선생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한 무력의 길 이외는 통일이 힘들다고 말했어. 나도 동감이야.”

“힘들기는 히, 힘들지. 그러나 누가 지금 토, 통일의 길을 포기하고 있어? 남북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통일을 막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아버지는 머리를 쭈뼛쭈뼛 흔들며 말했다.

[A]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지요. 아버지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통일을 위해 누가 전쟁을 원해요?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몇 할이 전쟁을 원하고 있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망쳐 버려요. 차라리 전쟁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아요.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너희 세대는 왜 통일이 중요한지 몰라.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한 건 순전히 교육 탓이야.” 형이 강한 어투로 내 말을 반박했다.

“교육 탓만은 아니야. 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 사회가 저 저, 젊은 애들을 다른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게 하는 거야.”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말을 둘러댔다.

“저는 통일이 절실하다고 외치는 아버지나 형이 되기보단 차라리 통일을 모르는 쪽이 좋아요. 그리고 두 분을 절대로 닮지 않겠어요.” 내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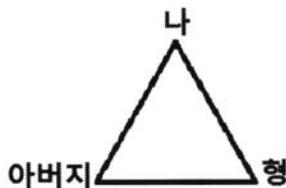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네 생각은 정직하지 못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아버지의 그 말에는 잘못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정직과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빼낸 공금을 보름 안으로 메워 놓겠다는 엄마의 허튼 약속을 절대 믿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파산, 집단 자살, 그것도 아니라면 나 혼자 감옥에 가거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극단적인 위협조차 사양치 않았다. 그렇게 협박과 울음을 섞어 아버지를 설득시킨 것이다. 그 결과 겨우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돌아왔다. “이건 나, 낱강도다. 이젠 나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끝장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방으로 건너와 형과 나를 잡고 투정했다. 엄마는 그 돈으로 깨어지려는 계를 겨우 수습한 모양이었다. 아버지와 약속한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엄마는 그 돈을 메워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안절부절못했다. 엄마도 안달이었다. 이제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 부정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로써 아버지의 스물네 해 공직 생활은 불명예로 끝났다. 퇴직금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구멍을 막기에는 모자랐다. 나머지 돈은 엄마가 어떻게 융통한 모양이었다. 학교에서 송별회를 마치고 오던 날, 아버지는 우리들 앞에서 오랜만에 울었다. 그러나 끝내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암탉이 울면 지, 집안이 망한다더니 끝내 그 꼴을 보, 보고 말았구나.” 한숨 끝에 이 말을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좋게 말해 아버지는 제상에 오른 선한 양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아버지는 집 안에 들어앉고 말았다. 매달 일만천 원씩 나오는 삼급 상이용사 연금이 이제 아버지의 유일한 벌이었다. 그러나 역시 엄마는 수완가였다. 엄마는 우리 식구를 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았다. 물론 끼니를 거르게 만들지도 않았다. 엄마의 능력으로 우리 식구는 그런대로 옛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직 경제권이 전폭 엄마에게로 옮겨 간 점이 달랐다. ㉠ 아니, 전에도 경제권은 엄마가 쥐고 있었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보기>의 ㉠를 설명하기 위한 단서를 [A]에서 찾았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윗글에서 [A]는 현실 문제와 관련하여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나'는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술자이기도 하다. 이는 현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 하나의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작가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다는 '나'의 생각은, '형'에 의해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진단된다.
-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냉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치부된다.
- ③ '분단'이 아버지의 '삶의 근간'을 빼앗아갔다는 '형'의 생각은, '나'에 의해 '무력의 길'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 ④ '젊은 애들'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둘러대'는 말로 폄하된다.
- ⑤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은, '아버지'에 의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로 인한 도덕성의 상실로 비판된다.

35. 밑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청렴결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 ② ‘아버지’는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는 이념에 대해 비판적이다.
- ③ ‘엄마’는 ‘아버지’의 퇴직금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 ④ ‘아버지’는 학교 공금을 빼내 쓴 일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했다.
- ⑤ ‘아버지’와 ‘엄마’는 고향을 잃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처지와 가치관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7. <보기>는 [B]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공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다.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S# 91 안방

아버지 :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당신 생각은 정, 정직하지 못해.

엄마 : (애원조로) 아 내가 뭐했는데. 보름 안으로 꼭 채워준다고 했잖아. 이번만 좀 어떻게 해줘, 응?

아버지 : 그게 중, 중요한 게 아니야. 애, 애초에 공금을 빼낸다는 생각이 자, 잘못이라니까.

엄마 : (목소리를 높이며 빠르게) 그 돈이 없으면 우린 파산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우리 네 식구 모두 죽어야 한다고. 아님 내가 감옥살이 하는 동안 혼자서 고고하게 잘 먹고 잘 살든가!

아버지 :(묵묵부답, 집을 나선다.)

S# 92 며칠 후, 안방

아버지, 두툼한 돈봉투를 엄마에게 건넨다. 화색이 도는 엄마의 얼굴과 침울한 아버지의 표정 교차. 화면을 분할하여 각각의 얼굴 C. U.*

S# 93 어느 날 밤, 형제의 방

아버지의 취한 모습. 인사불성이 되어 ‘끝장이다’를 반복하며 형제에게 술주정하는 아버지. 말리러 온 엄마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정을 한다.

S# 94 보름 후, 안방

아버지 : (안절부절못하며) 도, 돈을 채워주겠다는 날인데.....어떻게 된 건가?

엄마 : (되려 화를 내며) 내가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거냐고. 갖다 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라니깐!

아버지 : (잠시 사이를 두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말투로) 그냥 내, 내가 죽어야지. 공금에 손을 대서 나, 낫을 불히게 되느니 주, 죽는 게 낫겠어.

*C.U. : 시나리오 용어의 하나로, 어떤 한 부분을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찍는 것을 말함. ‘Close Up’의 약어.

- ① S# 91: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는 '아버지'의 성격을 고려해서, 원작에서 '아버지'가 다른 인물에게 했던 말을 '엄마'에게도 하는 걸로 했군.
- ② S# 91: '엄마'가 '협박과 울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대화 장면으로 구성해서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군.
- ③ S# 92: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라는 원작의 구절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심정을 추리하여, 두 인물의 심정 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군.
- ④ S# 93: '아버지'가 '형과 나'를 붙잡고 투정을 하는 원작과는 달리, '엄마'까지 등장시켜 '아버지'가 가족 모두에게 가졌던 불만을 살려 내고 있군.
- ⑤ S# 94: '약속한 보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하나의 시공간을 설정하여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38. 밑글의 단어를 활용하여, '아버지'를 주어로 ㉠을 달리 표현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만큼은 '공생원'으로 살지 않았다.
- ②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늘 '깍뎂기'에 불과했을 뿐이다.
- ③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날강도'가 되는 일만은 극히 꺼렸다.
- ④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항상 '희생자'의 역할을 맡아 왔다.
- ⑤ 아니, 아버지는 언제나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이두병이 큰 아들 관을 동궁으로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 황제라 하고 개원(改元)하여 건무(建武) 원년(元年)하다.*

이때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조신이 다시 간하여 태산계량도에 정배 안치하여 소식을 끊게 하니라. 이날 왕부인 모자가 태자 정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극하여,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을 한가지로 하고자 싶으나 종적이 드러나면 지레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요?” 하며 모자 주야 통곡하더니, 일일은 웅이 황혼에 명월을 대하여 복수할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 천한지라,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부인 모르게 중문에 내달아 장안 큰 길 위를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관동(冠童)이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국과군망(國破君亡) 하니 무부지자(無父之子) 나시도다.

문제(文帝)가 순제(順帝)되고 태평이 난세로다.

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소냐.

삼강(三綱)이 물러남이 없으니 오륜(五倫)을 고칠소냐.

맑고 밝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충신원루(忠臣怨淚) 아니시면 소인의 꽃샘이로다.

슬프다 창생들아, 오호(五湖)에 편주 타고

사해에 노니다가 시절을 기다려라.

웅이 듣기를 다함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 걸어 경화문에 다다라 대궐을 바라보니, 인적은 고요하고 월색은 가득한데 수쌍의 오리와 기러기는 못에 떠 있고, 십 리나 되는 화원에 전(前) 왕조의 경치가 아니더라. 전 왕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굽이굽이 쌓인 근심 갑자기 생기는지라.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대하여 사생을 결단하고자 싶되 강약이 같지 않고 문 안에 군사가 많고 문을 굳게 닫았는지라 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필낭의 붓을 내어 경화문에 대서특필(大書特筆)하여 이두병을 욕하는 글 수 삼 구를 지어 쓰고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니라.

이날 왕부인이 등불 아래에서 한 ㉠ 꿈을 얻으니 승상이 들어와 부인의 몸을 만지며 말하기를,

“부인이 무슨 잠을 깊이 자나이까? 날이 새면 큰 환을 당할 것이니 웅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소서.”

하거늘 부인이 망극하여 말하기를,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리이까?”

승상이 말하기를,

“수십 리를 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급히 떠나소서.”

하거늘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웅을 찾으니 또한 없는지라. 대경실색하여 문 밖에 내달아 두루 살펴 보니 인적이 없는지라. 정신이 창황하여 이윽히 중문을 바라더니, 웅이 급히 들어오거늘 부인이 크게 놀라 묻기를,

“이 깊은 밤에 어디를 갔더냐?”

웅이 말하기를,

“마음이 산란하와 월색을 따라 거리에 배회하여 돌아오나이다.”

“아까 꿈을 얻으니 네 부친이 와 이리이리하니, 가다가 죽을지라도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리오. 바빠 행장을 차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용 모자는 급히 길을 떠나고, 이두병은 현상금까지 걸며 이들을 추격한다. 조용 모자는 한 마을에 정착하지만 그곳에서 재가를 권유받은 왕부인이 수치심을 느껴 마을을 떠난다. 왕부인은 삭발을 하고

머리카락을 팔아 돈 다섯 냥을 마련하는데 이것조차 도적떼에게 빼앗겨 조용 모자는 극심한 기아에 시달린다. 이때 한 중이 먹을 것을 주고 왕부인은 이에 감사를 표한다.

그 중이 웃고 말하기를,

“대국 조충공의 부인이 아니시니까? 일신을 감추어 변형을 굳게 하온들 소송이야 모르리까?”

부인과 웅이 대경실색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의 종적이 드러나 예 와 잡히어 원수의 칼에 죽으리로다.”

하여 모자 통곡하며 그 중에게 애걸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잡아 황성에 바치면 천금의 상에 만호후를 봉하려니와 부귀는 세상의 일시 변화라. 광풍에 한 조각 구름 같고 물 위의 거품 같은지라. 일시 영귀를 생각하지 말고 인명을 살려 주소서. 중은 또한 부처 제자라. 어진 도로써 인명을 구제하온즉 후세에 반드시 부처 되올 것이니 엇드려 바라건대 존사는 잔명을 구완주소서.”

하며 붙들고 애걸하니 그 중이 웃으며 말하기를,

“부인은 조금도 놀라지 마옵소서. 소송은 부인 잡아갈 중이 아니오니 진정하와 소송의 말씀 자세히 들으소서.”

부인이 정신을 차려 듣기를 다하매 중이 말하기를,

[A] “부인은 살펴보소서. 어찌 소송을 모르나이까? 소송은 부인택 승상의 화상 그리던 중 월경이로소이다. 그때 승상의 화상을 그리웁고 부인에게 보여드리니 천금을 주시기에 가져갔사오니 부인은 어찌 소송을 모르시나이까?”

그제야 부인이 자세히 보니 그때 화상 그리던 중과 거의 흡사하나 세상사를 어찌 알리요?

“천금을 줄 때는 확실했겠으나 분명히 명심한 일이 아니라 이는 기억하지 못하니 존사는 꺼리지 말고 바른 대로 가르치소서.”

하고 긴히 애걸하니 승이 민망하여 위로하기를,

“부인이 유한한 간장을 객중에서 여러 해를 근심하였기로 정신이 이상하여 잊었도소이다. 소송이 또한 명백히 밝힐 증거가 있사오니 가져온 화상을 내소서.”

부인이 더욱 대경실색하여 말하기를,

“빌어먹는 사람이 무슨 화상이 있사오리요? 존사는 무지한 인생을 대하여 숨기지 말고 바른 대로 하소서. 이제는 도마 위의 고기로 죽고 살기는 존사의 처분이오니 임의로 하소서.”

하며 무수히 통곡하니, 중이 절박하여,

“어찌 이대도록 의혹하시나이까? 그때 화상을 그리웁고 부인을 뵈오니 잉태하온 지 칠 삭이웁거늘 짐작하는 도리 있삽기로 부인의 상을 보옵고 앞날의 어려움을 기록하여 화상 등에 넣었사오니 화상을 내어 그 글을 보시면 의혹을 파하고 소송의 허실을 쾌히 아오리다.”

하니 부인이 내심에 극히 괴히 여겨 그제야 화상을 내어 등에 종이를 떼고 자세히 보니 과연 글을 지어 등에 넣었는지라. 그 ㉠ 글에 하였으되,

꽃같이 아름다운 왕부인이 삭발은 무슨 일이고? 파강 천경파에 거북을 만났도다. 성수는 뉘실고? 굴삼려* 충혼(忠魂)이라. 복중(腹中)에 끼친 혈육 활달한 기남자라. 공자로 상좌 삼고 변형을 굳게 한들 화상이 불변하거늘 필법조차 고칠소냐?

우서(右書)는 위국 산양 땅 강선암 월경이 근서(謹書)하노라. 경오 추칠월 십오 일 상봉.

이라 하였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 -

* 원년(元年)하다: 나라를 세운 해로 삼다.

* 굴삼려: 초나라의 충신.

39.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이두병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했다.
- ② 응은 대궐문에 이두병을 욕하는 글을 썼다.
- ③ 왕부인은 꿈을 꾸 후 응과 함께 길을 떠났다.
- ④ 승상은 송 태자에게 조ungs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 ⑤ 월경은 왕부인이 신분을 감추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40. [A]에서 알 수 있는 인물들의 발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월경과 왕부인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군.
- ② 월경은 왕부인의 사연을 듣고자 하고 왕부인은 이를 피하려고 하는군.
- ③ 월경과 왕부인 모두 서로를 향해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조금씩 열려고 하는군.
- ④ 월경은 왕부인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왕부인은 월경의 진의를 확인하려고 하는군.
- ⑤ 월경은 왕부인의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고 왕부인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군.

41.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ungs 모자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은 조ungs 모자에게 닥친 위기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
- ③ ㉡은 왕부인과 월경의 과거 인연을 확인시켜 준다.
- ④ ㉡은 응의 비범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⑤ ㉡은 월경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웅전’은 유교적 질서와 이념이 훼손된 현실을 배경으로, 영웅적 인물인 ‘조웅’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즉, 질서와 이념의 훼손을 가져온 집단을 제거하고 이전의 질서와 이념을 회복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서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웅’은 비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어린 시절부터 시련-극복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는데, 그때마다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질서 파괴 세력에 대적할 주체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 ① 관동들이 부르는 ‘시절 노래’에는, 유교적 질서와 이념이 훼손된 현실이 반영되어 있군.
- ② ‘전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은, 유교적 질서와 이념의 회복을 위한 중심적 역할의 담당자로서 ‘웅’이 갖춘 자격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이두병을 대하여 사생을 결단하고자 싶되 강약이 같지 않’다는 것은, ‘웅’이 질서 파괴 세력에 대적할만한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하는군.
- ④ ‘왕부인’과 ‘웅’이 ‘일신을 감추’고 ‘원수의 칼’에 죽을 것을 염려하는 것은, ‘웅’이 겪는 시련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월경’이 위기에 처한 ‘왕부인’과 ‘웅’을 돕는 것은, ‘부처 제자’들이 이념의 훼손을 가져온 집단 제거의 임무를 완수하는 다른 주체임을 알려주는군.

※ <보기>를 참고해 44번과 45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 보 기 > —

율곡의 자연관에 따르면 자연을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산수의 흥취를 깊이 알아 자연 속에 담긴 도체(道體), 즉 진리를 파악해야 진정한 즐거움인 진락(眞樂)에 이를 수 있다. 즉 율곡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학문을 통해 도학적 이상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44. <보기>를 참고로 밑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3수'의 '승지'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인 동시에 도체가 내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② '4수'의 '녹수'와 '산조', '반송'과 '바람'의 조화는 '진락'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5수'의 '온갖 빛이 잠겨' 있는 '담심암영'에서 느끼는 '흥'은 '진락'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④ '6수'의 '소쇄함'이 '가이 없다'는 것은 학문을 통해 도체를 파악하는 길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군.
- ⑤ '6수'의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음풍 하리라'는 자연을 즐기는 것과 도학적 이상의 추구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군.

4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수의 흥취를 아는 사람이다.
- ② 진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 ③ 도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 ④ 자연을 눈으로만 보지 않는 사람이다.
- ⑤ 도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관

제 1 교 시



2014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B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권
말

[1 ~ 3]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내에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논제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발언해 주시죠.

찬성 1 : 최근 우리 학교에는 몇 차례의 폭력과 절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에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는 CCTV가 정문에만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 폭력과 절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1 : 학교 폭력이나 절도 사고 예방에 CCTV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CCTV는 사건이 발생된 후에 녹화된 장면을 확인하는 데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후 처리에 불과합니다.

찬성 2 : 반대 측에서는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하셨지만,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학교 폭력 및 절도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지역 7개교 학생 700명과 교사 280명,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CCTV 설치 후 학교 폭력 및 절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교사의 76.5%와 학부모의 67.0%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2 : 일부 학교의 설문 조사 결과를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에 따르자면 교내 곳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내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감시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는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정신과 전문의는 “CCTV 등으로 인해 타율적인 통제에 익숙해질 경우 향후에 CCTV가 없으면 스스로 자율적인 조절이 안 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는 생각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찬성 3 : 도로, 공원, 엘리베이터 등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듯이 학교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교내 사고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내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 3 : 물론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보다는 교문의 경비 인력을 강화하여 외부인의 침입을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1. 토론 참여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최근에 벌어진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주장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군.
- ② 반대 1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군.
- ③ 찬성 2는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군.
- ④ 반대 2는 한정된 자료의 한계를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군.
- ⑤ 찬성 3은 다른 사례들을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을 강조하고 있군.

2.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CTV는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에 활용될 뿐이다.
- ②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 ③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교문의 경비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
- ④ CCTV의 설치 효과를 거두려면 실시간으로 감독할 인력이 필요하다.
- ⑤ CCTV를 통해 학교 폭력을 막으려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3. <보기>의 자료를 위 토론에 활용한다고 할 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학계와 경찰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경우 강·절도 사건이 설치 지역은 물론 CCTV가 없는 인접 지역까지 감소했고, 폭력 범죄는 CCTV 설치 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는 계획성이 강한 강·절도와 우발성이 강한 폭력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CCTV가 교내의 우발적 사고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내세워 찬성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② CCTV가 절도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찬성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③ CCTV가 인근 학교의 폭력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찬성 측의 근거로 활용한다.
- ④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이면서 반대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학교보다 일반 지역이 더 높음을 들면서 반대 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4 ~ 5] 다음은 두 학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애 : 새롭아, 요즘 정미, 화영이와 말도 잘 안하고, 만나지도 않는 것 같더라. 너희 삼총사 무슨 일 있니?
 새롭 :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실은 말이야..... (한숨을 쉬며) 아니야, 됐어.
 인애 : 웬 한숨이야? 뭔데? 괜찮아. 말해 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
 새롭 : 알았어. 실은 일이 좀 복잡해. 정미가 나에게만 털어 놓은 비밀이 있었는데, 내가 화영이에게 그 비밀을 말해 버린 거야. 바보같이.....
 인애 : (새롭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새롭 : 화영이가 그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직접 정미에게 그 비밀에 관해 물어 봤대.
 인애 : 아, 일이 그렇게 된 거구나. 정미가 많이 화났겠네.
 새롭 : 맞아. 그래서 내가 사과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아서 많이 섭섭했어. 지금도 그렇고.
 인애 :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운했겠네! 그런데 뭐라고 사과했니?
 새롭 : 고의는 아니었지만 비밀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런데도 정미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
 인애 : 응, 그렇구나. 그런데 화영이하고는 왜 말을 안 하는 건데?
 새롭 : 내가 정미의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화영이에게 따지니까, 자기도 미안하기는 한데 그런 일 가지고 굳이 따지느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 소리를 버럭 질렀어. 내가 잘못된 거니?
 인애 : (손사래를 치며) 아냐, 아냐, 그렇지 않아. 나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화가 났을 거야.
 새롭 : 휴,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기는 하다. 그런데 정미와 화영이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인애 : 정미의 경우는 정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화영이에게는 지난 화법 시간에 배운 ‘관용의 격률’에 따라 말해 보는 게 어때?

4. 위 대화에서 ‘인애’의 ‘공감적 듣기’ 태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공감적 듣기’ 태도의 평가표			
평가 준거	그렇다	아니다	
•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는가?	✓	 ①
•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는가?		✓ ②
•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었는가?	✓	 ③
•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였는가?	✓	 ④
•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을 요약·정리하였는가?		✓ ⑤

5. <보기>를 참고할 때, '인애'의 마지막 말에 대한 '새름'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손한 표현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공손성의 원리' 중에 '관용의 격률'은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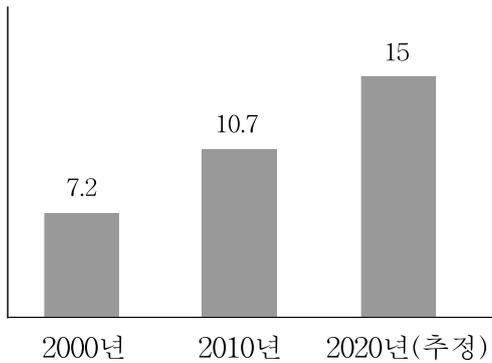
- ① “화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② “나도 실수를 했고, 너도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③ “네가 정말로 나에게 사과하려했다면 그렇게 나에게 짜증을 내서는 안 됐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④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앞으로는 남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마.”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⑤ “갑자기 내가 화를 내서 당황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6. <보기>를 활용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출산율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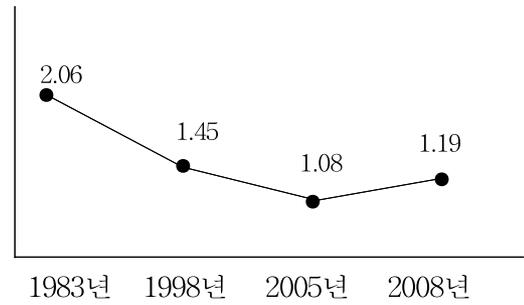
< 보 기 >

(가) 통계자료

㉠ 우리나라 노령 인구 비율(%)



㉡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가임여성 1명당 자녀 수)



(나) 자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상위 4가지)

순위	결과	비율
1	자녀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	45%
2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18%
3	자녀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	10%
4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	3%

(다) 전문가 인터뷰 자료

UN에서는 노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면 15~64세까지인 생산 가능 연령층의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향후 생산 가능 연령층의 인구가 더욱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이행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사회로의 이행 속도를 완화시키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 교수 -

- ① (가)의 ㉠과 (나)를 활용하여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② (가)의 ㉠과 (다)를 활용하여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 ③ (가)의 ㉡과 (나)를 활용하여 출산율 저하 경향과 그 원인을 제시한다.
- ④ (가)의 ㉡과 (다)를 활용하여 고령화의 한 원인이 출산율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7. 다음은 공원 입구에 세워진 안내문이다. <보기>는 공원 곳곳에 게시할 공고문으로서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안내

공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불법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원 내에서 밥을 짓는 행위,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 애완동물의 목줄을 풀어 놓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상점 외의 곳에서 김밥,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공원관리사무소(☎123-4567)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공원관리소장

— < 보 기 > —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의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됩니다.

- ◎ 음식물 취사 
- ◎ 애완동물 관리 소홀 
- ◎ 허가 받지 않은 식품 판매 

이러한 행위를 보신 분은 공원관리사무소(☎123-456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 ① 중요도에 따라 내용의 순서를 재배열해야겠어.
- ② 제목은 경어를 사용해 독자의 거부감을 줄여야겠어.
- ③ 중요한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생략해야겠어.
- ④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해야겠어.
- ⑤ 같은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을 포괄하는 말로 항목화해야겠어.

8. 다음은 ‘우리 지역 문화재’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조사 목적

- 우리 지역 문화재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지역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글쓰기 계획>

<수정 및 보완 방안>

■ 조사 내용 및 방법

- 우리 지역 문화재의 현황
 -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 검색
- 우리 지역 문화재의 보전 실태
 - 탐방 조사
- 우리 지역 문화재 보전에 대한 인식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 문화재 보전 방안 모색
 - 인터넷 검색 및 타 지역 사례 수집 등
- 전문가의 의견
 - 방문

- 우리 지역의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통계자료도 검색한다. ①
- 우리 지역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묻는 항목을 추가한다. ②
- 전문가 중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전문가에게는 궁금한 내용을 질문지로 만들어 답을 얻는 서면 인터뷰 방식을 사용한다. ③



■ 보고서의 제목과 차례

- 제목 : 우리 지역 문화재의 종류
- 차례
 1. 조사의 방법
 - 설문 조사, 문헌 조사, 인터뷰 조사
 2. 설문 결과의 분석
 3. 다른 지역의 사례
 4. 전문가의 의견
 5. 요약 및 정리

- 조사 목적과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문화재의 현황과 바람직한 보전 방법’으로 고친다. ④
- 보고서의 일반적 형식을 고려하여 ‘조사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⑤

9. 다음은 강연 원고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베이터 타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현대인이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이미 그 안에 네 명이 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을 위하여 옆으로 비켜섭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사람 중 누구는 다른 사람이 탈 수 ㉡ 있거나 자신의 짐을 벽 쪽으로 약간 옮기고, 또 다른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아무런 말도 없이, 눈짓을 주고받지도 않고 ㉢ 진행합니다. 누군가 “짐 좀 치워 주세요.”라고 하거나 “비켜줘야 들어가죠.”,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과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절은 일상의 많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언의 과정에서 체득하는 것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는 없지만, ㉣ 설령 그들이 이전에 비밀리에 약속한 것처럼, 그리고 수백 번 연습을 해 본 것처럼 각자 적절히 타인을 ㉤ 배치하며 움직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리는 사람, 타려는 사람, 타고 있는 사람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② ㉡은 어미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있도록’으로 바꾸어야겠어.
- ③ ㉢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진행하게 합니다’로 고쳐야겠어.
- ④ ㉣은 부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마치’로 수정해야겠어.
- ⑤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배려’로 바꾸어야겠어.

10.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우리말에서 반의 관계의 종류는 '상보 반의', '방향 반의', '정도 반의'로 나눌 수 있다. ㉠ '상보 반의'는 '남자 : 여자'처럼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 관계이고, '방향 반의'는 '오다 : 가다'처럼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며, 마지막으로 '정도 반의'는 '차다 : 뜨겁다'처럼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다.

- ① 참 : 거짓
- ② 크다 : 작다
- ③ 왼쪽 : 오른쪽
- ④ 쉽다 : 어렵다
- ⑤ 오르다 : 내리다

11. <보기>는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보기>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혼자 '하늘'이라고 한다면 '땅'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① 언어의 분절성
- ② 언어의 규칙성
- ③ 언어의 창조성
- ④ 언어의 역사성
- ⑤ 언어의 사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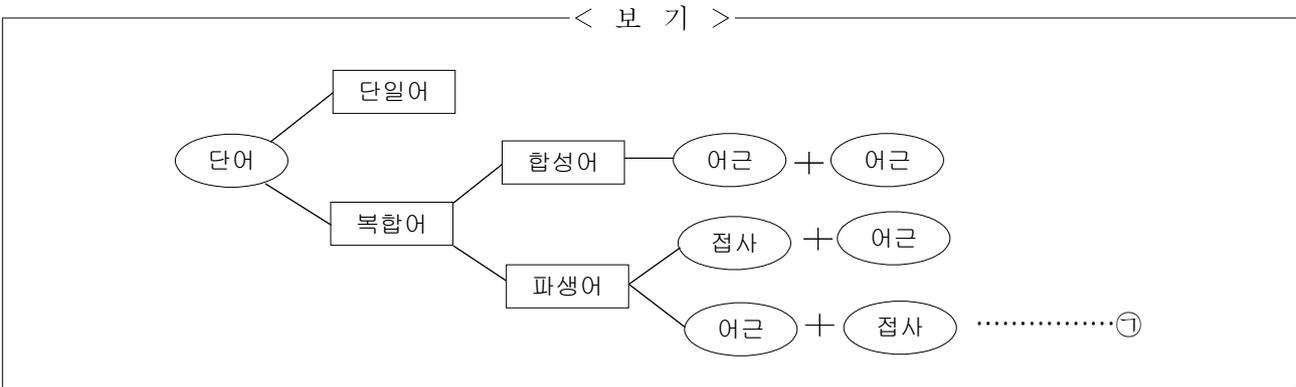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늪 앞’은 [느밥]으로, ‘젓어미’는 [저더미]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음식이 맛없다. [마덟따]
- ② 헛웃음만 나왔다. [허두슴]
- ③ 걸에 먼지가 묻었다. [거테]
- ④ 밭 아래 논이 있다. [바다래]
- ⑤ 꽃을 선물 받았다. [꼬슬]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소리
- ② 나무꾼
- ③ 멧쟁이
- ④ 바느질
- ⑤ 지우개

1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우리말 높임법 중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경우를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객체 높임법은 특별한 어휘를 이용하거나 조사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 ① 이 상자는 어느 분에게 드리면 될까요?
- ② 학생분들은 모두 입구 쪽으로 오십시오.
- ③ 창목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 ④ 어제는 대학교 지도 교수님을 뵙고 왔습니다.
- ⑤ 송현이가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여쭙보았습니다.

[15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논증(論證)’이란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으로, 이때 주장은 결론이 되고 그 주장의 근거는 전제가 된다. 논증 방법 중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의 참이 보장되는 방법이다. 그리스 시대에도 활용되었던 전통적 논증 방법인 연역 논증은 현대 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흔히 현대 논리학을 연역 논증에 기반을 둔 기호 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뿌리는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로부터 찾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논리의 유형을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하려 하였다. 그는 명제가 참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참’을 ‘1’로 하고, ‘거짓’을 ‘0’으로 기호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명제들을 결합하는 말인 ‘...거나’에 해당하는 표현은 수학에서 더하기를 뜻하던 기호 ‘+’로 대치하고,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은 수학에서 곱하기를 뜻하던 기호인 ‘•’으로 대치했다. 이렇게 결합된 명제의 진릿값이 참이면 ‘=1’로, 거짓이면 ‘=0’으로 표현했다.

[A]

I. $1+1=1$	V. $1 \bullet 1=1$
II. $1+0=1$	VI. $1 \bullet 0=0$
III. $0+1=1$	VII. $0 \bullet 1=0$
IV. $0+0=0$	VIII. $0 \bullet 0=0$

그럴 경우 8가지 계산식이 나온다. ㉡ 이를 보면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거나 수학자이다.’라는 명제에서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다.’가 참이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릿값은 참이 되는데, 그것은 왼쪽 표의 ‘I’과 같이 표현된다. ‘라이프니츠는 화가이고 수학자이다.’처럼 ‘그리고’로 결합되는 명제에서 ‘라이프니츠는 화가이다.’가 거짓이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릿값은 거짓이 되는데, 그것은 ‘VII’과 같이 표현된다.

그는 왜 일상 언어로 하는 추리를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했을까?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 언어로 추리의 내용을 표현하면 이해하기는 쉽다. ㉢ 하지만 명제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잘못된 추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상 언어로 두 명제의 진릿값을 검토하는 것도 꽤 복잡한데, 여러 명제들이 결합된 것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수학적 기호의 장점을 활용하였다. 즉 수학적 표현이 지니는 간편성, 정확성, 신속성 등을 연역 추리에 적용한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또한 보편적 과학 언어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연구 성과를 교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과학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었다. 그는 과학 이론을 표현할 때 세계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왜냐하면 과학은 자신의 가설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학문인데, 논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그 내용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언어의 창제를 구상하였다. 보편적 과학 언어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서 인류를 하나의 사고 공동체로 만들고 혁신적인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 요컨대 수학적 표현법과 보편적 과학 언어는 라이프니츠의 혁명적 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200년 동안이나 사장되었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주목받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에 현대 기호 논리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때까지도 라이프니츠의 구상은 학자들 사이에서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컴퓨터가 등장함에 따라 그의 구상이 일반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의 논리 회로는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계를 사용하는데, ㉥ 기계어는 라이프니츠의 보편적 과학 언어의 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15.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라이프니츠는 언어의 차이가 과학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여겼다.
- ②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응용되었다.
- ③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은 현대 기호 논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라이프니츠는 전제가 많을수록 결론이 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 ⑤ 라이프니츠는 일상 언어가 명제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데에는 불편하다고 보았다.

16.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두 명제를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으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장미는 직장인이고 주부이다.
 나. 정호는 축구 선수이거나 야구 선수이다.

* ‘가’의 장미는 실제로 직장인이지만 주부는 아니다.
 * ‘나’의 정호는 실제로 축구 선수이지만 야구 선수는 아니다.

	가	나
①	$1 \bullet 1 = 1$	$0 + 0 = 0$
②	$1 \bullet 0 = 0$	$1 + 0 = 0$
③	$1 \bullet 0 = 0$	$1 + 0 = 1$
④	$1 + 0 = 0$	$1 \bullet 0 = 0$
⑤	$1 + 1 = 1$	$1 \bullet 0 = 1$

17. ㉠의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컴퓨터의 기계어는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 ② 컴퓨터의 기계어로 인해 최첨단 과학 기술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③ 컴퓨터로 인해 인류의 문명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 ④ 컴퓨터의 기계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⑤ 컴퓨터의 등장으로 일반인들에게 라이프니츠의 구상이 널리 알려졌다.

18. 글의 문맥을 고려하며 독서할 때, ㉠~㉣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중요한 개념을 글의 서두에 밝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다음에 나오는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면서 읽어야겠어.
- ② 글쓴이는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그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파악해야겠어.
- ③ 글쓴이는 특정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특정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이해해야겠어.
- ④ 글쓴이는 논리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아야겠어.
- ⑤ 글쓴이는 핵심 내용을 요약·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겠어.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GDP(국내총생산)’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GDP를 계산할 때는 총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빼는데, 그 결과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과 동일하다. 다만 GDP를 산출할 때는 그해에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중 화폐로 매매된 것만 계산에 포함하고, 화폐로 매매되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품 판매 가격은 물가 변동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GDP를 집계 당시의 상품 판매 가격으로 산출하면 그 결과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올해에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했다라도 올해 물가 변동에 따라 상품 판매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올해 GDP는 가격 상승분만큼 부풀려져 작년 GDP보다 커진다. 이런 까닭으로 올해 GDP가 작년 GDP보다 커졌다 하더라도 생산 수준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 심지어 GDP가 작년보다 커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 수준이 ㉠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GDP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먼저 어느 해를 기준 시점으로 정해 놓고, 산출하고자 하는 해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 GDP를 산출하면 된다.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 산출한 GDP를 ‘실질 GDP’라고 하고,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하지 않은 GDP를 실질 GDP와 구분하기 위해 ‘명목 GDP’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을 1995년으로 하여 2000년의 실질 GDP를 생각해 보자. 1995년에는 물가 수준이 100이었고 명목 GDP는 3천 원이며, 2000년에는 물가 수준은 200이고 명목 GDP는 6천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명목 GDP는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늘었지만, 물가 수준 역시 두 배로 올랐으므로 결국 실질 GDP는 동일하다.

경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려면 실질 GDP의 추이를 보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실질 GDP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공식 경제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text{경제성장률} = \frac{\text{금년도 실질 GDP} - \text{전년도 실질 GDP}}{\text{전년도 실질 GDP}} \times 100(\%)$$

경제지표 중 GDP만큼 중요한 ‘GNI(국민총소득)’라는 것도 있다. GNI는 GDP에 외국과 거래하는 교역 조건의 변화로 생기는 실질적 무역 손익을 합산해 집계한다. 그렇다면 ㉡ GDP가 있는데도 GNI를 따로 만들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수입 상품 단가가 수출 상품 단가보다 올라 대외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 전보다 많은 재화를 생산·수출하고도 제품·부품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무역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GDP는 무역 손실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GNI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GDP가 국민경제의 크기와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는 지표라면 GNI는 국민경제의 소득 수준과 소비 능력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품 판매 가격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 ② GDP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 ③ 화폐로 매매되지 않은 것은 GDP 계산에 넣지 않는다.
- ④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이 GDP 계산의 대상이 된다.
- ⑤ GDP는 총 생산물 가치에 중간생산물 가치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20.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아래의 표는 최종 생산물인 X재와 Y재 두 재화만을 생산하는 A국의 연도별 생산액과 물가 수준이다.

	2010년	2011년	2012년
X재의 생산액	2,000원	3,000원	4,000원
Y재의 생산액	5,000원	11,000원	17,000원
물가 수준	100	200	300

* 기준 연도는 2010년으로 한다.
* 기준 연도의 실질 GDP는 명목 GDP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① 2012년도의 ‘명목 GDP’를 산출하면 21,000원이군.
- ② 2012년도의 ‘명목 GDP’는 2010년도 대비 3배 늘었군.
- ③ 2011년도의 ‘실질 GDP’를 산출하면 7,000원이군.
- ④ 2012년도는 2010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생산 수준이 올랐군.
- ⑤ 2011년도의 경제성장률은 0%이군.

21. ㉠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총생산 능력을 정확히 재기 위해
- ② 생산한 재화의 총량을 정확히 재기 위해
- ③ 생산한 재화의 수출량을 정확히 재기 위해
- ④ 국가 간의 물가 수준의 차이를 정확히 재기 위해
- ⑤ 무역 손익에 따른 실질 소득의 증감을 정확히 재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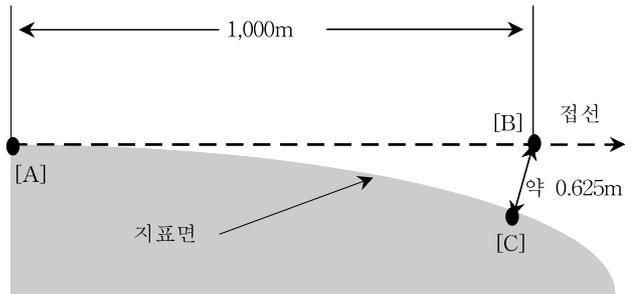
2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② 전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 ③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 ④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 ⑤ 굵은 빗방울이 머리에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던 공을 놓으면 공은 땅으로 떨어진다. 공을 수평으로 멀리 던지거나 심지어 하늘을 향해 높이 던져도 공은 땅에 떨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목격할 수 있다. 모든 물체에는 중력, 즉 지구의 중심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떠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지표면 5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거나, 수평으로 멀리 던졌을 때 공이 1초 후면 지표면에 ㉢ 닿는다. 이 순간의 공의 속도는 약 5m/s이다. 곡률은 곡선이나 곡면의 굽은 정도를 말하며, 지구의 곡률은 약 0.000625%이다. 옆의 그림과 같이 지표면 [A]에서 접선 방향으로 1,000m 떨어진 [B]로 이동했을 때 실제 지표면 [C]는 약 0.625m 아래에 있다. 마찬가지로 [A]에서 접선 방향으로 8,000m 떨어진 곳의 지표면은 약 5m 아래에 있다.



따라서 공을 약 8km/s 속도 이상으로 날아가게 한다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물체가 약 8km/s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지표면을 따라 계속 떠 있을 수 있다. 이 속도(약 8km/s)를 지구 접선 속도라 한다.

만약 어떤 물체가 접선 속도 이상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 물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고도가 높아질 것이다. 지표면을 따라 돌면서 고도가 계속 ㉣ 높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에 이른 뒤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선 약 8km/s라는 접선 속도는 음속의 24배가 넘는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그 속도로 날게 하기가 힘들다. 또 그 속도로 날게 하더라도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버릴 가능성이 ㉤ 크다. 게다가 마찰열에 타지 않게 하더라도 공기의 저항에 의해 속도가 떨어지므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공위성은 어떻게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올릴 때는 로켓을 이용한다. 이때 로켓은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구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지구 탈출 속도는 지표면에서는 약 11km/s이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금씩 줄어든다.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약 8km/s로 움직이게 하면 추락하지 않고 계속 ㉥ 돌 수 있다. 우주에는 대기가 없으므로 마찰 열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으므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의 공급은 필요 없다. 이로 인해 인간은 달이라는 자연적인 위성을 가진 이래 수많은 인공적인 위성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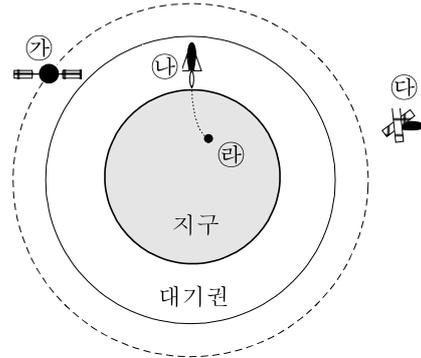
23. 밑글의 글쓴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원리를 제시하고 두 원리의 의미를 밝혀야겠어.
- ② 대비되는 가설을 검증하며 한 이론의 우위를 증명해야겠어.
- ③ 화제와 관련한 이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설명해야겠어.
- ④ 현상에 대한 여러 의견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해야겠어.
- ⑤ 주요 용어의 개념을 소개하고 사례를 들어가며 원리를 설명해야겠어.

24.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 :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 : ㉠을 우주 공간으로 올릴 때의 로켓
 ㉢ :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인공위성
 ㉣ : ㉡의 발사 지점



- ① ㉠은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겠군.
 ② ㉠은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 8km/s의 속도로 움직이겠군.
 ③ ㉡는 대기권에서의 마찰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겠군.
 ④ ㉡는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 약 11km/s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겠군.
 ⑤ ㉢는 궤도를 돌던 중에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벗어났겠군.

25. 윗글을 고려할 때, ㉠을 실현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구의 곡률
 ② 지표면의 거칠기
 ③ 공에 미치는 중력
 ④ 공에 미치는 공기의 저항
 ⑤ 공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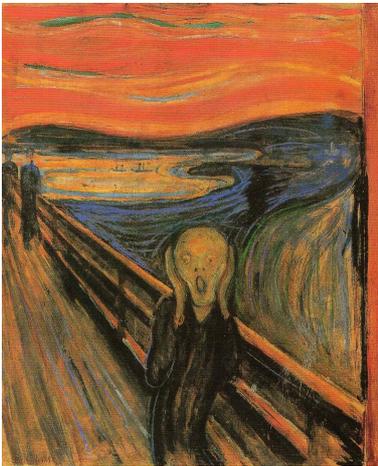
26. 문맥을 고려하여 ㉠~㉥를 바꿔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작용(作用)하기
 ② ㉡ : 도달(到達)한다
 ③ ㉢ : 향상(向上)하다
 ④ ㉣ : 농후(濃厚)하다
 ⑤ ㉤ : 공전(公轉)할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10년을 전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사조인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하여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술 운동이자, 회화에 사회의식을 반영한 사조로 평가 받는다. 19세기 후반 당시의 독일 사회는 전쟁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표현주의자들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초라한 인간상을 예리하게 ㉠ 포착하여 불안과 공포, 기쁨과 슬픔 등 자신이 느낀 것을 ㉡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다.

기존의 회화가 외적 세계의 모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표현주의자들은 외적 세계에 대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채의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였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이므로, 당시의 내면 상태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듯한 거친 붓놀림과 선에 의해 단순화된 형태, 그리고 과장된 색채를 ㉢ 선호하였다. 특히 표현주의자들은 판화를 많이 제작하였다. 작가들은 판화에서는 과장된 색채 대신 흑백 대조를 활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들을 이용하여 당시의 부정적인 사회 상황을 드러내려 하였다.



당대인들은 표현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왼쪽의 작품은 표현주의의 대표작인 뭉크의 「절규」이다. 이 작품이 베를린 전시장에 걸리자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해 비난을 하였고, 결국 이 전시장은 폐쇄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감상 방식에 얽매어 있었던 당대 사람들은 표현주의의 어둡고 무거운 주제와 일그러진 형태, 자연스럽지 못한 색감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표현주의는 감정과 이념을 표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입체적 구도의 균형이 주는 조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작가의 내면세계에 대한 메시지의 전달을 더욱 중시하였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각과 감정 상태를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주의는 전후의 혼란 속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지속되었으나 나치 정권으로부터 퇴폐 예술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으면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하지만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는 바깥 세계의 묘사에 간혀 있었던 예술적 안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의 표현 영역으로 ㉣ 확장함으로써 현대 회화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 회화에서 작품의 재현적 가치보다 ㉤ 개성적 가치가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예술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 시도했던 표현주의의 실험 정신이 남겨 놓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27.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표현주의 미술의 주된 소재는 무엇인가?
- ② 표현주의 미술이 탄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③ 표현주의 미술에 영향을 준 미술 사조는 무엇인가?
- ④ 표현주의 미술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 ⑤ 표현주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표현주의 작가 콜비츠의 대표작인 「궁핍」이다. 이 작품은 실업과 사회적 붕괴가 잦았던 술레지엔 지방 방직 공들이 당면한 비참한 처지를 다룬 석판화로서, 작가가 실제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지켜 본 후 괴로운 마음에서 창작한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이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대상은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독일의 황제가 주최하는 미술 대회에서 금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독일의 내각은 ‘작품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거나 달래주는 요소가 전혀 없는 기법을 사용했다.’라며 황제에게 이 수상의 취소를 건의했다고 한다.

- ①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은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한 것이겠군.
- ② 방직공의 모습을 거칠고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한 것은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나타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미술 작품을 전통적인 감상 방식으로 감상했던 당대인들은 비참한 당대 사회 현실이 드러나는 이 작품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겠군.
- ④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비극적 모습을 목격한 콜비츠가 자신의 괴로운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대상을 왜곡하여 표현하면서도 원근법을 통해 장면에 입체감을 부여한 것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구현된 것이겠군.

29. 문맥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시각으로 관찰한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대상을 바라보며 느낀 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대상의 고유한 비례와 균형을 찾아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결함을 보완해서라도 대상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한 대상의 모습을 한 작품 안에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문맥을 고려하여 ㉠~㉤을 우리말로 고쳐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잡아내어
- ② ㉡: 아름답게 꾸미지
- ③ ㉢: 특별히 좋아하였다
- ④ ㉣: 넓힘으로써
- ⑤ ㉤: 이끌었던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워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신비스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녀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적막만이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砲聲)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 구상, '초토(焦土)의 시(詩) 11-적군묘지(敵軍墓地) 앞에서'(1956) -

(나)

그대 죽어 별이 되지 않아도 좋다
푸른 강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밤하늘이 없어도 별은 뜨나니
그대 죽어 별빛으로 빛나지 않아도 좋다
언 땅에 그대 묻고 돌아오던 날
산도 강도 뒤따라와 피울음 울었으나
그대 별의 녀이 되지 않아도 좋다
일새에 이는 바람이 길을 멈추고
새벽 이슬에 새벽 하늘이 다 젖었다
우리들 인생도 찬 비에 젖고

떠오르던 붉은 해도 다시 지나니
 밤마다 인생을 미워하고 잠이 들었던
 그대 굳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 정호승, '부치지 않은 편지'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애도의 마음이 시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시상을 일으키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희망을 떠올리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타인의 삶을 자신의 삶과 견주어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의 작가는 함경남도 원산 출신으로 1947년 반동분자로 비판받자 월남한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종군하여 전쟁의 참상과 남북이 갈리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느낀 민족적 비극을 전달하려 애썼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애와 종교적인 화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 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에서 전쟁의 참상이 사실적으로 전해져 오는군.
- ②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를 통해 인간애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에서 작가가 월남하기 전에 받았던 고통의 무게를 느낄 수 있군.
- ④ '나의 바람 속에 깃들여 있도다.'에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작가의 염원을 엿볼 수 있군.
- ⑤ '구름은 무심히도 / 북으로 흘러가고', '목 놓아 버린다.'는 남북 분단의 비극을 상기시키는군.

33.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ㄴ. 도치의 방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ㄷ. 청유형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ㄹ.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ㅁ. 비슷한 통사 구조의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러저러 한 달쯤 무사히 지났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다.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된 것은(배포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들을 탓할 수만 없는 일이었다. 쉽사리 고향으로 못 돌아갈 바에는 늘 이려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달리 변통을 취해야겠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얽매여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자연 우리 사이는 차츰 데면데면해지고, 훌끔훌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끔 됐다.

광석이는 애당초가 주책이 없다 할까 주변이 있다 할까 엄병덤병 토박이 반원들과 열려 막걸리 사발이나 얻어 마시곤 했고, 주변 좋게 보탬을 해서 북쪽 얘기를 해쑹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 땐 어느덧 반원들은,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와는 달리, 광석이만은 오래 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처럼 손을 맞잡고는,

“나왔나!”

“오냐, 느 형님 여전하시다.”

“버르장머리 몬 쓰겠다. 누구보꼬 형님이라 카노.”

“자네 언제부터, 말버르장머리하곤, 허 요새 세상이 이래 노니.”

농담조로 수인사가 오락가락했으니,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는 광석이의 이런 꼴을 멀끔히 남 바라보듯 바라다봐야 했다. 광석이는 차츰 반원들과 열려 왈자지껄하는 데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 날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다.

그 꼴사나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더더구나 주변 없고 무뚝뚝하고 외양보다 실속만 자란 두찬이는 저대로 뒤틀리는 심사를 지닌 채 다른 궁리를 차리는 모양이었다. 사실 이즈음부터 두찬이는 부두 안에서 암생이*를 해도 다만 밥 두 끼 값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주는 법이 없이, 일판만 나오면 혼자 부두 앞 틈 사이 셋길을 허청허청 돌아다녔다. 이런 두찬이는 으레 술이 듬뿍 취해 화차간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하원이는 자주 울먹거렸다.

“야하,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하고 애스럽게 지껄이곤 했다.

되잖은 청으로 타령 같은 것을 부르는 두찬이의 취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가까워 오면 화차간은 무엇인가 덮어 씌운 듯 조용해졌다.

“문 열어라.”

드르르 문을 열면, 싸느다란 부두 불빛이 푸르푸레하게 화차간에 찼다. 두찬이는 문간에 막아서서, 비트적거리며 한참을 허허허 웃어 댔다. 하원이는 한쪽 구석에서 또 울먹울먹거렸다. 화차간으로 기어 올라온 두찬이는 헉헉 숨차 하면서 광석이부터 찾았다.

“야, 광석아,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디 갔니?”

누운 채 광석이는 귀찮은 듯이 짹한 목소리로,

“왜애, 왜 기래, 왜?”

“나, 술 마셨다. 나 오늘 암생이 했다. 사아지* 두 벌, 근사하더라, 나 혼자 가지구 나 혼자 마셨다. 왜, 못마땅허니? 못마땅할 것 없어. 잉, 이 새끼야.”

광석이는 발끈 일어나며,

“취했음 자빠져 잘 거지. 누구까 지랄이야. 어디 가서 혼자만 처마시군.”

“말 자알 현다. 그래 난 혼자만 마셨다. 넌 부산내기덜과 왈자고오면서 마시구. 난 내 돈 내구 먹지만, 넌 술 사주는 사람두 많두나. 원래 사람이 잘났응이가, 인심이 좋아서. 난 못났구. 그렇지만 무서울 건 쪼외꼼두, 요만침두 없어. 두구 보렴, 두구 봐, 보잔 말야.”

[중략 줄거리] 집이 없어 기차의 빈 화차간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밤, 막 출발하는 기차의 화차에서 황급히 뛰어내리다가 광석이 팔을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두찬은 다친 광석을 외면하고 ‘나’와 하원이가 광석을 화차에 데려왔으나, 이튿날 광석은 죽고 만다.

두찬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화차 문은 열어젖힌 채였다. 어수선한 바람이 몰아들었다. 두찬이는 머리칼을 앞으로 흘뜨린 채 내 곁으로 다가왔다. 구석에서 하원이가 다시 소리 내어 흑흑 흐느꼈다.

“야,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어잉 이 새끼야, 넌 왜 그때 혼자만 간. 왜 날 붙들지 않았. 부르지도 않았. 그리고 이제 와서 팔세야, 이 새끼야. 그때 암말두 안 허군 이제 와서. 너 잘한 것 같니, 잘한 것 같애? 하늘이 내려다본다, 이 뻔뻔한 새끼야.”

다시 하원이 울음소리가 딱 그쳤다. 두찬이는 내 무릎을 움켜잡았다. 그러나 다시 그냥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어잉, 이 척질 새끼, 개새끼, 취헨 줄 아니? 취할 탁이 있니? 이 개새끼야, 요렇게 정신이 말뚱말뚱하다, 말뚱말뚱해. 왜 넌 암말두 안 헌. 뛰디래 잡든지 칼침을 주든지 하잖구. 어허허허, 내, 이제 무슨 낫작으로 동네 가간, 어허허허..... 광석아아..... 광석아아하아.”

두찬이는 벌렁 자빠져서 화차 안이 찌렁찌렁하도록 그냥 어이어이 울어 뒀다.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두 일판에 나가도 없었다.

사흘쯤 지난 뒤, 어두운 화차칸 속에서 하원이는 지꼈었다.

“야하, 우리 이제 꼬대거리(밤낮을 거꾸 일하는 것) 자꾸 해서 돈 좀 쥐자. 그러구 저기 염주동 산꼭대기에다 집 하나 짓자. 거기 집 제두 일 없녕기더라야. 잉야 조카야, 호호호 우습다. 진짜 우스워. 난 너두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떨언 줄 안. 광석이 아제비두 맘은 좋은 쪽은 못 됐시야, 잉. 우리 동네 갈 쟈 꼭 같이 가자. 돈벌어서, 돈벌문 말야, 시계부터 사자, 어부러서. 그까즌 거, 꼬대거리 대구 하지 머. 광석이 아저씨까 두찬이 형은 못 봤다구 글자마, 알 거이 머야, 너까나만 암말두 안 헌 답에야. 그저 대구 못 봤다구 글자마. 널부터 나 진짜 꼬대거리 할란다. 잉, 조카야 우습다. 잉? 이케(이렇게) 잠이 안 온다야. 우리 오늘 밤, 그냥 밤새자. 술 마시까, 술?”

나는 그저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탤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 같은 것을.....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 안았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하원이는 호호호 웃었다. 지꼈었다.

“이 새끼 술도 안 먹구 취헨. ㉠ 참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눈두. 이북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광석이 아제비네 움물 말이다. 야하, 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나무 있잖니. 장자골집 형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 그 형수 꽤나 부지런했다. 가마이 보문, 언제나 새벽에 쥬 먼저 물 푸러 오군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잉. 야하, 눈 보구 싶다, 눈이.”

— 이호철, ‘탈향(脫鄉)’ —

* 암생이 : 남의 물건을 조금씩 훔쳐 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사야지 : 옷감의 한 종류.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투리를 통해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액자식 구성을 통해 갈등 해결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입체적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초현실적 공간을 설정하여 상상과 현실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35. ㉠에 담긴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긍정적 미래에 대한 믿음
- ② 부당한 현실에 대한 비판
- ③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
- ④ 떠나온 공간에 대한 그리움
- ⑤ 불우했던 과거에 대한 슬픔

36.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의 제목은 ‘실향(失郷)’이 아닌 ‘탈향(脫郷)’이다. 실향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탈향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고향을 벗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작가는 작품 속의 인물들이 ‘귀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실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① ‘나’는 ‘하원’과 함께 귀향하기로 마침내 결심했다.
- ② ‘광석’과 ‘두찬’은 서로를 의지하며 실향 의식을 벗어나고 있다.
- ③ ‘두찬’과 ‘하원’은 탈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④ ‘두찬’은 귀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료들을 떠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 ⑤ ‘하원’과 ‘광석’은 처음부터 자신이 처한 실향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_____ [A]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_____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 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 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휘여 잇고, _____ [B]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 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 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익 다를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 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_____ [C]
 한중 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헝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헝새. _____ [D]
 아츠·口에 채산(採山)헝고 나조히 조수(釣水)헝새.
 꺾 꺾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ㄱ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淸流)를 굽어보니 셔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_____ [E]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밭이 권 거인고.
 송간 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 천촌 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넉.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펏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공명(功名)도 날 썩우고 부귀(富貴)도 날 썩우니,
 청풍 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 단포 누향(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헝넉.
 아모타, 백년 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헝리.

37.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생애’에 대한 자부심을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수간 모옥’ 주변의 경치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호재로다’에 담긴 고독한 정서를 대조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니웃’들과 풍류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대구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술’로 인한 취흥을 고사(故事)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3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칼로 마름질하거나 붓으로 그려낸 것 같다는 뜻으로 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새 소리가 흥겹게 들린다는 뜻으로 화자의 흥취를 자연물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 향기는 잔에 어리고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 아름다운 마을이 곳곳에 펼쳐 있다는 뜻으로 이상향이 실현된 공간을 그리고 있다.
- ⑤ ㉤: 소박하게 살며 헛된 생각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삶에 대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조선 전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관조를 통해 지극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정극인 역시 자연과 소통하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고자 했다. 즉 일상적 현실에서 벗어나 은일하며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한 것이다. <상춘곡>은 그의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 ① 인간적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자연 속에서 이러한 욕망을 극복하고 있군.
- ② 학문의 정진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치를 깨닫고 있군.
- ③ 자연을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 묘사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고 있군.
- ⑤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화자의 잘못을 성찰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추양대는 신부의 예복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칠보금덩*에 높직이 앉아 시녀들이 앞뒤를 옹위하며 가니, 이들 시녀들은 저마다 녹의홍상에 아름답게 단장하고, 쌍쌍으로 벌려 서서 앞을 인도하고, 뒤에는 금안백마에 높직이 앉은 신랑이 자기 행운을 과시하면서 서서히 따르고 있더라.

운남산 황령이라는 고개에 올라섰을 때 그곳에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앉아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이 화려한 신행의 행렬에 접근해 왔고, 그는 행렬의 선두에 선 하인들의 제지를 받고 승강이를 벌였으나, 그에게 악의가 없는 것은 그의 언동을 보면 이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남양땅 양상서 닥 노복이러니, 우리 닥 부인께서 분부하시되 이 서간을 주소저께 드리면 자연 아실 일이 있다 하시기로 바치려 하나이다.”

이런 말에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신부 추양대였으며, 그 여자는 칠보금덩 안에서 졸음이 와 눈을 감을 듯 말 듯 하다가, 남양땅 양상서라는 말에 벌떡 놀라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본 것이더라.

신부는 이내 그 젊은이의 목적을 묻고, 가지고 온 봉서를 바치라고 하인들에게 분부하였고, 봉서를 받아본 추양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으며, 그것은 그렇게도 사랑하던 양산백의 필적이 아닌가. 필적만 보고도 양산백을 알아보며 반가운 눈물이 솟아오를 정도더라.

추양대는 아이들처럼 기뻐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그것을 뜯어 펼쳐 들으니, 처음 순간에는 눈이 침침하여 아니 뵈기까지 하였으니, 이윽고 그 여자는 내리 읽더라.

‘박명 죄생 양산백은 삼가 글월을 주소저 좌하에 부치나니, 우리 양인이 인연이 지중기로 삼 년을 함께 지내며 공부하면서 피차에 심중 맹약을 가져 불전에 도축*하니 천지로 증참*이 되온고로 백년을 잊지 말자 하올 때에는 피차에 남자로되 맹약함이 금석같거늘, 하물며 여자가 남장을 한 것을 안 연후에 다시 범연하리오*. 생이 내심에 숙녀를 만나 평생을 쾌락하리라 하고, 창천께 예하였더니 조물이 시기하여 소저가 본 닥으로 가온 후, 주야로 생각이 간절기로 남자를 찾아 꿈같이 만나 기쁜 말을 듣지 못하고, 놀라운 말씀이 청천백일에 벽력이 일신을 분쇄하매,

[A] 어이 살기를 바라리오. 죽기는 슬프지 아니하되, 학발*쌍친을 사절하게 되니 불효막심이라. 구천 타일에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뵈오며, 또 후세의 꾸지람을 어찌 면하며, 남자를 차 생전에 다시 만나 뵈지 못하고 황천을 돌아가니 이 유한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죽기를 임하여 두어 자로 생의 뜻을 고하며, 또 생이 부모께 고하여 남자의 신행길에 물어 주시면, 남자 왕래지시에 성음이나 들어 원혼이라도 위로하여 주시기 바라오니, 원컨대 남자는 왕래지시에 한 잔 술로 무주고혼을 위하여 주시면 사무여한이라. 죽기를 임함에 정신이 혼미하여 대강 기록하노라.’

추양대의 눈에서는 벌써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져 편지의 검은 먹 글씨를 번져 놓고 있었으나, 그 여자는 잠시 동안 그것을 치울 생각도 아니 하고 그대로 무릎 위에 놓은 채 울고만 있더라.

그 편지는 죽기 전 압박해서 쓴 것이 분명하였으며, 또 어떻게 되어 이런 곳에서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까. 얼핏 편지의 최후의 글귀를 생각하고, 편지를 가져온 창두*를 불러 양산백의 무덤을 물어 보더라.

창두는 바로 그 옆 길 위로 산언덕에 있는, 이제 며칠도 안 된 듯싶은 극히 새로운 무덤을 가리키더라. 추양대는 금덩에서 내려 신부의 예의도 잊은 채 그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 앞에 쓰러져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더라.

(중략)

불행한 신부가 눈물을 뿌리며 축문을 읽고 났을 때, 그 때 거기에 모여 있던 모든 남녀는 예의 분개한 신랑만은 제외하고 죄다 감동해서 역시 눈물을 흘렸고, 난데없는 오색구름이 무덤에서 뭉게뭉게 돌기 시작하였고, 창두는 웬 구름인가 하고 놀라서 눈을 비비며 그것을 똑바로 지켜보았노라고 다짐하기까지 하는 것이더라.

그러자 다음 순간 봉분의 꼭대기에서 한 가닥 찬란한 무지개가 비쳐 올랐으며, 그런가 해서 놀라서 보고 있을 때, 별안간 광하고 천지가 뒤흔들리며 그 무덤이 짹 갈라져 버렸고, 이 무서운 벽력같은 소리에 모여 서 있던 남녀들은 죄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는데, 창두도 겁에 질려 땅에 엎드리고 기어서 겨우 늙은 소나무 뒤로 몸을 피해 그 소나무 줄기를 부여잡고 지켜보더라.

이때는 무덤 앞에서 축문을 읽던 신부는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자는 그 갈라진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 보이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까부터 분개해서 신부의 뒤에 서서 지키고 있던 신랑이 그 갈라진 구멍으로 달려들어 그 여자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서운 형상으로 그것을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며, 치마는 발기발기 찢겨져, 그 여자의 하얀 다리가 흰꿈 보였으나 그것마저 이내 없어지고야 말더라.

— 작자 미상, ‘양산백전’ —

- * 금덩 : 황금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가마.
- * 도축 :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뵈.
- * 증참 : 참고가 될 만한 증거.
- * 범연하다 :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스럽다.
- * 학발 :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하얗게 센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
- * 창두 : 사내중.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의적 표현을 통해 세대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내면 독백을 통해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전능한 입장에서 독자에게 전달하듯이 제시하고 있다.

41.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양대에게 닥칠 위기 상황이 암시된다.
- ② 양산백과 추양대의 과거가 요약되어 있다.
- ③ 추양대에 대한 양산백의 애정이 담겨 있다.
- ④ 양산백이 추양대에게 바라는 바가 드러난다.
- ⑤ 양산백이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을 알 수 있다.

42. <보기>는 윗글에 영향을 끼친 설화의 줄거리이다.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남장을 한 축영대는 양산백과 3년 동안 한집에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중에 양산백을 좋아했지만, 양산백은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한편 축영대의 아버지는 그녀를 다른 가문에 시집보내려 하고 축영대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못한다. 뒤늦게 축영대가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양산백은 집에 돌아온 후 축영대를 그리워하다 병이 들어 죽는다. 축영대는 시집가는 길목에서 양산백의 무덤을 보고 슬퍼하던 중, 갑자기 무덤이 갈라지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러자 무덤에서 한 쌍의 나비가 나오고, 사람들은 한 쌍의 나비가 양산백과 축영대가 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두 주인공은 3년간 함께 지내며 공부했다.
- ② 여자 주인공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 ③ 두 주인공을 시기하며 분개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 ④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 ⑤ 첫 만남에서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인 줄 알았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골동집 출입을 경원한 내가 근간에는 학교 다니는 길 옆에 꽤 진실성 있는 상인 하나가 가게를 차리고 있기로, 가다오다 심심하면 들러서 한참씩 한담(閑談)을 하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누룩한 두꺼비 한 놈을 내놓으면서 ㉠ “꽤 재미나게 됐지요.” 한다.

황갈색으로 검누른 유약을 내려 씌운 두꺼비 연적(硯滴)인데, 연적으로서는 희한한 놈이다.

4, 50 년래로 만든 사기(砂器)로서 흔히 부엌에서 고추장, 간장, 기름 항아리로 쓰는 그릇 중에 이따위 검누른 약을 바른 사기를 보았을 뿐, 연적으로서 만든 이 종류의 사기는 초대면이다.

두꺼비로 치고 만든 모양이나 완전한 두꺼비도 아니요, 또 개구리는 물론 아니다.

특 튀어나온 눈깔과 딱 버티고 앉은 사지(四肢)며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그리고 그 입은 바보처럼 ‘헤—’ 하는 표정으로 벌린 데다가 입 속에는 파리도 아니요 벌레도 아닌 무언지 알지 못할 구멍 뚫린 물건을 물렸다.

콧구멍은 금방이라도 벌름벌름할 것처럼 못나게 뚫어졌고, 등허리는 꿈무늬에 이르기까지 석 줄로 두드러기가 솟은 듯 쪽 내려 얹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약을 갖은 재주를 다 부려 가면서 얼룩얼룩하게 내려 부었는데, 그것도 가슴 편에는 다소 희멀끔한 효과를 내게 해서 구석구석이 교(巧)하다느니보다 못한 놈의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이 한층 더 사랑스럽다.

요즈음 골동가들이 본다면 거저 준대도 안 가져갈 민속품이다. 그러나 ㉡ 나는 값을 물을 것도 없이 덮어놓고 사기로 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이 날 밤에 우리 내외간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쌀 한 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는 아내의 바가지다.

이런 종류의 말다툼이 우리 집에는 한두 번이 아닌지라 종래는 내가 또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값아 줄 테니 걱정 마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한 연유로 나는 이 잡문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잠꼬대 같은 이 한 편의 글 값이 행여 두꺼비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내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퍼할 것이다.

너는 어찌 그리도 못 생겼느냐. 눈알은 왜 저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은 왜 그리 넓으며 입은 무얼 하자고 그리도 컸느냐. 옷을 듯 울 듯한 네 표정! 곧 무슨 말이나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가장 호사스럽게 치레를 한다고 네 놈은 얼썹덜썹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 ㉢ 흡사히 시골 색시가 능라 주속(綾羅紉屬)*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만 보인다.

앞으로 앉히고 보아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모로 앉히고 보아도 그대로 못나고 어리석고 멍텅하기만 하구나. 내 방에 전등이 휘황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더 못나게만 보이니 누가 너를 일부러 심사를 부려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말이나.

㉣ 네 입에 문 것은 그게 또 무어냐. 필시 장난꾼 아이 녀석들이 던져 준 것을 파리인 줄 속아서 받아 물었으리라.

그러나 뱉어 버릴 줄도 모르고, 준 대로 물린 대로 엉거주춤 앉아서 울 것처럼 옷을 것처럼 도무지 네 심정을 알 길이 없구나.

㉤ 너를 만들어서 무슨 인연으로 나에게 보내주었는지 너의 주인이 보고 싶다.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잘 안다.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 하는 호인(好人)일 것이리라.

그리고 너의 주인도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리라.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못생긴 눈, 그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뚱어리들을 보고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

4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골동집 주인은 ‘나’에게 흥미 있는 사건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② ㉡: ‘나’는 언젠가 두꺼비 연적이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 ③ ㉢: ‘나’는 두꺼비 연적의 외양이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 ‘나’는 ‘너의 주인’이 두꺼비 연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순간을 상상하고 있다.
- ⑤ ㉣: ‘나’는 ‘너의 주인’이 의도적으로 두꺼비 연적을 ‘나’에게 보냈다고 확신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 시



2014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A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권
말

[1 ~ 2] 다음은 학급 임원 3명이 한 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회장 : 체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번 학급 회의에서 체육대회 때 반 티셔츠를 맞추어 입자고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티셔츠에 들어갈 문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당장 결정해서 오늘이라도 주문해야하지 않을까요?

남학생 :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티셔츠 문구에 관해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내일 수업 마친 후에 설문 조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여학생 : 물론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단 우리 임원들이 문구를 결정하고, 다음에 학급 친구들에게 동의를 얻도록 합시다.

남학생 : 체육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학생 : 우리는 학급 친구들이 임명한 임원입니다. 이 말은 친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단순한 일은 우리가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남학생 : 친구들이 우리를 임원으로 뽑은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뜻을 잘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쉽고 간단한 일도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도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학생 :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친구들 모두에게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체육대회 연습도 해야 하고, 응원 도구도 준비해야 합니다.

남학생 : 지난 학기에 있었던 합창 대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임원들끼리 노래를 선정하고 합창에서의 역할도 우리끼리 결정하는 바람에 친구들의 원성이 높았고, 결국 대회장에서 우왕좌왕해 큰 망신을 당했잖아요.

회장 : 티셔츠 문구도 빨리 결정해야 하고,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설문 조사는 하면서, 언제라도 문구만 결정되면 곧바로 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고 티셔츠 제작 업체와 약속을 하도록 하죠.

여학생 : 그 방법이 좋겠네요.

남학생 : 저도 찬성합니다.

1. 회의 참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장 : 대립되는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남학생 :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남학생 : 과거의 경험을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 ④ 여학생 : 상대방이 한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여학생 : 상대방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 회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체육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 ㄴ.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 ㄷ. 행사 진행에 관한 간단한 일은 임원들이 결정할 수 있다.
- ㄹ.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 친구들이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3. 다음의 대화에 나타난 '정민'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선 : 내일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우리 동아리를 소개하기로 했는데, 준비는 잘 돼 가니?
 정민 : 준비하긴 했는데, 너무 떨려.
 미선 : 우리 동아리에 대해 소개할 내용은 뭐로 할 거니?
 정민 : 우리 동아리가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선후배 간에 사이가 좋다는 말을 할 거야.
 미선 : 그 정도면 됐네.
 정민 : 하지만 후배들 앞에 처음 나서는 거라 그런지 많이 긴장 돼.
 미선 : 그래? 너 평소에 조리 있게 말 잘 하잖아.
 정민 : 내일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떨리면 실수할 텐데.....

- ① 후배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
- ② 준비를 많이 한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 봐.
- ③ 우리 동아리가 좋은 점이 많잖아. 그걸 소개해 봐.
- ④ 1학년이잖아. 후배들 앞에서 완벽한 선배 모습을 보여줘.
- ⑤ 실수하면 안 돼. 이번 동아리 소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지?

[4 ~ 5] 다음은 두 학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애 : 새롭아, 요즘 정미, 화영이와 말도 잘 안하고, 만나지도 않는 것 같더라. 너희 삼총사 무슨 일 있니?
 새롬 :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실은 말이야..... (한숨을 쉬며) 아니야, 됐어.
 인애 : 웬 한숨이야? 뭔데? 괜찮아. 말해 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
 새롬 : 알았어. 실은 일이 좀 복잡해. 정미가 나에게만 털어 놓은 비밀이 있었는데, 내가 화영이에게 그 비밀을 말해 버린 거야. 바보같이.....
 인애 : (새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새롬 : 화영이가 그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직접 정미에게 그 비밀에 관해 물어 봤대.
 인애 : 아,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구나. 정미가 많이 화났겠네.
 새롬 : 맞아. 그래서 내가 사과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아서 많이 섭섭했어. 지금도 그렇고.
 인애 :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운했겠네! 그런데 뭐라고 사과했니?
 새롬 : 고의는 아니었지만 비밀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런데도 정미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
 인애 : 응, 그렇구나. 그런데 화영이하고는 왜 말을 안 하는 건데?
 새롬 : 내가 정미의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화영이에게 따지니까, 자기도 미안하기는 한데 그런 일 가지고 굳이 따지느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 소리를 버럭 질렀어. 내가 잘못된 거니?
 인애 : (손사래를 치며) 아냐, 아냐, 그렇지 않아. 나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화가 났을 거야.
 새롬 : 휴,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기는 하다. 그런데 정미와 화영이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인애 : 정미의 경우는 정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화영이에게는 지난 화법 시간에 배운 '관용의 격률'에 따라 말해 보는 게 어때?

4. 위 대화에서 ‘인애’의 ‘공감적 듣기’ 태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공감적 듣기’ 태도의 평가표

평가 준거	그렇다	아니다	
•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는가?	✓	 ①
•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는가?		✓ ②
•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었는가?	✓	 ③
•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였는가?	✓	 ④
•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을 요약·정리하였는가?		✓ ⑤

5. <보기>를 참고할 때, ‘인애’의 마지막 말에 대한 ‘새롬’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손한 표현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공손성의 원리’ 중에 ‘관용의 격률’은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 ① “화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② “나도 실수를 했고, 너도 실수를 했으니깐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③ “네가 정말로 나에게 사과하려했다면 그렇게 나에게 짜증을 내서는 안 됐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④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앞으로는 남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마.”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⑤ “갑자기 내가 화를 내서 당황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6. 다음은 글쓰기 과정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국어 선생님께서 요즈음 학생들의 관심사를 주제로 하여 설득하는 글을 쓰라는 과제를 내 주셨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막상 글을 쓰려니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민 끝에 친한 친구 3명을 불러 요즈음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 각자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이성 교제, 학교 폭력, 다이어트, 아이돌 열풍, 청소년 비만 등 다양한 글감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 요즘 내 주위에 비만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청소년 비만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하여 글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으로 글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다. 우선 글을 쓰기 위해 자료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최근 10년간 비만 청소년 현황, 고등학생의 1일 적정 운동량, 청소년 비만이 성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 다음에는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문제 제기-원인 분석-해결 방안-요약·제언’의 순서로 구성하고, 특히 결말 부분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초고를 완성한 후에는 글의 내용이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맞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복하여 고쳤다.

- ①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의를 한 후 주제를 정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 전개 순서를 정하였다.
- ③ 글의 내용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고쳤다.
- ④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 ⑤ 예상 독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글의 표현 방법을 선택하였다.

7. 다음은 공원 입구에 세워진 안내문이다. <보기>는 공원 곳곳에 게시할 공고문으로서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안내

공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불법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원 내에서 밥을 짓는 행위,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 애완동물의 목줄을 풀어 놓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상점 외의 곳에서 김밥,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공원관리사무소(☎123-4567)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공원관리소장

— < 보 기 > —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의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됩니다.

- ◎ 음식물 취사 
- ◎ 애완동물 관리 소홀 
- ◎ 허가 받지 않은 식품 판매 

이러한 행위를 보신 분은 공원관리사무소(☎123-456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 ① 중요도에 따라 내용의 순서를 재배열해야겠어.
- ② 제목은 경어를 사용해 독자의 거부감을 줄여야겠어.
- ③ 중요한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생략해야겠어.
- ④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해야겠어.
- ⑤ 같은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을 포괄하는 말로 항목화해야겠어.

8. ‘악성 댓글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자기 점검을 해 보았다.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I. 문제 제기

- 가. 악성 댓글의 실태
- 나.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의 어려움

II. 악성 댓글의 원인

- 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
- 나. 정보 통신 윤리 의식 미흡
- 다. 인터넷 검색 능력 부족
- 라.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III. 악성 댓글 해소 방안

- 가. 학교에서의 정보 통신 윤리 교육 강화
- 나.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체계 보완

IV. 결론

- ① ‘I-나’는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II’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한다.
- ② ‘II-다’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③ ‘II-라’는 ‘II-나’와 유사한 내용이므로 ‘II-나’에 포함시킨다.
- ④ ‘III’에는 ‘II-가’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게임 섯다운제 실시’를 추가한다.
- ⑤ ‘IV’에는 ‘올바른 댓글 문화 정립’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9. <보기>는 ‘건강과 스트레스’를 주제로 작성한 글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건강과 스트레스

- ㉠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성격 유형과 행동 특성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사람이 느끼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사람은 생리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정면으로 대립하거나 ㉡ 도피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는 그 요인에 대하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스트레스는 고통스러울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에도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기쁨을 얻는다. 예를 들어 산악인이나 항해사들은 거친 자연 조건에서의 산행이나 항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룸으로써 성취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목표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에 ㉣ 순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 ① ㉠은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로 바꾼다.
- ② ㉡에는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스트레스로부터’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 ③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대응’으로 교체한다.
- ⑤ ㉤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런데’로 고친다.

10.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우리말에서 반의 관계의 종류는 '상보 반의', '방향 반의', '정도 반의'로 나눌 수 있다. ㉠ '상보 반의'는 '남자 : 여자'처럼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 관계이고, '방향 반의'는 '오다 : 가다'처럼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며, 마지막으로 '정도 반의'는 '차다 : 뜨겁다'처럼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다.

- ① 참 : 거짓
- ② 크다 : 작다
- ③ 왼쪽 : 오른쪽
- ④ 쉽다 : 어렵다
- ⑤ 오르다 : 내리다

11. <보기>는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보기>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혼자 '하늘'이라고 한다든지 '땅'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① 언어의 규칙성
- ② 언어의 분절성
- ③ 언어의 사회성
- ④ 언어의 역사성
- ⑤ 언어의 창조성

12.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1 >

우리말 합성어 중에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의 형태 등은 우리말에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므로 통사적 합성어라 부르고, ‘용언의 어간+명사’, ‘용언의 어간+용언’의 형태 등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 부른다.

< 보기 2 >

㉠ 굶주리다 ㉡ 기와집 ㉢ 덮밥 ㉣ 들어가다 ㉤ 작은집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3.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부사어의 특성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만났다.
 ㄴ. 아주 큰 서점이 생겼다.
 ㄷ.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ㄹ. 돌고래가 매우 빨리 따라오고 있었다.

- ① ㄱ의 ‘결국’을 보니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겠군.
- ② ㄱ의 ‘여기서’를 보니 부사어는 문장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겠군.
- ③ ㄴ의 ‘아주’를 보니 부사어가 관형어를 꾸며줄 수도 있겠군.
- ④ ㄷ의 ‘며느리로’를 보니 부사어는 꾸미는 말이므로 생략할 수 있겠군.
- ⑤ ㄹ의 ‘매우’를 보니 부사어가 부사어를 꾸며줄 수 있겠군.

14. <보기>는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우리말 음운 변동 중, 교체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변동 유형	설명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올 수 없는 자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유음화	‘ㄹ’에 인접한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
구개음화	형태소의 끝소리인 ‘ㄷ, ㅌ’이 ‘ㄱ’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와 만날 때 ‘ㄷ, ㅌ’으로 바뀌는 현상

- ① 논일
- ② 같이
- ③ 바깥
- ④ 믿는다
- ⑤ 물놀이

[15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 중앙에 어떤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도우려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도움 행동(친사회적 행동)’이라 한다. 도움 행동은 순수하고 사심 없이 돕는 행동에서부터 이익 추구라는 계산적인 목적으로 돕는 행동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가]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곤경에 처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도움 행동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 상황에서 제3자의 존재 여부는 도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 주위에 제3자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도움 행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제3자가 있을 때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돕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급한 상황이 아닌가봐.’ 하고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에 존재하는 제3자가 낯선 사람일 경우보다는 친한 사람일 경우에 도움 행동은 더 빨리, 더 잘 일어난다. 이는 사람들이 도움 행동을 할 때 제3자가 친한 사람일 경우 자신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현재 어떤 감정 및 동기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도 도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양심의 가책에 민감한 사람은 도움 행동을 통해 불쾌한 감정이나 압박감에서 ㉠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와준다. 그리고 ‘곤경에 처한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움 행동을 더 많이 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도움 행동이 더 쉽게 나타난다. 또한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도 도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진 경우와 일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에 도움 행동을 더 많이 한다.

[나] 한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 행동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간은 개인적 선택과 행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자유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도움을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겪는 곤경이 타인, 우연, 상황적인 압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 능력, 자질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도움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5.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의 내용과 그 범위를 소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논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16. [가]를 참고하여 <보기>의 실험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실험명 : 도움 행동 실험
- 실험 방법 : 설문지를 작성하는 중 누군가가 다급하게 비명을 지를 때, 피험자가 도움 행동에 나서는 비율, 도움 행동에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함.
- 피험자 그룹
 - A 그룹 : 피험자 1명.
 - B 그룹 : 피험자 1명, 실험 협력자 1명.
 - * 실험 협력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태에 대하여 시중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함.
 - * 피험자는 실험 협력자를 자신과 동일한 피험자로 인식하고 있음.
 - C 그룹 : 피험자 2명.(둘은 모르는 사이임.)
 - D 그룹 : 피험자 2명.(둘은 친구 사이임.)
- 실험 결과
 - ㄱ. 도움 행동에 나선 비율 : A 그룹 70%, B 그룹 7%, C 그룹 40%, D 그룹 70%
 - ㄴ. 도움 행동에 나서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 : C 그룹 130초, D 그룹 36초

- ① A 그룹에서 B 그룹보다 도움 행동이 잘 일어난 이유는 옆에 타인이 없었기 때문이겠군.
- ② B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도움 행동을 덜한 이유는 실험 협력자의 행동이 피험자의 상황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겠군.
- ③ B 그룹과 C 그룹의 결과로 보아 피험자에게 경제적 목적이 있을 때에 도움 행동이 더 잘 일어나겠군.
- ④ C 그룹은 D 그룹에 비해서 옆 사람의 평가를 덜 의식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군.
- ⑤ D 그룹에서 C 그룹보다 도움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은 옆에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군.

17. [나]를 바탕으로, 도움 행동에 나설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가까운 사람일 때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②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③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때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④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여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18.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네 행동은 예의에서 벗어난 거야.
- ②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③ 터널에서 벗어나자 시야가 밝아졌다.
- ④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자.
- ⑤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났다.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위협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생활(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공적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이 있다.

㉠ 공적연금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연금은 가입자가 비용은 현재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의 욕구를 더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당장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젊은 시절에 노후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최저생계를 보장해준다. 이 경우 젊었을 때 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방만하게 생활한 사람들의 노후생계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연금 관리자의 입장과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각기 다르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만, 연금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적립방식’은 인구 구조가 변하더라도 국가는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받을 연금과 내는 보험료의 비율이 누구나 일정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 하지만 일정한 기금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므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 지급이 어렵다.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적립방식’과 달리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제도 도입과 동시에 연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인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되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금액과 지급 받을 연금액의 관계에 따라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방식은 가입자가 일정한 액수나 비율로 보험료를 낼 것만 정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의 액수는 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립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연금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이 손실 위험을 떠안게 된다. 또한 물가가 인상되는 경우 확정기여에 따른 적립금의 화폐가치가 감소되는 위험도 가입자가 감수해야 한다. 확정급여방식은 가입자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지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따라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다. 나중에 받을 연금을 미리 정하면 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의 실패는 연금 관리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손해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축을 하느라 적절한 소비를 하지 않으므로
- ②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 ③ 현재의 욕구를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므로
- ④ 미래의 편익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므로
- ⑤ 노후 대비를 국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 공적연금의 재원 충당 방식 중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목	적립방식	부과방식
① 연금 지급 재원	가입자가 적립한 기금	현재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
② 연금 지급 가능 시기	일정한 기금이 형성된 이후	제도 시작 즉시
③ 세대 간 부담의 공평성	세대 간 공평성 미흡	세대 간 공평성 확보
④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 어려움	소득 재분배 가능
⑤ 인구 변동 영향	받지 않음	받음

21.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상황에 대하여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회사는 이번에 공적연금 방식을 준용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회사는 직원들이 퇴직연금 방식을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확정기여방식은 부담금이 공평하게 나뉘지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 ② 확정기여방식은 기금을 운용할 회사의 능력에 따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 ③ 확정기여방식은 기금의 이자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면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
- ④ 확정급여방식은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 ⑤ 확정급여방식은 투자 수익이 부실할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22. ㉠와 관련하여 맞춤법에 따른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율(規律)
- ② 선율(旋律)
- ③ 자급율(自給率)
- ④ 점유율(占有率)
- ⑤ 백분율(百分率)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속은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데, 물속에서의 음속은 공기에서보다 4 ~ 5배 빠르다. 물속의 음속은 수온과 수압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런데 해양에서 수압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지만 수온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온과 수압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의하여 음속이 결정된다.

음속의 변화를 주는 한 요인인 수온의 변화를 보면, 표층은 태양 에너지가 과도나 해류로 인해 섞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아래의 층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 어려워 수심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이보다 더 깊은 심층에서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표층과 심층 사이에 있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층을 수온약층이라 한다. 표층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높은 음속을 보인다. 그러다가 수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수온약층에서는 음속도 급격히 감소하다가 심층의 특정 수심에서 최소 음속에 이른다. ㉠ 그 후 음속은 점차 다시 증가한다.

수온약층은 위도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적도에서는 일 년 내내 해면에서 수심 150미터까지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그 이하부터 600미터까지는 수온약층이 형성된다. 중위도에서 여름철에는 수심 50미터에서 120미터까지 수온약층이 형성되지만, 겨울철에는 표층의 수온도 낮으므로 수온약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극지방은 표층도 깊은 수심과 마찬가지로 차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온약층이 거의 없다.

수온약층은 음속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음파를 휘게도 만든다. 소리는 파동이므로 바닷물의 밀도가 변하면 다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 일어난다. 수온약층에서는 음속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음파는 수온약층과 만나는 각도에 따라 위 혹은 아래로 굴절된다. 음파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층 쪽으로 굴절한다. 이런 굴절 때문에 해수면에서 음파를 보냈을 때 음파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구역이 형성되는데 이를 음영대 (shadow zone)라 한다.

높은 음속을 보이는 구간이 있다면 음속이 최소가 되는 구간도 있다. 음속이 최소가 되는 이 층을 음속최소층 또는 음파통로라고 부른다. 음파통로에서는 음속이 낮은 대신 소리의 전달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 층을 탈출하려는 바깥 방향의 음파가 속도가 높은 구역으로 진행하더라도 금방 음파통로 쪽으로 굴절된다. 음파통로에서는 음파가 위로 진행하면 아래로 굴절하려 하고, 아래로 진행하는 음파는 위로 다시 굴절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즉 음파는 속도가 낮은 층 쪽으로 굴절해서 그 층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층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수천 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린다.

해양에서의 음속 변화 특징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음영대를 이용해 잠수함이 음파탐지기로부터 회피하여 숨을 장소로 이동하거나, 음파통로를 이용해 인도양에서 음파를 일으켜 대서양을 돌아 태평양으로 퍼져나가게 한 후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를 관찰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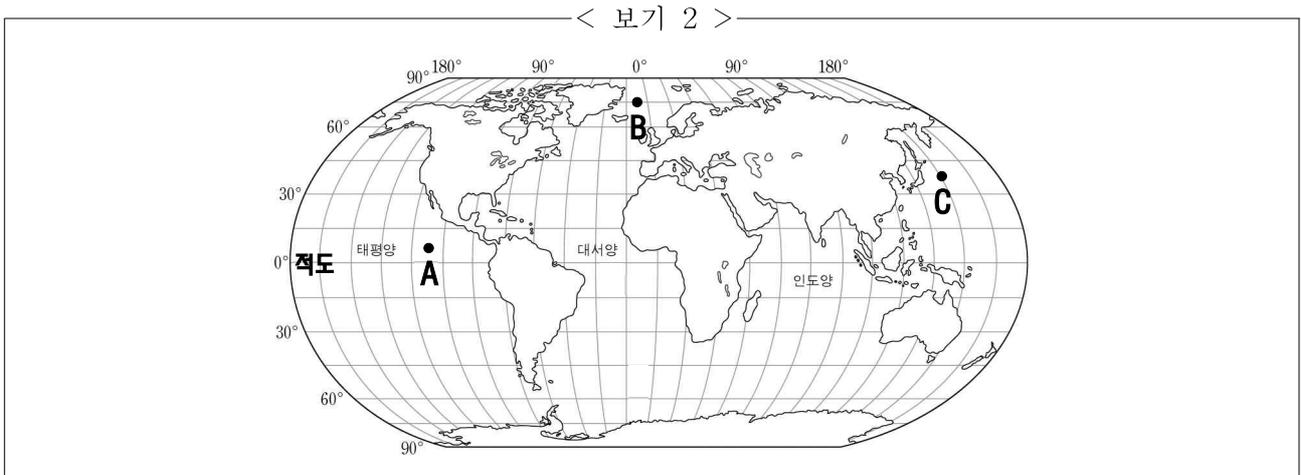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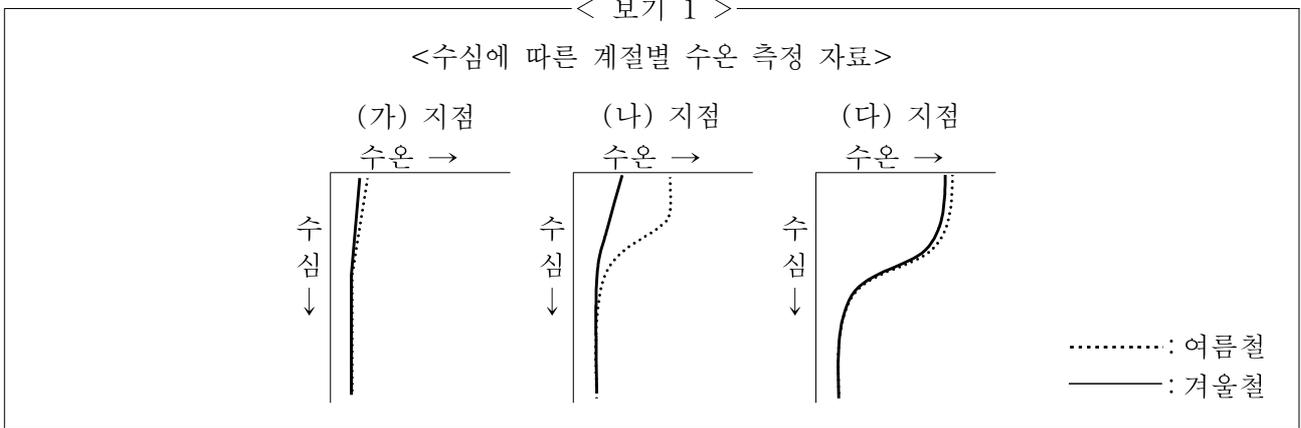
23. 윗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온이 일정한 구역에서는 수심이 증가할수록 음속도 증가할 것이다.
- ② 심층에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③ 수영장 물 밖에 있을 때보다 수영장에서 잠수해 있을 때 물 밖의 소리가 더 잘 들릴 것이다.
- ④ 음영대의 특성을 이용하면 잠수함은 적의 음파 탐지로부터 숨을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음속이 최소가 되는 층에서 발생한 소리는 멀리까지 들리므로 기후 연구 등에 이용될 것이다.

24. 밑글로 보아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온약층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 ② 압력이 증가할수록 수온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 ③ 밀도가 다른 해수층을 만나 음파가 굴절되기 때문이다.
- ④ 압력 증가의 효과가 수온 감소의 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 ⑤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수압과 수온 모두 상승하기 때문이다.

25. 밑글과 <보기 1>을 참고할 때, (가)~(다)의 측정 지점을 <보기 2>에서 바르게 추정한 것은? (3점)



- | | (가) 지점 | (나) 지점 | (다) 지점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B | C | A |
| ⑤ | C | A | 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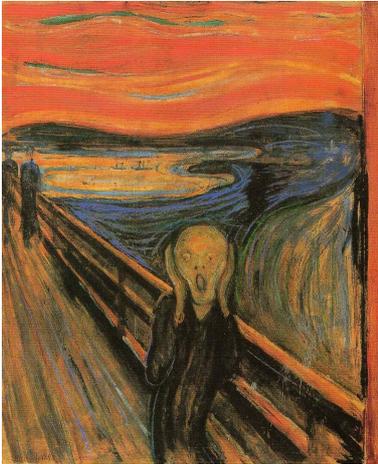
26. 문맥으로 보아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송(發送)한다
- ② 발행(發行)한다
- ③ 발족(發足)한다
- ④ 발생(發生)한다
- ⑤ 발호(發號)한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10년을 전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사조인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하여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술 운동이자, 회화에 사회의식을 반영한 사조로 평가 받는다. 19세기 후반 당시의 독일 사회는 전쟁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표현주의자들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초라한 인간상을 예리하게 ㉠ 포착하여 불안과 공포, 기쁨과 슬픔 등 자신이 느낀 것을 ㉡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다.

기존의 회화가 외적 세계의 모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표현주의자들은 외적 세계에 대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채의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였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이므로, 당시의 내면 상태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듯한 거친 붓놀림과 선에 의해 단순화된 형태, 그리고 과장된 색채를 ㉢ 선호하였다. 특히 표현주의자들은 판화를 많이 제작하였다. 작가들은 판화에서는 과장된 색채 대신 흑백 대조를 활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들을 이용하여 당시의 부정적인 사회 상황을 드러내려 하였다.



당대인들은 표현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왼쪽의 작품은 표현주의의 대표작인 뭉크의 「절규」이다. 이 작품이 베를린 전시장에 걸리자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해 비난을 하였고, 결국 이 전시장은 폐쇄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감상 방식에 얽매어 있었던 당대 사람들은 표현주의의 어둡고 무거운 주제와 일그러진 형태, 자연스럽지 못한 색감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표현주의는 감정과 이념을 표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입체적 구도의 균형이 주는 조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작가의 내면세계에 대한 메시지의 전달을 더욱 중시하였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각과 감정 상태를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주의는 전후의 혼란 속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지속되었으나 나치 정권으로부터 퇴폐 예술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으면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하지만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는 바깥 세계의 묘사에 간혀 있었던 예술적 안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의 표현 영역으로 ㉣ 확장함으로써 현대 회화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 회화에서 작품의 재현적 가치보다 ㉤ 개성적 가치가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예술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 시도했던 표현주의의 실험 정신이 남겨 놓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27.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표현주의 미술의 주된 소재는 무엇인가?
- ② 표현주의 미술이 탄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③ 표현주의 미술에 영향을 준 미술 사조는 무엇인가?
- ④ 표현주의 미술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 ⑤ 표현주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표현주의 작가 콜비츠의 대표작인 「궁핍」이다. 이 작품은 실업과 사회적 붕괴가 잦았던 술레지엔 지방 방직 공들이 당면한 비참한 처지를 다룬 석판화로서, 작가가 실제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지켜 본 후 괴로운 마음에서 창작한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이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대상은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독일의 황제가 주최하는 미술 대회에서 금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독일의 내각은 ‘작품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거나 달래주는 요소가 전혀 없는 기법을 사용했다.’라며 황제에게 이 수상의 취소를 건의했다고 한다.

- ①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은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한 것이겠군.
- ② 방직공의 모습을 거칠고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한 것은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나타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미술 작품을 전통적인 감상 방식으로 감상했던 당대인들은 비참한 당대 사회 현실이 드러나는 이 작품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겠군.
- ④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비극적 모습을 목격한 콜비츠가 자신의 괴로운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대상을 왜곡하여 표현하면서도 원근법을 통해 장면에 입체감을 부여한 것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구현된 것이겠군.

29. 문맥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시각으로 관찰한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대상을 바라보며 느낀 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대상의 고유한 비례와 균형을 찾아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결함을 보완해서라도 대상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한 대상의 모습을 한 작품 안에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문맥을 고려하여 ㉠~㉤을 우리말로 고쳐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잡아내어
- ② ㉡: 아름답게 꾸미지
- ③ ㉢: 특별히 좋아하였다
- ④ ㉣: 넓힘으로써
- ⑤ ㉤: 이끌었던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피가도 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떠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꼬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1'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확산시키고 있다.
- ② 동일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③ 공간의 대조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32. 윗글을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산을 감고 흘러가는 물줄기의 모습을 제시하자.
 ㄴ. 강변에 여러 가지 풀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자.
 ㄷ. 식물도감을 들고 꽃을 채집하는 학생의 모습을 제시하자.
 ㄹ. 하루 일을 마치고 낄낄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모습을 제시하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일반적으로 시에서 ‘끓이지 않고 흐르는 강’은 ‘역사성’, ‘시간의 흐름’, ‘정화’, ‘생명력’, ‘희망’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에서도 시인은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끓이지 않고 흘러가는 섬진강과 그 주변의 자연을 둘러보며 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① ‘개울물들이 끓이지 않고 모여 흐르며’를 통해 끈질기고 강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어.
 ②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에서 비극적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
 ③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에서 부정적 세력을 몰아내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④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는 부정적 존재들이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⑤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을 통해 희망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 **아버진 죄를 지었다**. 아직은 넌 모를 테지만, 그 때문에 아버지는 집을 떠나신 거여. 하지만..... 네 아버지는 눈매가 고운 분이셨다. 우리 마을에서 단 하나뿐인 학생이었고..... 남들이 사람을 해치려는 걸 한사코 말리시려고 했지. 그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여럿이 있어. 정말이여.

그런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중략 줄거리] 군 복무 중이던 ‘나’는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다가, 6·25전쟁 때 죽은 사람의 유골을 발견한다. 누구의 유골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습 현장에 인근 마을의 노인을 불렀다.

“그렇다면 이치도 아마 빨갱이었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이 지휘봉의 뽀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 **유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제가 되물었다.

“어쨌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보기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의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임자 없이 이리저리 핑개쳐 뒀을라구.”

“그걸 누가 압니까. 그때야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그때였다. 쭈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어허, 대관절..... 대관절 그게 어떻다는 얘기로. 죽어서까지 원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자는 말이오. 죽은 사람이 뭇을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쯤쯤.”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뺏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만양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똥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 있는 사람이 깨워서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녀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감도록 해야지, 암.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죽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었다. 금방이라도 찢겨 찢겨 췌소리를 낼 듯한 ㉢ **철사 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었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단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 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영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얌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킬킬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이. ㉡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 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영게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경귀 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사건이 과거 회상, 인물의 상상과 중첩되고 있다.
-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서사가 진행될수록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⑤ 차분한 어조를 쓰며 사건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유년 시절에 겪었던 공포로부터 도피하던 공간이다.
- ② ㉡은 '나'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이 유골을 옥죄고 있는 것은 전쟁의 참상을 암시한다.
- ④ ㉣을 만드는 행위는 죽은 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⑤ ㉣은 아버지와의 재회를 기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낸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아버지의 땅」은 6·25전쟁 때 좌익 활동을 하다 행방불명된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나'가 아버지와 화해에 이르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통하여 6·25전쟁의 상처와 갈등이 전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버지를 이해하며 화해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전쟁 상처 극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아버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통해 '나'도 전쟁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게 된다.
- ② '나'가 아버지를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나'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 ③ '현기증'이 일어나며 아버지의 환영을 보는 장면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를 암시한다.
- ④ 아버지를 떠올리며 '시야가 부엌에 흐려'지는 '나'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 극복을 기대하게 한다.
- ⑤ '어느 버려진 밭고랑'은 아버지와 화해에 이르는 '나'가 아버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했음을 보여준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_____ [A]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_____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 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 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휘여 잇고, _____ [B]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 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 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익 다를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 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_____ [C]
 한중 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헝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헝새. _____ [D]
 아츠·口에 채산(採山)헝고 나조히 조수(釣水)헝새.
 꺾 꺾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ㄱ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淸流)를 굽어보니 셔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_____ [E]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락이 권 거인고.
 송간 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 천촌 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넉.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펏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공명(功名)도 날 썩우고 부귀(富貴)도 날 썩우니,
 청풍 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 단포 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헝넉.
 아모타, 백년 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헝리.

37.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생애’에 대한 자부심을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수간 모옥’ 주변의 경치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호재로다’에 담긴 고독한 정서를 대조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니웃’들과 풍류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대구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술’로 인한 취흥을 고사(故事)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3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칼로 마름질하거나 붓으로 그려낸 것 같다는 뜻으로 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새 소리가 흥겹게 들린다는 뜻으로 화자의 흥취를 자연물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 향기는 잔에 어리고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 아름다운 마을이 곳곳에 펼쳐 있다는 뜻으로 이상향이 실현된 공간을 그리고 있다.
- ⑤ ㉤: 소박하게 살며 헛된 생각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삶에 대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조선 전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관조를 통해 지극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정극인 역시 자연과 소통하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고자 했다. 즉 일상적 현실에서 벗어나 은일하며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한 것이다. <상춘곡>은 그의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 ① 인간적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자연 속에서 이러한 욕망을 극복하고 있군.
- ② 학문의 정진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치를 깨닫고 있군.
- ③ 자연을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 묘사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고 있군.
- ⑤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화자의 잘못을 성찰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이시백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임경업이 군관으로 수행하게 된다. 마침 그 때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아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한다. 그러나 명나라에 마땅한 장수가 없어 임경업이 청병대장으로 출전하여 가달을 물리쳐 명나라와 호국에 그 이름을 떨친 후에 조선으로 돌아온다.

임경업이 의주부윤으로 도입한 후로 군정을 살피고 사졸(士卒)을 연습하더니, 호장이 경업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압록강에 와 엿보거늘, 경업이 대로하여 토병을 호령하여 일진을 엄살하고,

“되놈을 잡아들이라.”

하고 명하니, 군사가 되놈을 결박하여 들이거늘, 경업이 크게 꾸짖으며

“내 연전에 너희 나라에 가 가달을 쳐 파하고 호국 사직을 보전하였으니, 그 은덕을 마땅히 만세불망(萬世不忘)할 것이어늘,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고 아국을 침범코자 하니, 너희 같은 무리를 죽여 분을 씻을 것이로되 십분 용서하여 돌려보내나니, 빨리 돌아가 본토를 지키고 다시 외람된 뜻을 내지 말라.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으면 편갑(片甲)*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국을 소멸하리라.”

하고 끌어 내치니, 되놈들이 쥐가 숨듯 돌아가 제 대장과 군졸을 보고 수말을 이르니, 장졸들이 크게 노하여

“임경업이 공교한 말로 아국을 능욕하여 군심(軍心)을 미혹케 하니, 맹세코 경업을 죽여 오늘날 한을 씻으리라.”

하고, 병마 중 정예한 군사를 뽑아 7천을 거느려 압록강에 이르러 강을 사이하고 진세(陣勢)를 베풀고 외치기를,

“조선국 의주부윤 임경업 필부(匹夫)는 어찌 간사한 말로 나의 군심을 요동케 하느냐. 너의 재주가 있거든 나의 철퇴를 대적하고, 불연즉(不然則) 항복하여 죽음을 면하라.”

하거늘, ㉠ 경업이 대로하여 급히 배를 타고 물을 건너 말에 올라 청룡검을 빗겨들고 호진(胡陣)에 달려들어 무인지경같이 좌충우돌하니, 적장의 머리 추풍낙엽같이 떨어지매 적장이 당해내지 못하여 급히 달아날 새, 서로 짓밟히며 물에 빠져 죽은 자가 그 수를 셀 수 없더라.

경업이 필마단창(匹馬單槍)으로 적진을 파하고 본진으로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며 군사를 호쾌*할 새, 의주 군졸이 일시에 하례하며 즐기는 소리가 진동하더라.

이튿날 새벽에 강변에 가 바라보니, 적군의 주검이 피같이 쌓이고 피 흘러 내가 되었는데지라.

이때 적병이 돌아가 호왕을 보고 패한 연유를 고하니, 호왕이 듣고 대로하여 다시 기병하여 원수 갚음을 의논하더라. 경업이 관중에 들어와 승전한 연유를 장계하니, 상이 보시고 크게 기뻐하신 중 후일을 염려하시나, 조신(朝臣)들은 안연 부동하여 국사를 근심하는 이 없으니 가장 한심하더라.

이때 호왕이 경업에게 패한 후로 분기를 참지 못하여, 다시 제장을 모아 의논하여,

“예서 의주가 길이 얼마나 하느냐.”

좌우가 대답하기를,

“열하루 길이니, 한편은 갈 수풀이요 압록강을 격하였사오니, 월강하여 마군(馬軍)으로 대적한즉 수만 군졸이 모여 진을 칠 곳이 없고, 또한 군사가 패한즉 한갓 죽을 따름이니, ㉡ 기이한 계교를 내어 경업을 멀리 피한 후에 군사를 나아감이 좋을까 하나이다.”

호왕이 옳게 여겨 용골대(龍骨大)로 선봉을 삼고 말하기를,

“너는 수만 군을 거느려 가만히 황하수(黃河水)를 건너 동해로 돌아 주야배도(晝夜倍道)하여 가면 조선이 미처 기병치 못할 것이요, 의주서 알지 못할 것이니, 왕도(王都)를 엄습하면 어찌 항복받기를 근심하며, 대사를 성공하면 경업을 사로잡지 못하리오.”

용골대가 청령하고 군마를 아침 일찍 출발할 새, 호왕께 하직하니, 호왕 왈,

“그대 이번에 가매 반드시 조선을 항복받아 나의 위엄을 빛내고 대공을 세워 수이 반사*함을 바라노라.”

용골대가 청령하고 승선발행(乘船發行)하니라.

경업이 호병을 파한 후에 사졸을 조련하여 군기를 보수하고 성첩을 수축하여 후일을 방비하되, 조정에서는 호병을 파한 후에 의기양양하여 태평가를 부르고 대비함이 없더니, 국운이 불행하여 의외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당한

지라.

철갑 입은 오랑캐 동대문으로 물 밀듯이 들어와 ㉠ 백성을 살해하고 성중을 노략하니 도성 인민이 물 끓듯 곡성이 진동하며, 부모 형제 부부 노소가 서로 실신하여 살기를 도모하니, 그 형상이 참혹하더라.

이런 망극한 때를 당하여 조정에 막을 사람이 없고, 종사의 위태함이 경각 사이에 있는지라. ㉡ 상이 망극하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하실 새, 급히 가마를 타고 강변에 이르사 배를 타시매, 백성들이 뱃전을 잡고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무수하니, 그 형상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왕대비와 세자 삼형제는 강화로 가시고, 남은 백성은 호적에게 어육(魚肉)이 되니라.

도원수 김자점은 이런 난세를 당하였으되 한 계교를 베풀지 못하고, 용골대는 백성의 집을 헐어 뗏목을 만들어 강화로 들어가더라. ㉢ 강화유수 김경징(金慶徵)은 좋은 군기를 고중(庫中)에 넣어두고 술만 먹고 누웠으니, 도적이 스스로 들어가 왕대비와 세자·대군을 잡아다가 송파(松坡) 벌에 유진(留陣)하고, 세자·대군을 구류하고 외치기를,

㉣ “수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대비와 세자·대군이 무사치 못하리라.”

하는 소리 천지진동하더라.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편갑(片甲) : 싸움에 지고 난 군사를 비유한 말.

* 호궤(犒饋) : 음식을 베풀어 군사를 위로함.

* 반사(班師) : 군사를 이끌고 돌아옴.

4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사 전개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③ 상황 변화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통해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면을 부각시켜 해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1. 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한산성을 포위하여 항복시킨다.
- ② 의주를 우회하여 왕도를 급습한다.
- ③ 임경업을 속임수로 유인하여 제거한다.
- ④ 압록강을 월강하여 마군으로 대적한다.
- ⑤ 염탐꾼을 보내 임경업의 허실을 파악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㉑~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병자호란은 조선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 태종이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하여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쫓겼다가 항복하고 굴욕적인 화약(和約)을 맺었던 사건이다. 병자호란 때 임경업은 중국 명나라와 합세하여 청나라를 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자점의 모함으로 죽었다. 「임장군전」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허구적 내용을 가미한 소설이다. 작품의 주제는 임경업에 대한 영웅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굴욕적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 조정 관료에 대한 비판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 ① ㉑은 주인공의 용맹함을 부각시켜 영웅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② ㉒은 독자들에게 청나라의 만행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겠군.
- ③ ㉓은 병자호란 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㉔은 외침에 대처하지 못한 지배층의 잘못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㉔은 굴욕적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골동집 출입을 경원한 내가 근간에는 학교 다니는 길 옆에 꽤 진실성 있는 상인 하나가 가게를 차리고 있기로, 가다오다 심심하면 들러서 한참씩 한담(閑談)을 하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누룩한 두꺼비 한 놈을 내놓으면서 ㉠ “꽤 재미나게 됐지요.” 한다.

황갈색으로 검누른 유약을 내려 씌운 두꺼비 연적(硯滴)인데, 연적으로서는 희한한 놈이다.

4, 50 년래로 만든 사기(砂器)로서 흔히 부엌에서 고추장, 간장, 기름 항아리로 쓰는 그릇 중에 이따위 검누른 약을 바른 사기를 보았을 뿐, 연적으로서 만든 이 종류의 사기는 초대면이다.

두꺼비로 치고 만든 모양이나 완전한 두꺼비도 아니요, 또 개구리는 물론 아니다.

특 튀어나온 눈깔과 딱 버티고 앉은 사지(四肢)며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그리고 그 입은 바보처럼 ‘헤—’ 하는 표정으로 벌린 데다가 입 속에는 파리도 아니요 벌레도 아닌 무언지 알지 못할 구멍 뚫린 물건을 물렸다.

콧구멍은 금방이라도 벌름벌름할 것처럼 못나게 뚫어졌고, 등허리는 꿈무늬에 이르기까지 석 줄로 두드러기가 솟은 듯 쪽 내려 얹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약을 갖은 재주를 다 부려 가면서 얼룩얼룩하게 내려 부었는데, 그것도 가슴 편에는 다소 희멀끔한 효과를 내게 해서 구석구석이 교(巧)하다느니보다 못한 놈의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이 한층 더 사랑스럽다.

요즈음 골동가들이 본다면 거저 준대도 안 가져갈 민속품이다. 그러나 ㉡ 나는 값을 물을 것도 없이 덮어놓고 사기로 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이 날 밤에 우리 내외간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쌀 한 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는 아내의 바가지다.

이런 종류의 말다툼이 우리 집에는 한두 번이 아닌지라 종래는 내가 또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값아 줄 테니 걱정 마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한 연유로 나는 이 잡문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잠꼬대 같은 이 한 편의 글 값이 행여 두꺼비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내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퍼할 것이다.

너는 어찌 그리도 못 생겼느냐. 눈알은 왜 저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은 왜 그리 넓으며 입은 무얼 하자고 그리도 컸느냐. 옷을 듯 울 듯한 네 표정! 곧 무슨 말이나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가장 호사스럽게 치레를 한다고 네 놈은 얼쑹덜쑹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 ㉢ 흡사히 시골 색시가 능라 주속(綾羅紉屬)*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만 보인다.

앞으로 앓히고 보아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모로 앓히고 보아도 그대로 못나고 어리석고 멍텅하기만 하구나. 내 방에 전등이 휘황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더 못나게만 보이니 누가 너를 일부러 심사를 부려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말이나.

㉣ 네 입에 문 것은 그게 또 무어냐. 필시 장난꾼 아이 녀석들이 던져 준 것을 파리인 줄 속아서 받아 물었으리라.

그러나 뱉어 버릴 줄도 모르고, 준 대로 물린 대로 엉겨주춤 앓아서 울 것처럼 옷을 것처럼 도무지 네 심정을 알 길이 없구나.

㉤ 너를 만들어서 무슨 인연으로 나에게 보내주었는지 너의 주인이 보고 싶다.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잘 안다.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 하는 호인(好人)일 것이리라.

그리고 너의 주인도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리라.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못생긴 눈, 그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뚱어리들을 보고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

4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골동집 주인은 ‘나’에게 흥미 있는 사건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② ㉡: ‘나’는 언젠가 두꺼비 연적이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 ③ ㉢: ‘나’는 두꺼비 연적의 외양이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 ‘나’는 ‘너의 주인’이 두꺼비 연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순간을 상상하고 있다.
- ⑤ ㉤: ‘나’는 ‘너의 주인’이 의도적으로 두꺼비 연적을 ‘나’에게 보냈다고 확신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